현대불교신문·아름다운동행 공동 캠페인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0316-6816-7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윤2월 1일)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3월 14일 룸비니 마야데비 사원 아쇼카 석주 광장서 불교중흥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탄생성지 룸비니서 韓불교 새 출발 기원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3월 14일 불교중흥 기원법회

회주 자승 스님 "상생이 행복의 길"
사부대중 중흥 원력 모아주길 당부
사상 최초 룸비니 마야데비 사원내
금강경 독송 및 원력 108배도 진행
"한국불교 새로운 출발 계기 되길"
108원력문 전문 공개, 매일 108배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의 궤적을 따라서 인도 곳곳 발자취를 남겨온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이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에서 다시 한번 생명존중과 평등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부처님 탄생과 함께 생명의 존엄함과 어떤 것도 차별없음을 선언한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모토로 용맹정진의 순간순간을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로 새겨 썼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3월 14일 인도 코리야를 출발해 국경지대인 소나울리를 지나 네팔 룸비니에 당도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부처님께서는 탄생과 함께 불제자들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사부대중은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원력으로 불교중흥과 세계평화를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원력의 상징으로 회주 자승 스님은 부처님 전에 연등을 공양 올렸다.

이날 법회 봉행의 의미에 대해 회주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범해 스님 대독을 통해 "사부대중이 2600년 시간을 넘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룸비니에서 감개무량한 법석을 마련했다. 일곱 걸음, 그 첫 걸음마다 피어난 연꽃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며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제자들이지만, 오직 부처로 살겠다는 서원으로 부처님 첫걸음을 따라가려 한다"고 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사부대중의 순례는 생명이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실천이다. 모두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함께 상생하는 것만이 영원한 행복의 길"이라며 "순례는 온전히 한국불교 사부대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순례는 끝나지 않는다. 생명살림과 평화를 향한 축원의 걸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룸비니는 많은 부처님 성지 중에서도 특히 아소카왕이 '위대한 분이 탄생하였기에 세금을 면한다' 는 기록을 석주에 새길 정도로 의미가 큰 곳이다.

순례단은 연등 공양에 앞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후 네팔불교 삼귀의와 오계 의식으로 법회를 시작했다. 성도지와 열반지에서 자성과 참회, 불교중흥을 향한 뜨거운 눈물과 각오를 다졌던 순례단은 이날도 연등공양과 봉행사에 이어 부처님 탄생게를 낭송하며 마음을 모았다.

6조 조장 묘수 스님을 대표로 순례단은 "오늘 사부대중이 함께한 이곳이 부처님께서 태어난 거룩한 정토"라며 "내 오직 이번 삶 동안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도다. 삼계가 괴로움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라고 함께 외쳤다.

이와 함께 이번 대법회에 앞서 부처님이 태어난 장소의 발굴현장 그대로 사원으로 만든 마야데비 사원 내에서 한국불교 사상 최초로 금강경 독송과 함께 새롭게 만든 108원력문에 맞춘 108배도 진행됐다.

이날 룸비니 기원대법회에는 베네레벌 샤크야무니 룸비니 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20개국 스님들과 박종석 주네팔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불자들은 동화사 방장 의현 스님을 비롯한 동화사 본말사 신도,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인 정도 스님을 비롯한 법주사 본말사 신도, 종회의원 정덕 · 도성 · 원경 · 각연 스님, 부다가야 분황사 주지 붓다팔라 스님, 대성석가사 보현 스님 등이 참석했다.

엄홍길휴먼재단의 룸비니학교 학생들, 지구촌공생회의 네팔학교 학생들, 108산사순례회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 등도 행선하는 길목마다 나와 순례단을 맞이했다.

베네레벌 샤크야무니 부위원장은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이 부처님의 족적을 따라 이 곳으로 왔다"며 "오늘은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석 주네팔대사도 "상월결사의 순례는 도보로 1167km를 가는 대장정으로 더위와 피로에 아랑곳 않고 이곳까지 오신 순례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순례단의 방문으로 한국불자들의 신심이 더욱 증장되길 바란다. 마지막 남은 여정도 무사히 회향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룸비니 기원법회에 함께 한 중앙종회의원 원경 스님은 "부처님 탄생지에서 탄생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며 "한국불교가 순례단의 순례를 시작으로 중흥의 새 출발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관련 특집 A5 · B1~11면〉

특집 · 상월결사 인도순례
A5면 · 섹션 B1~12면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 종도들 관심 · 협조" 당부

진우 스님, 본사주지회의서 당부
3월 23일 조계사서 회향식 봉행
'108원력문' 최종본 공개 예정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43일 대장정을 회향하는 조계사 회향식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장정을 마무리하는 회향식에 대한 종도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서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순례를 지속하고 있다"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순례를 이끌고 계신 회주 자승 스님과 순례단의 쉼 없는 정진에 존경과 찬탄을 올린다"고 상찬했다.

이어 "종단은 전인미답의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상월결사 순례단의 구도행을 뜨겁게 환영하며 그 공덕을 온전히 갈무리 할 수 있도록 회향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에 교구본사주지 스님들께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조계종은 오는 3월 2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식을 봉행한다. 이날 조계사에는 전국 1만 5000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운집해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순례 회향을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향식에서는 3월 14일 초안이 공개된 '상월결사 108원력문' 최종 완성본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제37대 집행부 종책 과제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주요 종책 과제인 '불교의 사회적 소통강화'를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4월 19일에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한국불교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승려복지 증진을 위한 불교 전문 요양병원 '아미타요양병원' 개원을 차질없이 준비중임을 알렸다.

진우 스님은 "제37대 집행부는 교구발전이 곧 종단 중흥의 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앞으로도 본사 주지 스님들과 종단 발전의 길에 함께 걸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식 진행 계획 보고 △불기2566(2022)년 중앙종무기관 결산안 보고 △종단 직영 아미타요양병원 현황 보고 △'천년을 세우다' 행사 일정 계획 보고 등의 안건이 상정 · 처리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 정 2023년 9월 6일(수) ~ 8일(금), 2박 3일
장 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연수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1일차 (9월 6일,수)	2일차 (9월 7일, 목)	3일차 (9월 8일, 금)
09:00~12:00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시연까지'	마음불사 도량불사 스님들의 고민 톡!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한마음과학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수행 · 법회 · 사찰운영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실습
▶ 한마음과학 특강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쌍계총림 쌍계사, 총림 해제 추진한다

쌍계사, 3월 16일 산중총회서 총림 해제 결의

성낙두 경남지사장

쌍계총림 쌍계사가 총림 해제를 추진한다.

쌍계사(주지 영담)는 3월 16일 경내 예술문화관 대강당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총림 해제를 결의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교구본말사연합회회장 이암 스님, 유나 종성 스님, 보리암 성조 스님, 혜원정사 원허 스님, 용화사 종묵 스님, 망운사 성각 스님, 칠불사 도응 스님 등 대중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날 산중총회는 총림현안의 건, 고산대종사 유지봉대의 건, 쌍계사 재적 스님 수행보조금 지급의 건, 선차문화 축제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총림현안의 건은 총회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총림 해제를 결의했다.

산중총회의장 영담 스님은 "그동안 고산 문도회와 임회, 본말사연합회 등을 통해 대중의 의견이 모아졌지만 총림법에 따라 산중총회에서 결정하게 됐다"면서 "쌍계총림을 처음 지정할 때부터 고산 스님이 계시는 동안만 총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미 스님께도 말씀드린바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영담 스님은 또 "방장스님이 입적하시고 나면 새 방장 추대를 두고 총림 내부에서 볼썽사나운일들이 벌어지곤 한다"며 "저희 스님(고산 스님)과 같은 큰 어른이 계셨던 그러한 총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생각해서 오늘은 방장 추대보다는 총림을 해제하는 걸로 결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산중총회 구성원 106명중 39명만 참석해 성원 미달에 대해선 "이미 고산문도회와 임회, 본말사사암연합회, 교구종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면서 "종단의 결정에 따라 추후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또 "총림이 해제되어도 선원, 율원, 염불원, 강원 등 총림에 버금가는 현재와 같은 역할은 계속 이어진다"며 "쌍계사는 선교율과 범패, 차의 5개 축을 바탕으로 계속 종합수행도량으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계사는 3월 16일 경내 예술문화관 대강당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총림해제를 결의했다.

"총림 방장은 고산 스님 한 분 뿐"
종합수행도량으로 역할 유지 추진
총회 성원 부족으로 문제가 있어도
대다수 구성원들 해제로 의견 모아

고산대종사 유지 봉대의 건에 대해서는 문도회의와 교구종회, 본말사사암연합회로 봉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고산문도회 문장인 영담 스님에게 위임했다.

쌍계사 재적 스님들의 수행보조금 지급의 건과 관련해서는 말사의 부담이 없도록 고민하고 있음을 알렸으며, 원로스님들의 수행관 신축을 결의했다.

선차문화 대축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5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리는 하동 세계차문화엑스포에 쌍계사에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영담 스님은 "차 시배지가 있는 쌍계사가 우리나라의 차 문화를 세계적으로 널리 선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스리랑카와 몽골, 태국, 베트남 등 해외의 스님들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 "장애인 이동권 개선 적극 협력"

3월 15일 약자의 눈 · 전장연 예방
"특별교통수단 예산 확보 시급"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단체 '약자의눈'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 박경석, 이하 전장연)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3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약자의눈 공동대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면담했다. 자리에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도 함께했다.<아래 사진>

김민석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별교통수단 충족과 운행률 보장 등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내용을 공유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며 종교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보장하고자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지만 진행이 더딘 상태"라면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종교지도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도 "이동권은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라면서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지하철 리프트를 탑승하다 사망한 이래로 22년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대표는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표가 국민들에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진우 스님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시민들과의 소통과 미디어 매체를 통한 의견 전달 등을 통해 공감대를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약자를 위한 시설도 충족돼야 진정한 선진국"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은 선진국 문화의 척도인 만큼,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 상진·성오 스님 출마

3월 16일 선관위 자격심사 통과
상진 스님 1번, 성오 스님 2번


기호 1번 상진 스님


기호 2번 성오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상진 · 성오 스님이 자격 심사를 통과해 후보로 확정됐다. 이로써 이번 선거는 '양자 구도'로 진행된다. 안정기에 접어든 태고종에 발전 기틀을 다질 차기 행정수반은 누가 될지에 더욱더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산)는 3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서회의를 열고 상진 · 성오 스님을 상대로 3시간여에 걸쳐 심층 자격 심사를 한 뒤 두 후보자 모두 '후보자격 이상 없음' 결정을 내렸다. 자격 심사 후 진행된 기호 추첨에선 상진 스님이 후보 1번, 성오 스님이 2번을 배정 받았다.

'총무원장 선거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태고종 재적승으로 55세 이상, 승랍 3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제적 이상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나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찰주지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연도 사찰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연도 승려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타 종단 승려가 본종에 전종한 지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각종 선거에서 선거부정행위 전력이 있는 자, 기타 종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적격' 판정을 받은 상진 · 성오 스님은 선거일인 4월 18일 전날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3~4월 중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자별 종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기호 1번 상진 스님은 1991년 철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교무부장, 동방불교대학 학장과 제13~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또한 광덕사와 양주 청련사 주지를 지냈으며,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와 대구 구룡불교대학 강주를 역임했다.

기호 2번 성오 스님은 1978년 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 교육부장, 행정부원장,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로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이후 중앙종회의원과 경기남부교구 종회의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성은사 주지로 있다.

김주일 기자

진우 스님 "수행정진에 일념하라" 당부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3월 13일 범어사서 입재식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입재식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방문해 구족계를 받는 스님들께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입재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현장을 방문해 구족계를 받는 스님들께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계단위원회는 3월 13일 범어사에서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재식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구족계를 수지하게 될 사미 · 식차마나니에게 "인과법을 잊지 말고 방하착하여 수행정진에 일념할 것"을 당부하는 법문을 설했다.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즐거운 것도 싫은 것도 업이며 집착을 하면 윤회의 고통에 머물게 된다"며 "깨어 있으면서 내려놓음으로 수행 정진해야 한다. 항상 여여한 마음의 상태에서 살아가길 바라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인연, 연기에 따라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 윤회의 굴레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입재식에는 사미 61명, 식차마나니 37명 총 98명이 참석해했다. 입재식은 개식에 이어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고불문, 법어, 총무원장 훈시, 청규시달, 죽비전달, 수계자 서원, 발원문,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법문에 앞서 진우 스님은 입재식에서 "계는 부처님의 길을 가는 수행자의 위상을 정의롭게 하고 스스로 정행의 몸가짐으로 오로지 계를 생명으로 하여, 번뇌와 무명의 장애를 끊는 수행정진을 하되 여구두연의 각고정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호계도감 보운 스님(범어사 주지)은 "수계대법요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계를 받는 제자들이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 없이 용맹 정진할 것을 발원하오니 증명하여 주옵소서"라며 "이러한 인연공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날로 늘어나고 법의 수레바퀴가 쉼 없이 굴러다함이 없는 법계가 화장세계로 꾸며지게 하소서"라고 발원했다.

참석한 사미와 식차마나니는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지극한 정성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교화하고 해탈의 진리를 얻게 하겠나이다"고 서원하며 "이 몸이 부처님의 몸에 이르도록 청정한 계율을 범하지 않으리니 제불보살님께서는 증명하여 주옵소서"라고 서원했다.

수계산림은 3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수계산림을 원만히 수료하면 참석한 사미와 식차마나니는 구족계를 받고 종단의 정식 스님(비구, 비구니)로 거듭나게 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천년고찰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산 장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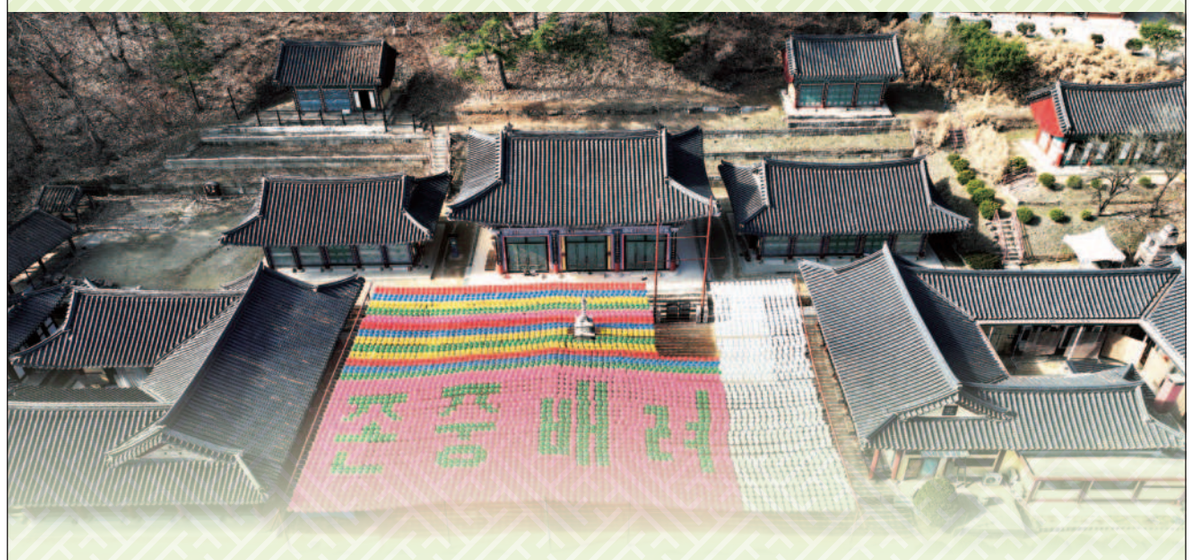


주 지 무 관
신도회장 여 원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전화 051)727-2393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사부대중일동

“혁신적 상상력으로 동국대 변화 이끌겠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15일 윤재웅 총장 취임식
창의 도전 등 3대 핵심 가치 강조
명상교육 강화 등 건학 사업 추진
진우 스님 “인재 육성 최선” 당부
‘동국 역사’ 정규강의로 학생 소통

“사회 · 경제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이제 우리 안의 가능성을 믿고 내부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존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혁신적 상상력’ 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4년 동안 이 혁신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리 동국대학교가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지속 발전하길 바랍니다.”

윤재웅 동국대 제20대 총장의 취임 일성은 ‘혁신적 상상력’ 을 통한 학교 변화와 발전이었다. 그는 혁신적 상상력으로 동국대를 창의성 있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동국대는 3월 15일 본관 3층 중강당에서 ‘제20대 윤재웅 총장 취임식’ 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스님,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중앙종회의원 혜도 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정각원장 진명 스님, 경주 정각원장 철우 스님, 윤재웅 총장, 민병덕 이사, 박대신 총동문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동국대는 3월 15일 본관 3층 중강당에서 ‘제20대 윤재웅 총장 취임식’ 을 개최했다. 사진은 윤재웅 신임 총장이 교기를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이양받고 있는 모습.

이날 윤 총장은 10분 가량의 취임사를 통해 향후 4년간의 청사진을 대중에게 소개했다. 특히 윤 총장은 ‘혁신적 상상력’ 을 △창의와 도전 △개방과 협력 △디지털 전환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통해 발현시킬 것을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

“새롭고 즐겁고 엉뚱한 상상을 좋아한다”는 윤 총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경직되고 권위적인 문화에서 나오지 않는다. 창의와 도전정신에 기반을 둔 탈권위의 부드러움은 조직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대학을 보다 기품 있게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4년간 동국대를 창의성이 살아 숨 쉬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개방과 협력’ 의 철학을 교육, 연구, 행정 전 분야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다전공제도, 학생 설계 전공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 학생 지원 포털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재학생의 AI · SW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전공 기반 AI융합교육을 확대해 미래 사회의 환영받는 인재가 되도록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고하겠다는 게 윤 총장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첨단 신기술 분야 정원 증원 추진 △수도권 중소규모 대학과의 M&A 추진 △수영장 부지 기숙사 개발사업 △로터스관 건립을 비롯한 각종 신축사업 △우수 교원 적극 채용 및 연구 지원 강화 △교원 · 직원 인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 등을 향후 계획으로 제시했다.

윤 총장은 “생활불교, 사회불교의 구현 및 건학이념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차별화된 명상교육과 석전 박한영 기념사업, 디지털 대장경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1000억 기부금 모금, 교육 수익사업 확충, 대학 창업펀드 조성, 기술 이전 수입 확대를 통해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학내 구성원에게는 좋은 질문을 학교에 던질 것을 요청했다. “최근 챗GPT를 사용하며 질문 수준이 대답의 수준을 결정함을 알았다”고 술회한 윤 총장은 “기술의 발전 이전에 인간의 수준 높은 질문이 계속 돼야 인류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동국대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수준 높은 질문을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그 질문을 통해 동국대는 더 좋은 대학,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호모 사피엔스’ 에서 ‘호모 퀘스천스’ 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지 모른다. 그 길에서 누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지는 좋은 질문을 하는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면서 “질문하는 동국대, 소통하는 동국대, 배려하고 존중하는 동국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동국대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했다. 진우 스님은 “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이요,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 이라는 건학위원회 총재 자승 스님의 말씀처럼 동국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건학이념에 깊은 사명감을 지닌 윤 총장이 취임했다. 동국대를 세계 속 명문대학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신임 총장의 리더십과 열정으로 구성원 모두가 교육, 연구, 사회공헌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을 강조했다. 돈관 스님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는 구성원들과의 소통이다. 앞만 보면 달려가지 말고 좌우를 살펴가면서 구성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부단히 소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취임 이후 윤 총장은 직접 교양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은 일반교양 비대면 과목인 ‘동국의 역사와 인물’ 을 직접 강의한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앞으로 15주간 동국대 온라인 강의교육 사이트인 ‘이클래스’ 를 통해 업로드될 예정이다. 수강생은 학부생 995명이다.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한다

조계종 오는 4월 19일 출범법회
4월 28일 마애불 입불 기도입재
홍보 리플렛, 모연문 전국에 배포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주요사업인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오는 4월 19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천년을 세우다’ 는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슬로건으로 ‘과거 천년’ 을 세워서 ‘미래 천년’ 을 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과거 천년’ 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를, ‘미래 천년’ 은 진우 스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 동력을 결집하는 불사를 의미한다.

이에 앞서 조계종 미래본부는 지난 1월 11일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와 명상센터 건립 불사의 범불교적 동력 결집을 추진해왔다. 4월 19일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을 통해 각종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해 온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28일 오후 2시에는 경주 남산 열암곡 주차장에서 진우 스님과 경상도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도입재 법회’ 가 봉행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 미래본부는 전국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접수를 독려하는 명부와 ‘천년을 세우다’ 를 알리는 리플렛을 제작해 전국 사찰에 발송했다. 기도접수는 100일 10만원, 1년 30만원, 1000일 100만원으로 나눠 접수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모연문을 통해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것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라며 “과거 천년 미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불자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 등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사과하라”

4대 종교, 3월 14일 기도 봉행
‘꼬리 자르기’ 수사 강력 비판도

불교, 천주교 등 4대 종교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과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 · 평화위원회, 천주교수도회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등 4대 종교 지도자들은 3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 면담과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10.29 이태원 참사 4개 종단 기도회’ 를 개최했다.〈사진〉



4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20여 명이 동참한 이날 기도회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순서로 진행됐다.

기도회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 혜문 스님은 “이태원 참사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는 나중에라도 두고두고 업보가 될 것”이라면서 “격식과 형식보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권력과 정치보다 국민의 슬픔을 헤아리는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4대 종교별 기도가 끝난 후, 동참자들은 대통령에게 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눈을 뜨고도 막지 못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다”면서 대통령 사과와 조사기구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경찰 특수본 수사는 ‘꼬리 자르기’ 로 끝이 나고 국회 국정조사는 반쪽자리로 마무리 되었지만 159명의 국민이 길 위에서 죽어간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대통령이 깊은 참회의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만나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국회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도록 대통령이 결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명법사, 난치병 어린이에 자비나눔 실천

3월 15일, 복지재단에 천만원

명법사 주지 화정 스님은 3월 15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사진〉

화정 스님은 “ ‘온 겨레, 전 인류, 만중생과 성불인연을 지으라’ 는 용성조사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신도들의 공덕을 모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이번 후원에도 치료가 절실한 아동들에게 기금이 쓰이면 좋겠다. 아이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고 희망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금 캠페인 모연은 연중 진행된다. 하나은행 271-910005-95104 (예금주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02)6334-2217 임은호 기자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2567 부산 연등축제 특별전
BUSAN LOTUS LANTERN FESTIVAL

부산연등축제
www.bba48.or.kr

2023년
3월 24일~4월 9일(17일간)
(전통등 전시, 지화공예전, 불교사진전)
부산시민공원 미로전시관



개막점등식(소회일)
4월 28일(금)
송상현광장

부산연등회(대회일)
5월 13일(토)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부산연등문화제
4월 28일(금)~5월 14일(일)
송상현광장

주최_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_ 2567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
문의 _ 전화 : 051)867-0501~3 전송 : 051)867-0504
후원 _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5~3/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도법스님의신심명강의:중도연기의눈으로본깨달음의노래	도법	불광출판사
3	은정희교수의대승기신론강의	은정희 지음	예문서원
4	궁금해요불교:매주제마다문제풀이를통해	도업 지음	운주사
5	인생수업(잘물든단풍은봄꽃보다아름답다)	법륜/유근택 그림	휴
6	정혜결사문:선정과지혜로세상을밝혀야	보조지눌/원순 역해	법공양
7	붓다의근본가르침(불교대학강의노트1)	이철헌 엮음	아름원
8	티벳스승들에게깨달음의길을묻는다면/증보판*양장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9	역주수능엄경	일귀/무비감수	샘이깊은물
10	네가지마음챙기는공부*대념처경과그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격동의 역사속 주요 인물 염주 만들듯 형상화



염주
유응오 지음
백조 펴냄
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계 신문 기자 출신인 유응오 작가〈오른쪽 사진〉는 부지런한 글쟁이다. 잠시 연락이 뜸해 안부가 궁금해질 무렵이면 영락없이 신간이 보내져 온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생 경험처럼 그의 글감 역시 폭넓다. 영화 평론부터 역사소설까지. 타고난 글재주로 쉽게 버무린다.

2007년 〈한국일보〉에 단편소설이 당선되어 등단한 유 작가가 이번에는 장편소설을 들고 왔다. 제목은 〈염주〉이다. 이번 소설은 〈하루코의 봄〉 출간 이후 6여 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이다. 이번 책 〈염주〉는 일제강점기, 해방, 분단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역사에서 정치사적으로 주요한 인물들의 삶을 염주 알을 꿰서 염주를 만들 듯 형상화 했다. 특히 이 작품은 해방 이후 끊임없이 지속된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의 반목을 화쟁(和諍)과 화엄(華嚴)이라는 불교사상에 입각해 상생의 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불교 문학사적으로도 의의가 크다.

〈염주〉는 한마디로 박헌영의 아들인 故 원경 스님과 빨치산 토벌대장인 차일혁의 교차 시점으로 구성된 팩션(Faction) 소설이다. 원경 스님의 시점에서는 박헌영 이현상 김상룡 이주하 주세죽

갈등을 화쟁사상에 입각해 상생 길 모색
원경스님과 차일혁의 교차시점으로 구성
인간 존재 고민의 답으로 불교 사상 제시

등 남북 양측서 버림받은 남로당계 공산주의자들이 등장한다. 또한 차일혁의 시점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빨치산과 토벌대의 인물들이 나온다.

1980년대 이후 출간된 빨치산 문학 내지는 정치소설들이 지나치게 고발적이거나 정파 투쟁적 관점에 빠져서 메마른 몸피를 보였다면, 〈염주〉는 인간의 존재와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불교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이전 문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역사소설' 이자 '정치소설' 이며 '불교소설' 인 〈염주〉는 자본주의 일상의 퇴폐적이고 쇄말적인 인간상의 미시문학이 판치는 근래 한국 문학계에 보기 어려운 거대 담론의 성격을 띤 작품이다. 특히 불교적인 사유가 충만한 유응오 작가의 문체는 '오동향로(烏銅香爐)에 피어오르는 향의 연기' 처럼 작품의 깊이와 풍미를 더하고 있다.

1950여 년부터 2020여 년까지를 유장한 시대 배경으로 하는 〈염주〉는 시간적 배경만큼이나 공간적 배경도 웅장하다. 남북한은 물론이고 모스크바, 크질오르다 유형지를 넘나드는 이 소설은 신냉전 체제를 겪는 대한민국의 독자들에게 미래의 한반도 청사진을 제시한다. 〈염주〉는 과거사 일화들을 통해 이념 논쟁이 뜨거웠던 한국 근대사를 간접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엄(華嚴)의 역사' 와 '화쟁(和諍)의 정치' 라는 미래 시대의 담론을 역설하고 있다. 1970~80여 년 전 좌우로 반목한 한반도 이야기가 현재진행형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시대의 공업(共業)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크고 작은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염주〉를 읽으면서 독자들이 '화엄(華嚴)의 역사' 와 '화쟁(和諍)의 정치' 에 대해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는게 유응오 작가의 집필의도이다.

김용락 시인이자 前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은 추천평을 통해 "낱낱의 염주 알이 모여서 이 염주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 염주는 여럿이자 하나이고 하나이자 여럿이이라는 원경 스님의 대사는 종교의 저열한 허무주의 사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 공동체와 광대한 우주 공간 속에서 인간 실존의 근원을 끝까지 파헤치려는 작가의 치열한 고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소설 일각의 내용 없는 무료함과 따분함의 세계에서 벗어나 소설과 문학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게 해 준 소설"이라고 피력했다.

묵직한 '서사의 힘'…탄력성 문체 몰입감 높여



검은 입 흰 귀
유응오 지음
백조 펴냄/1만5천원

〈검은 입 흰 귀〉는 최근 한국 문학서 찾아보기 힘든 묵직한 '서사의 힘' 이 느껴지는 작품집이다. 유응오 소설가는 등단한 이래 꾸준히 자신만의 문체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따뜻한 손길로 위무하는 이야기를 써왔다.

특히, 유응오의 문장은 함축적이면서도 상징적이고,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하다. 이러한 탄력성 있는 문체로 인해 작품의 몰입감을 높인다. 단단하게 응축돼 있어 유응오의 문체는 소설적이라기보다는 시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오랜 세월 불교계에서 활동한 소설가답게 작품집에는 불교적인 주제와 제재의 작품들이 많이 수록돼 있다. 〈태초부터 자비가 충만했으니〉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는 인생사에서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묻고 있으며, 〈금어록〉은 한 화승의 삶을 통해서 '삶과 죽음' '현실과 환상' 이 원융하는 경계를 모색한다.

〈하나인가? 둘인가?〉는 천녀이혼 화두를 제재로 활용해 '갇힌 자의 자유' 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으며, 〈비로자나, 비로자나〉는 해인사 쌍둥이 비로자나불을 제재로 '산 자와 죽은 자' '피해자와 가해자' 가 만나서 나누는 상생의 장을 연출한다.

소설집을 다 읽고 나면 이 세상이 온통 비극이 미만해 있는 무간지옥인 것처럼 느껴진다. 〈검은 입 흰 귀〉는 유응오 소설가가 이 혼탁한 흙탕물에서 연꽃을 피워내고자 분투한 흔적의 산물이다. 사람들의 허다한 아픔을 보듬는 유응오 소설가의 위안의 말을 들음으로써 독자들의 가슴에도 '진흙 속의 연꽃' 이 피어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모든 소설가가 독자들의 뒤통수를 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소설가들은 여러 장치들을 소설 속에 심어 놓곤 한다. 심상치 않은 등장인물들이 끌고 가는 이야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긴장감에 휩싸인다. 계단을 오르듯 천천히 고조되는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어느새 야바위꾼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뒤통수를 어루만지게 된다. 〈검은 입 흰 귀〉에 실린 9편의 작품들은 세상의 끝에 몰린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한다. 거친 소재들이 주는 강렬함에 이끌리다가도 시적인 문장에서 읽히는 서정과 탄력성에 넋을 놓게 된다.

이승하 문학평론가는 추천사를 통해 "유응오 소설가의 첫 소설집 〈검은 입 흰 귀〉는 작은 인연에도 소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서로가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지금 내 옆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보게 된다"며 "무엇보다 천천히 음미하며 읽게 만드는 문장들은 서사시를 읽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한다. 인간의 수다한 인연을 살펴서, 허다한 아픔을 보듬어서, 위안의 말을 들려주는 사람 중에서 우리는 유응오라는 소설가의 이름을 기억해야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저자 **유응오 작**가는?

1972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고,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시절 중앙대 의혈창작문학상, 숙명여대 범대학문학상, 영남대 천마문화상 등 전국 대학생 대항 문예공모전에서 시가 당선되었으며, 2001년 〈불교신문〉 신춘문예와 200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 당선되어 등단했다. 〈주간불교신문〉 취재기자로 근무하며, 학위 위조 사건을 보도해 한국불교기자협회 대상인 선원빈기자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장편 소설 〈하루코의 봄〉, 영화 평론 〈불교, 영화를 만나다〉 등을 출간했다.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홍련암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 (033)672-2478(홍련암) www.naksansa.or.kr





부처님 탄생성지로 행선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모습. 이들은 3월 14일 룸비니 마야데비 사원서 불교중흥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오로지 전법…곳곳에 '佛緣 씨앗' 심다



노덕현 기자의

'상월결사, 붓다의 길을 걷다'

⑤ 쿠시나가르서 카필라바스투까지

가는 마을마다 현지인 소통 행보
열린 법석에 타종교인 마음 열어
인도 불자들 순례… 결집 이끌어

룸비니서 불교중흥 기원법회 봉행
자승 스님 "대중 속으로 떠나라"

내국인만 통과 가능했던 순례길
한국, 인도, 네팔 3국간 외교협상
자승 스님 강력 요청에 물꼬 터
순례단 행선, 카필라바스투 도착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순례 5주차에 접어든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은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로 향해 행선을 하며 나아갔다. 완전한 열반에 이른 부처님의 시작점, 부처님이 태어나신 까닭을 되짚는 여정이었다.

부처님이 태어나고 일곱 걸음 걸으시고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는 당신이 왜 사바세계에 나투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담아내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은 존귀한데, 세상이 온통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미 부처님은 자신이 세상에 나툰 이유가 '구세대비'임을 즉, 세상을 구제하려는 자비심임을 말씀하고 있다. 결국 불교의 목적 역시 그와 벗어나지 않는다. 대중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이를 통해 중생을 편안케 하는 것이다.

"사부대중이여 중생 속으로 떠나라"

중생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국 중생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 순례단 회주 자승 스님이 3월 14일 룸비니 대성석가사에서 설한 소찬법문에는 이 같은 고민들이 담겼다.

회주 자승 스님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45년 동안 요즘 표현으로 포교만 하셨다. 법만 전하셨다. 열반 이후에도 제자에게 두 발을 보이시고, 또 다비를 통해서 여덟 나라에 사리를 분배하면서 마지막까지 부처님 법을 전했다"며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목적이 '전법행'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스님은 이러한 전법 포교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불사 치중과 권위의식 등으로 대중의 외면을 받는 불교의 현실에 대한 불제자로서의 참회였다.

자승 스님은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불교는 부처님 법을 전하기보다는 불사하는 일에 집착하고, 시원한 여름에 모시옷 빳빳이 다려서 입는다"며 "거들먹거리고 폼생폼사 하는 이런 불교의 시대는 끝났다"고 지탄했다.

스님은 이와 같은 현실에서 불자·비불자를 떠나 '국민', 그리고 '사회', 또 '사부대중'이란 방향을 제시하며 전도법문을 갈음했다.

자승 스님은 "국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사회 속으로, 중생 속으로 사부대중이 떠나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며 "사부대중이여 떠나라"고 외쳤다.

구체적 행동 강령 '108원력문'

전법을 통한 불교중흥 원력에 대한 실천방법은 30일차인 3월 10일 초안이 공개된 '108원력문'에 담겼다.

108원력문은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한국불교 중흥'이란 상월결사 정신을 담았다.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라는 상월결사의 대의명제 아래 전법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신을 담았다"는 게 박기련 순례단 운영지원단장(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108원력문의 방향은 총 5가지로 삼귀의, 사무량심, 삼법인, 사섭법, 사성제를 근간으로 팔정도, 육바라밀, 십선업 등을 주 내용으로 상월결사가 지향하는 실천불교, 사부대중 불교, 사회와 세상에 기여하는 불교, 21세기 전도선언을 내용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108원력문은 삼귀의로 시작된다.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등 구절이 시작된다. 팔정도 부분에선 '바른 생각으로 정당한 도리에 맞게 사유하겠습니다. 바른 언어로 진실하고 모두가 유익한 말만 하겠습니다' 등의 실천 내용을 담은 것이 108참회문과 극명히 다른 점이 드러난다. 여기에 불자들이 지켜야할 5계와 십선업도 국민들도 쉽게 느껴지도록 문장으로 구성됐다.

자승 스님은 "포교에 소홀히 하며 승복입고 앉아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직설한 후 "원력문은 열심히 부처님 뜻에 따라서 포교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취지를 알렸다.

박기련 단장은 "국민 속에서, 사회 속에서, 중생 속에서, 즉 세상 속에서 한국불교가 다가가자는 그런 가르침을 담았다. 국민과 함께, 중생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불교가 돼야 한다는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생 향한 법석, 인도의 佛緣으로

중생 속으로 나아가는 시도는 인도 순례 곳곳에서 이뤄졌다. 3월 12일 순례단은 숙영지인 브렛터와 마을에서 저녁 예불 후 단주와 염주 등을 마을 주민들에게 선물하고, 이들과 사진을 함께 찍으며 열린 법석을 펼쳤다.

마하라즈간지 지역은 무슬림 수도 상당해 힌두교와 이슬람교도간의 종교 갈등이 상존한다. 불교도가 5만 명에 달하지만 소수일 뿐이다.

이날 저녁예불 후 순례단은 회주 자승 스님이 인도주민들과 불연맺기를 고리로 적극적으로 이들과 소통하자고 한데 따라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여러 마을 대표들이 저녁예불 전 부처님 앞에 공양물을 올리고 순례단은 경건하게 예불을 올렸다. 저녁예불 동안 눈치를 보며 합장을 하는 불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다른 종교인들 등으로 긴장감까지 살짝 감돌았다.

하지만 힌두어로 된 회주 자승 스님의 가르침과 순례단 소개에 이어 무슬림인 마하가즈간지 지역 치안책임자 무하마드 자심 치안판사의 말에 다들 표정이 풀렸다.

무하마드 자심 판사는 부처님이 로히니 강에서 설하신 화합의 설법을 이야기하며, 이번 순례단의 방문으로 이 지역민들이 그 가르침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심 판사는 "이 지역에서 평화와 화합의 종교인 불교를 나쁘게 보는 이들이 없다. 어려서부터 지역의 유산인 불교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자비와 사랑으로 서로 대한다면 세계평화도 금방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소 풀어진 분위기 속에 순례단은 회주 자승 스님으로부터 흑옥과 백옥으로 된 단주를 받아 여러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각자 조를 나눠 종교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달라 나뉘어 앉은 이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갔다.

단주를 선물로 전달하자 굳어있던 분위기는 웃고 떠드는 분위기로 변했다. 단주 받기를 거부하던 일부 무슬림들도 결국에는 스님들에게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청하기도 했다.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손짓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이들 등으로 예불 공간은 가득찼다.

불자인 콜리족 안쥬 스리 고탐 씨는 "마하라즈간지 지역 전체에 5만명 가량의 불자들이 있다"며 "우리들은 부처님과 인연이 닿은 람그람 등을 참배하며 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쥬 스리 고탐 씨는 "한국에서 불교순례단이 방문해 주셔서 더욱 힘이 난다. 순례단을 보니 환희롭다"고 했다.

상월결사 순례 따라 印불자 결집

부처님 길을 따라 걸으며 인도 땅에 불심을 전하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불연 맺기 행보는 인도 현지 불자들의 결집을 이끄는 성과로도 이어졌다.

실제 인도 UNI뉴스는 3월 13일 "인도 모디정부 집권여당 BJP 보드가야 지역위원장이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본받아 인도불교의 중흥을 위해 3월 13일부터 베삭데이인 5월 5일까지 순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신은 부다가야 지역인 비하르주의 불자들로 스님과 신도 500여 명이 순례 입재식에 참여한 것으로 전했다.

인도 불자들은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전법 포교에 매진하는 것을 따라 총 534개 마을, 10800km를 순례한다. 이어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 비하르주 주도이며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2월 28일 행선한 파트나에서 회향한다.

이들은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처럼 선두차량에는 상월결사 큰부처님과 닮은 부처님을 모셨다. 또 낙타,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상월결사 인도순례단과 같은 방식으로 행선을 진행한다. 인도 불자들은 순례 실무 차원에서 2월 22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행선을 참관했다. 당시 실무책임자 판카 파스완(PANKAJ PASWAN) 씨를 비롯한 불자 200여 명이 회주 자승 스님에게 인사하고 이번 순례 안내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원력으로 만들어낸 인-네팔 순례길

룸비니에서 불교중흥 기원법회를 봉행한 순례단은 이제 전법 성지인 쉬라바스티로 나아갔다. 행선을 원칙으로 한 순례단에게 새벽 국경통과는 어려움이 많았다.

네팔 카필라바스투인 틸라우라코트부터 인도 카필라바스투인 피프라흐와까지는 차도로 16km, 걸으면 더욱 가까운 거리기에 이 두 곳 모두가 옛 카필라바스투의 같은 권역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경이 나뉘고, 현재 지명이 다르고, 국가간 입장이 갈리며 서로 진위 여부까지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인도 피프라흐와에서 카필라바스투 유적군과 사리함이 발견되며 쉬라바스티와 인도 카필라바스투를 통해 룸비니, 네팔 카필라바스투를 여행하는 이들이 늘자 소나울리를 거점도시로 국제공항과 간선도로 등 인프라를 설치한 네팔에서 길을 막았다는 설도 제기한다.

국경분쟁부터 부처님 유적을 둔 양국의 불편한 관계로 쓸데없는 번문욕례만 늘어, 네팔 출입국의 인파가 몰리는 소나울리에서는 수속에 반나절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 게 다반사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당초 2020년 봉행하려던 데서 코로나로 인하여 펜데믹 종료 무렵인 2022년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됐다. 3년간 국난극복 자비순례와 삼보사찰 천리순례, 평화방생순례를 거쳤지만 한국에서의 순례와 인도에서의 순례는 많은 것에서 달랐다.

박기련 단장에 따르면 순례단이 가장 우려했던 점은 크게 두가지로, 첫 번째는 타지에서의 숙영과 의료 등 안전문제였으며, 두 번째는 이날 도보로 행선한 카클라우와 루트에서의 국경 문제였다. 두 번째 문제는 양국의 미묘한 외교 문제를 제3자인 한국, 그리고 순례단이 풀기 어려웠기 때문에 난제로 꼽혔다.

이 같은 난국에 회주 자승 스님이 물꼬를 텄다. 회주 스님은 외교부와 대통령실, 인도정부와 네팔정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이날 순례단은 역사적인 발걸음을 하게 됐다.

순례단은 2월 9일 출국 당시에도 카클라우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정확한 확신을 갖지는 못했다. 바로 실무차원의 실행방법 때문이었다. 하지만 3월 10일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됐다"는 연락이 왔다. 순례단이 요청한 '대리 비대면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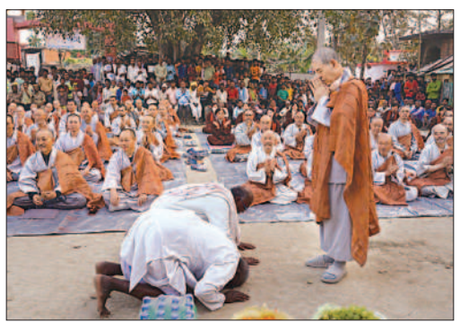
한국정부의 도움과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은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불교순례를 환영하는 네팔정부의 호응이 이어지며 사상 유래없는 '대리 비대면 출입국'이 이뤄졌다.

순례단 운영지원단의 스텝들은 순례단이 행선을 위해 취침하는 저녁 11시경 소나울리의 네팔 국경 사무소로 갔다. 출국 수속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이 소나울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네팔정부의 협조로 먼저 스텝들이 순례단의 여권과 명단으로 대리 비대면 출국 수속을 밟았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소나울리의 길이 아닌 막혀있던 국경선을 넘어서인지, 이날 순례길에서는 경찰이 아닌 군인들이 나와 순례단을 엄호했다. 엄중한 경호를 받은 순례단은 14km를 더 걸어 인도 카필라바스투가 있는 피프라흐와에 당도하여 부처님 사리탑을 참배하고 회향의식을 가졌다.

부처님이 사문유관하고 유년기를 보낸 네팔 카필라바스투로부터 16km 떨어진 곳, 석가족 하녀의 혈통이라는 놀림을 받고 석가족 정벌의 원을 세운 코살라국의 비두다바왕에 의해 멸망한 석가족들이 피난하에 세운 새로운 카필라바스투에는 석가족들이 부처님 입적 후 나온 사리 8분의 1을 받아 세운 사리탑이 있었다.

순례단은 양국 화합의 물꼬를 튼 이날의 순례와 부처님 사리탑, 석가족의 멸망을 담은 카필라바스투를 보며 행의 과보에 대한, 순례로 인한 중흥을 화두로 행선했다.



불자인 브렛터와 마을 주민 대표들이 자승 스님에게 삼배를 올리고 있다.



총도감 호산 스님이 아이들에게 단주를 나눠준 후 이들을 보며 웃고 있다.



룸비니 동산으로 들어서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모습.



마야데비 사원에서 불교중흥을 기원하는 순례단 사부대중. 사진=공동취재단

삼광사, 대조사전 존상 점안 및 낙성식

3월 10일 1만 여 천태불자 운집해
구호성금 및 자비의 쌀 1만kg 나눔
연면적 280㎡, 높이 18m 규모의
다포양식 등 한국 전통 목조양식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천태종 삼광사가 3월 10일 경내 대조사전에서 '부산 삼광사 대조사전 상월원각대조사 존상 점안 및 낙성 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가 3월 10일 경내 대조사전에서 '부산 삼광사 대조사전 상월원각대조사 존상 점안 및 낙성 대법회'를 봉행했다.

삼광사 상월원각대조사전은 대한불교천태종을 중창하고 부산을 일승묘법의 불국토로 명한 상월원각대조사의 가르침과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건립됐다. 삼광사는 이번 상월원각대조사전을 통해 부산지역 전법 5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원력을 이어간다는 다짐이다.

낙성 대법회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무원 스님, 종의회의장 세운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등 천태종 대덕 스님들과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 사무총장 범수 스님 등 스님들을 비롯해 이경훈 삼광사 신도회장, 김희근 고문,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등 신도 1만여 명이 동참했다. 신도들은 상월원각대조사전 앞마당을 가득 채웠고 삼광사 지관전을 비롯해 각 전각에서 영상으로 법회를 시청하며 법회에 동참했다.

점안 법회에 이어 낙성식은 △현판 제막 △테이프 컷팅 △개회선언 △삼귀의 △찬불가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경과보고 △표창패 및 공로패 수여 △튀르키예 성금 전달식 △자비의 쌀 전달식 △개회사 △법어 △치사 △축사 △관음정진 등으로 전개됐다.

삼광사는 이날 법회에서 대조사전 건립 불사를 위해 노력해준 김희근 고문과 이경훈 신도회장, 권영남, 김차수, 정정애, 박동채 불자에게 표창패를 전달했으며, 문광미 일심회 불자 외 9명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어 김종양 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전수교육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삼광사는 대조사전 불사 완공을 기념하며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으로 회향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성금 2000만 원을 총무원장 무원 스님에게 전달했으며, 부산진구청과 연제구청에 자비의 쌀 1만kg을 전달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위대한 스승님을 모신 성전의 원만회향을 사부대중과 함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청정한 신심으로 불사에 동참한 공덕 크게 빛난다"며 "참으로 귀중한 인연 세세생생 이어지어 보살도의 실천으로 꽃을 피우고 거룩한 상호를 우러러 경배한다. 인류의 행복과 국태민안을 발원하고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기어 바른 길 인도하여 주신 큰 뜻을 따라 부지런히 정진해 성불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은 개회사에서 "삼광사 가람불사의 정점인 대조사전 불사는 前 주지 김세운 종의회의장스님께서 서원을 세워 신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 시작해 오늘 낙성을 하게 되었다"며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서원이 천태불자들의 기도정진으로 이어졌고,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와 주경야선 기도정진의 실천은 삼광사 대조사전으로 나투게 되었으니, 세세생생 중생들의 귀의처로 숨 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오늘 낙성하는 대조사전은 우리 천태종의 총본산 구인사에 이어 두 번째로 모셔진 전각이다. 한국 천태종의 정맥을 중창하시고 드넓은 가르침으로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서원을 성취하신 상월원각대조사님 존상을 모신 이 대조사전은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지표로 꾸준한 신행과 정진을 이어 나갈 천태 불심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바닷가에 높은 등대가 있어서 무수한 선박의 항해가 안전하듯, 이곳 백양산에 대조사전이 있어서 만 중생의 귀의처가 되고 행복을 구하며 복락을 성취하는 길상의 등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광사 상월원각대조사전은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 이어 종단 역사상 2번째로 건립됐다. 2019년 9월 기공식, 2020년 6월 27일 상량식, 2023년 3월 10일 대조사전 상월원각대조사 존상 점안 및 낙성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으며 중층 다포집으로 연면적 280㎡ (85평)에 18m 높이로 화강석 주초석과 원형기둥, 다포양식 및 겹처마에 막새마감으로 한국전통목조양식으로 건립됐다.

박추자 적십자불교지구협 초대회장 회향



박추자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불교지구협의회 초대 회장이 25년간 이어온 봉사활동을 회원들과 나누며 회향했다.

박추자 초대회장은 3월 10일 부산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관 8층에서 진행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불교지구협의회 창립 18주년 기념 법회 및 초대회장 기념 특강'에서 봉사의 삶과 보람을 전하며 불교 이념을 강조했다. 박추자 초대회장은 적십자봉사회에서 불교지구협의회를 유일하게 구성한 봉사자이다.

박추자 회장은 "불교의 동체대비 사상은 봉사의 이유이다. 어느 곳에서나 불교를 근본으로 삼고 봉사를 이어갈 때 불자로서 신심과 자긍심도 깊어져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교 봉사 기구로 성장하고 더욱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 단위회는 2005년 2월에 불교지구협의회로 승격됐으며 보현도량, 성애원,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등 불교계 복지관을 비롯해 환자 수술비 지원, 밑반찬 도시락 전달 등 소외 이웃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녕 법성사, 법성보살 열반18주기 다례재



대한불교 관음종 법성사(주지 법명)가 3월 14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창건주 덕오당 법성보살 열반 18주기 추모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다례법회에는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법주사 무상 스님, 종회의장 혜산 스님, 교육원장 도선 스님, 호법원장 경원 스님, 포교원장 도현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도각 스님, 만덕사 지성 스님, 용수사 혜성 스님, 극락암 효진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상단예불, 삼배, 비로자나불 십신불 봉독, 상축, 헌향, 헌다, 헌화, 법성보살 생전 육성법문 청취, 청법가, 입정, 법어, 음성공양, 추모곡, 사홍서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법성보살님은 자신은 가난해도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서 보살행을 실천하신 분"이라며 "법성보살님의 보살도를 실천하고 수행을 본받아 더욱 정진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불교대학, 역대 최다 1004명 등록

'2023학년도 불교대학 입학식' 봉행
작년 대비해 입학생 100여 명 늘어
홍보노선 변경 등 세심한 노력 결과


통도사 불교대학은 역대 가장 많은 불자 1004명이 등록했다. 통도사 불교대학은 3월 11일 설법전에서 '2023학년도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불교대학에 역대 최대 인원인 1004명이 등록했다. 통도사 불교대학은 이를 기념하여 3월 11일 설법전에서 '2023학년도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하고 정진과 실천을 강조했다.

이번 해 통도사 불교대학 입학 현황은 3월 11일 기준 불교대학 1학년 322명, 불교대학 2학년 194명, 불교대학원 488명 총 1004명의 불자들이 등록했다. 이번 등록 인원은 통도사 불교대학 설립 이래 역대 최다이며 작년 대비 100여 명이 늘어난 인원수이다.

통도사 불교대학 입학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시작했으며 불교대학 2학년 최명자 불자가입학생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했다.

입학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자 불교대학에 입학한 이 인연 공덕으로 스스로 되돌아보아 삶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고, 저마다의 가슴에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 무생법인의 부처님 세계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라며 발원했다.

이어 주지 현문 스님은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민족문화의 보고이자 한국불교의 중심도량 통도사에 오늘 여러분들이 서 계신다"며 "흙 한 줌, 나무 하나에도 우리 민족의 고귀한 혼이 담겨 있고, 솔숲 지나는 바람에도 시대를 호흡해 왔던 뜨거운 가슴이 담겨있음을 생각하면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도량이다. 이제 그 높은 뜻과 열정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입학생 및 재학생 불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와 기쁨의 말씀을 전하며, 더없이 좋은 오늘을 통도사와 함께 빛내 가시길 축원 드린다"고 말했다.

통도사 불교대학 등록자가 역대 최다로 발전한 동력은 홍보와 불자를 위한 강의 시간 안배 등 세심한 노력으로 꼽을 수 있다. 통도사 불교대학은 홍보 효과를 올리기 위해 교통 중심지 유동인구를 파악해 홍보노선을 변경하고, 통도사로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홍보역량을 집중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인근 전철역, KTX울산(통도사)역에 새로운 홍보 노선을 구축했다. 이런 홍보 방법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안내로 신입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를 만들었다. 기존 통도사 불자들을 위해서는 통도사 밴드 화엄의숲에 지속적으로 안내해 등록을 도왔다. 아울러 과목을 다양하게 준비했고 강사 스님도 인지도가 높은 스님들로 구성해 다양화 및 전문화를 모색했다. 특히 강의시간을 다채롭게 마련해 직장인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5회 부산불교대상 후보 추천 공모

공모기간 3월 20일~4월 18일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가 '제5회 부산불교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부산불교대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지역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불교중흥에 앞장선 불자를 발굴해 불교계의 귀감으로 삼고자 제정됐다.

부산불교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부산불교대상 공모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다. 추천대상자는 부처님 교리 실천, 불교 발전,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부산 불자 또는 불교 관련 단체이다.

후보자 등록 신청자는 부산지역 각 사찰 대표, 부산지역 불교 관련 기관 및 단체장 2인 또는 2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와 공적조서(공적개요, 세부공적내용) 각 1부이며 공적 증빙서류이다. 양식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홈페이지 http://www.bbf.or.kr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051)898-2672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 개원식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이 승·재가를 모두 아우르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났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3월 10일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승려교육원 개원식'을 열었다.

개원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에 이어 발원문, 내빈소개, 학교소개, 축가 순으로 이어졌으며 내빈들의 격려사 및 인사말로 진행됐다.

서해 흥교 대종사는 "일체유심조이다. 이 세상은 모두 마음의 산물이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며 불교 공부는 결국 마음공부"라며 "마음의 원리를 배우고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 스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안다.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원장 심산 스님은 "승가가 이 시대의 변화를 읽으며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배움은 끝이 없을 것이다. 사회 변화를 바라보며 포교하기 위해 성장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서로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는 자리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운영위원장 자인 스님은 "필요했던 승려교육원을 개원해 감개무량하다.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항상 생각하셨으면 한다"며 "시대에 맞는 포교를 위해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포교현장에서 적용하고 성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은 승려의 위의(威儀)와 자질,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다. 조계종뿐 아니라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며 강의 일정은 3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문수전 문수보살 점안식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3월 12일 문수전 문수보살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문수전은 문수신앙을 중요하게 여긴 개산조 자장율사의 수행정신을 상징해 큰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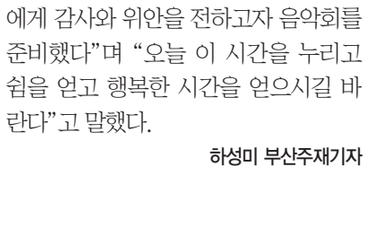
통도사 문수전은 〈양산통도사문수전중창기(梁山通度寺文殊殿重創記)〉(1757년)에 따르면 1756년 10월 21일 대광명전과 함께 화재로 소실된 후 새롭게 중창됐다. 그러나 문수전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등 혼란기에 전향각(篆香閣)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통도사는 문수전의 위치를 고증하기 노력해왔다. 이번 문수전 중창은 지난 100년 동안 통도사 도량 내 처음으로 진행된 불사이다. 문수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맞배지붕 형태이며 61.13㎡으로 규모이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통도사 사적기 등 여러 자료를 통해 문수전 위치를 고증했고 전쟁 등 어려운 시대 속에서 소실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었다. 이번 불자는 사부대중의 뜻이 여법히 모였고 오늘 문수보살을 모시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장율사의 창건 정신과 문수신앙을 널리 알려 도량을 찾는 불자들의 신행처가 되고 세계문화유산에 어울리는 도량으로 정비하고 지키고 보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통도사 문수전은 2021년 4월 22일 홈페이지에 문수전 중찰불사 모연을 공지하면서 시작했고 2022년 5월 13일 전향각 철거 및 문수전 신축 허가를 총무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022년 7월 19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완료했으며 2022년 8월 2일 설계를 변경했다. 2022년 11월 8일 상량식을 봉행했으며 2023년 3월 12일 문수전 점안법회를 봉행해 불사완공을 알렸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 '입학식 · 졸업식'



부산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학장 효산)이 3월 12일 경내 대법당에서 '2023년도 입학식 및 졸업식'을 봉행했다.

여여불교대학 2023년도 입학생은 불교대학 전문반 주간반 92명 야간반 132명, 총224명과 경전반 184명이 신청해 총 408명이다. 졸업식에서는 전문반 졸업생은 104명, 경전반 162명 총266명이 졸업했다.

학장 효산 스님은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 등 여러 인연들 속에서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이다. 그 노력이 복덕이 되었고 아름다운 마음은 보석처럼 아름답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불교대학에서 마음의 보석을 잘 닦아 마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쿠무다, 경찰에게 음악으로 힐링 선사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가 3월 10일 부산지방경찰청 6층 어울림마당에서 '2023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 제13회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다.

쿠무다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선사하고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공연은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의 하모니를 선사한 '트리오 리우'의 음악과 그룹 삼총사가 출연해 클래식과 대중가요 등을 선보이며 경찰관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다.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경찰에게 감사와 위안을 전하고자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오늘 이 시간을 누리고 쉼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특례시불교聯 7대회장 법안 스님 취임

사회통합과 지역화합, 소통 진력
"불교전통문화 보존 · 계승 주력"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는 3월 10일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서 제6대 회장 정인 스님과 제7대 회장 법안 스님의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는 3월 10일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서 제6대 회장 정인 스님과 제7대 회장 법안 스님의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설립되어 활동해왔다"며 "자비정신의 실천과 불교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부족한 점은 많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사찰의 법회와 연등행사도 취소하며 방역당국의 정책에 협조했지만 관계기관의 지원은 미약했다고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창원불교연합회 상임고문 불곡사 도홍 스님은 제7대 회장에 취임하는 법안 스님에게 추대패를 전달했다.

법안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임기 중 원만하게 창원불교연합회를 모범적으로 이끌어 온 정인스님에게 감사드린다"며 "전국의 어느 곳보다 신심이 돈독한 마산 창원 진해지역을 대표하는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장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전임 스님들이 펼쳐온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불교의 상징이 되고 돈독한 신심과 부처님 법을 수행하여 사회 통합과 자비의 꽃이 화현되며 법향이 발현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정현섭 문화관광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불자들의 진정한 수행과 불교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명에도 더욱 충실하고 동북아 중심 창원특례시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더욱 일취월장하는 창원불교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7대 회장에 취임한 법안 스님은 1980년 범어사에서 덕명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제11대, 제12대, 제13대, 제15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2011년~2013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장, 2012년~2014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2012년~2016년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 2012년~2016년 대한불교조계종 결사추진위원회 위원 등 종단의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재)일붕선교종 제12대 총무원장 혜일 스님 취임법회

서울 일붕선원 대법당서 봉행
"종도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3월 13일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제 12대 총무원장 혜일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3월 13일 서울 종로구 세검정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제 12대 총무원장 혜일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첫 순서는 교육원장 지언 스님의 발원문 낭독이었다. 지언 스님은 "저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도들이 서로 화합 단결해 날로 발전하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며 "오늘 혜일 스님 취임법회에서 함께 발원하는 인연공덕으로 종단의 모든 사부대중들이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다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발원했다. 이어 총무원장에 새로 취임한 혜일 스님은 "먼저 본 종단의 종헌종법을 수호하고, 일붕 서경보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화합과 소통으로 종단을 운영해 나가겠다"며 "정기연수교육 및 특별강연을 통해 덕망 있는 불교 전문학자들을 수시로 초청해 교육의 질을 크게 높이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혜일 스님은 "각 교구종무원장님 및 중앙종회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전 종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종도들이 자발적으로 종단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재단이사장 일명 스님도 축사를 통해 "금일 총무원장에 취임하시는 혜일 큰스님께서는 외국서도 공부하셨고, 여러 가지 이력을 소유하신 능력 있고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다"며 "종단이 조금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지만, 능히 다 지혜롭게 헤쳐 나가 주시리라 믿는다"며 "앞으로 우리 종도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비 평화 정신으로 상호 이해하고 소통하며 일심 원융으로 화합해 승가의 안정을 이루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취임법회에는 원로의장 대륜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대행 도정 스님, 前 총무원장 경원 스님, 재단이사장 일명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현문도회 석해 스님, 중앙종회부의장 지광 스님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양산 불광사 영남 범음범패 불교대학 개강



양산 불광사가 영남범음범패 통도소리와 범어소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2023년 영남 범음범패 불교대학을 열었다.

3월 10일 경남 양산 덕계 불광사에서 열린 이날 개강식에는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이사장 월인 스님,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대한불교교종 월성 스님, 보암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강한 영남 범음범패 불교대학은 1학기 20주 동안 60시간의 강의를 진행한다. 목탁, 징, 강쇠, 북 등 사물을 활용한 삼귀의례, 청법게, 사홍서원, 도량석, 조석종성의 기초의식, 칠정례, 각단 및 정근, 축원, 사시불공, 기도입재, 각단불공이식, 욕재, 신중작법, 39위, 지장청, 관음시식, 봉송, 회향, 상용영반, 화엄시식, 다 비의식, 천도의식, 방생의식, 불상점안 등 특수의식을 강의한다.

영남 범음범패 불교대학의 강의는 경전교수에 도산 스님, 풍수학 교수에 여해 스님, 범음범패교수에 보암 스님, 청봉 스님, 동암 스님, 특강교수에 월인 스님, 마가 스님, 원명 스님이 강의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 베트남서 나눔활동

태양광 정수시설 설치 등 봉사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 마이산탑사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이 베트남에서 해외복지 나눔활동을 펼쳤다.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베트남 닥락성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해외나눔활동은 닥락성 부온마투에서 버스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오지마을학교인 '응우엔바응옥 초등학교' 의 태양광 정수시설 설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태고종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 협의회 의장과 전북종무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 스님은 올해의 해외복지나눔 슬로우건으로 '부처님의 감로수를 어린이들에게 나눔으로써 사랑과 용서로 행복을 전하는 부처님의 자비가 이곳에 흐른다' 와 '자전거로 시원하게 달리며 아름다운 세상을 보자' 는 슬로건을 목표로 삼고 해외 복지 나눔 활동을 실행에 옮겼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선 스님, 세계최초 점자시화전 개최



호랑이 그림으로 유명한 경북 성주 보림사 해선 스님이 세계최초로 점자시화전을 개최해 화제다. 3월 14일 오후 4시 대구문화예술회관 11전시실에서 개최된 해선 스님의 점자시화전 '챔과의 동행' 전이 개막식을 열고 전시에 들어갔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재룡 대구시장애인단체협의회장 등 내빈과 대구시 각장애인 등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해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하여 "저도 한때는 시각장애인이었다. 미술 전시회에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발상의 전환으로 오늘 점자시화전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보는 그림에서 만지고 느끼는 그림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마음을 열고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꿈꾸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말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착한벗들, 재한 베트남인 정착 간담회



(사)착한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이 전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 베트남 주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3월 15일 (사)착한벗들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한베트남대사관 레반흥 1등 서기관, 주한베트남교민회 부득르엉 회장, 착한벗들 주춘매 센터장, 호원대학교 김지연 교수, 전북전주외국인노동자 쉼터 담당자 황수진, 다꿈나눔실천봉사단 타잉 단장, 전주대 유학생 하이리 학생 등이 참석했다.

착한벗들 주춘매 센터장은 "2012년 설립한 착한벗들은 2000여 명의 다양한 출신의 회원들이 있고 그 중에 베트남 교민들이 가장 많다"며 "여러 가지 사업 안에서 이주민들도 자원봉사에도 앞장서 이주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서로 논의하고 협력해서 베트남 교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소사 · 부안해양경찰서 업무협약 추진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와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가 부안해양경찰서 직원들의 정신수양과 정서안정을 위한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3월 14일 내소사와 부안 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내소사와 부안해양경찰서는 템플스테이 및 명상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3월 말경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 내소사는 해양사고 및 범죄 현장에서 각종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부안해양경찰서 소속 직원들에게 내소사의 아름다운 자연풍광 속에서 정신 수양과 정서 안정을 통해 마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부안해양경찰서는 내소사 템플스테이 체험 활성화와 한국 전통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에서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먼저 부안해양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추후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 가족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4대 종교 성직자 함께한 음악회 열려



4대 종교 성직자가 함께한 음악회가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3월 11일 각황전 앞마당에서 4대 종교 성직자들이 참여하는 '4대 종교 평화음악회, 각 종교단체로 찾아가는 음악회' 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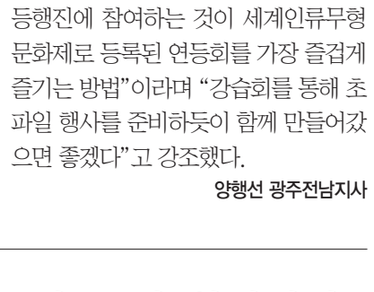
이날 음악회에는 불교(정율 · 무상스님), 원불교(한청복 · 김성곤 교무), 천주교(정범수 신부), 기독교(김선경 · 구자억 목사) 종교인과 108명의 부다스 합창단의 공연으로 홍매화를 관람하러 온 일반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4대 종교가 함께하는 '좋은 인연' 이란 찬불가로 시작했으며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대표해 성직자들의 성악, 팝송 등 다양한 노래를 선보였다.

특히 관객들과 호응하듯 춤과 노래, 연주로 관객을 찾은 성직자들의 버스킹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광주 보은사, 혜총 스님 초청법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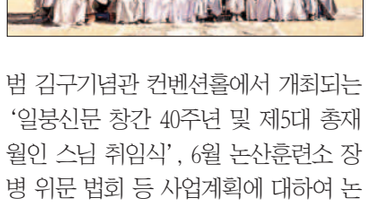
송광사 광주 광산포교당 보은사(주지 도제)는 지난 3월 12일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초청 '제3회 고월 백고자 법회' 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혜총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백고좌 법회는 달에 한 번씩 10년 불사를 진행하면 보은사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신도들도 복덕이 가정에 충만할 것"이라며 "불교는 불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 나라가 잘 되어 세계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불국토"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백고좌 법회에 있으니 빠지지 말고 늘 기도하듯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제 스님은 법문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큰스님과 깊은 인연으로 모시게 되어 감사하다. 스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광주 약사사 봉축 전통등강습회 개최



광주지역 봉축행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광주 약사사(주지 무진)는 지난 3월 15일 경내에서 올해 봉축행사 연등행렬에 참여할 행렬등 강습회를 진행했다. 약사사 신도들이 연등행진에 참여할 보리수등을 만드는 이날 강좌는 15여 명의 신도가 참여해, 골조제작과 배접 등을 진행했다.

무진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초파일 행사를 준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많은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습회를 진행한 광주불교연합회 사무국은 "전통등을 들고 연등행진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인류무형문화제로 등록된 연등회를 가장 즐겁게 즐기는 방법"이라며 "강습회를 통해 초파일 행사를 준비하듯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278차 월례회의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월인)는 3월 16일 오전 충북 괴산 흥천사에서 제278차 월례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을 논의했다.

서병열 종정협의회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불참한 회장 월인 스님을 대신해 상임부회장 정림 스님과 재무원장 도우 스님, 흥천사 회주 동봉 스님 등 종정협의회 소속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4월 15일 대한불교 성덕종 주최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봉행하는 '제7회 망향의 동산 고혼 위령 천도재' 와 4월 25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일붕신문 창간 40주년 및 제5대 총재 월인 스님 취임식' , 6월 논산훈련소 장병 위문 법회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10



▶한줄요약
조실스님과 시자는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시체 두 구와 타다만 그림들을 발견한다. 그림 속에는 금어스님의 아들이 그려져 있었다.

불에 탄 그림에 금어스님 아들 얼굴이…

뉴델리에서 며칠 ①

어머니가 그렇게 맹목적인 사랑을 아버지에게 주었듯이 종교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불교도나 기독교인이나 반목할 이유가 없었다. '하느님이시여, 그리스도여, 어린양을 지켜주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들의 그런 신앙이 어머니의 맹목적 사랑과 무엇이 다른가.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기도, 그것은 신앙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다. 어머니의 구원은 어머니 자신의 것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구원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슨 신앙이냐고 탓할 이유가 없다. 그런 면에서 불교의 신앙화는 뜻깊다. 극락과 지옥, 윤회 등…. 그런 굴레를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신앙과 수행은 다르다. 신앙은 믿음이고 수행은 공부다. 신앙은 '이게 무엇인가' 가 필요 없다. 신앙은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한다. 천당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진리란 오로지 믿음이다. 반면에 불교는 '이게 무엇인가?' 란 물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당연히 극락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물을 수 있다. 있다고 믿고 들어가면 신앙이 되고 공부하면 철학이 된다. 석가모니 붓다는 그 대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평소에 윤회를 설하고 극락과 지옥을 설하다가도 정작 질문하면 침묵한다. 그럼 침묵이 진리인가? 아니다. 진리는 말로 설명될 것이 아니다. 진리는 형상이 없다. 그러므로 형용하여질 물질이 아니다. 석가모니 붓다가 대가섭에게 법을 전할 때 언어도단(言語道斷), 불립문자(不立文字), 심행처멸(心行處滅)이라고 했다. 이 말은 진리는 깊고도 묘하여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 말길이 끊어졌기에 말할 수 없고, 마음으로 미칠 것이 아니기에 생각이 멸하였다는 말이다. 노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도라고 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다.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도를 도라고 할 때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貪瞋痴)으로 뭉친 사람이 파악한 도 즉 진리는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미 대답은 나와 있다. 석가모니 붓다의 침묵, 그 침묵 위에 대답이 있다는 말이다. 그 대답이 진리의 모습이다.

그럼 맹목적의 신앙도 종교로 인정되어야 하고, 연기(緣起;모든 현상은 독립, 자존적인 것은 없다. 모든 조건과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에 근거를 둔 불교 철학도 종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두 세계. 그 두 세계는 진리의 모습을 찾아가는 방법이 다르지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이로써 증명된다. 하나의 길은 믿음으로 사랑을 얻어내고, 하나의 길은 물음으로 자비를 얻어낸다. 그 둘이 하나가 될 터전을 짓고 싶었다. 그리하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머무는 공간을 짓고 싶었다.

조실이 걸음을 멈추자 시자가 왜요? 하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 모든 것이 새카맸다. 열기에 푸석해져 허물어진 회벽이 그래서 더 섬뜩했다. 다 타버린 공간에 그것만이 살아남은 것 같았다. 그 아래 나자빠진 것은 분명히 불에 타다만 시체였다.

시체는 두 구였다. 타다만 시신들이라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머리가 홀랑 타버렸고 걸친 옷도 타다 말아 겨우 남자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불에 타다 만 남자 시체의 눈에서 이상하게 흰즙이 흘러나와 있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었고 오른쪽 어깨뼈가 드러나 있었다. 어깨뼈 자리(견갑)와 오른쪽 겨드랑이가 그래서 함정처럼 깊어 보였다. 어깨에서 팔꿈치로 이어지는 곳에 뼈만 겨우 붙은 왼손이 얹혀 있었다. 오른발이 오른편 엉덩이에 깔려 있어 넘어지면서 다리가 뒤틀린 것 같았다. 여인의 시체는 더 참혹했다. 하복부가 불에 타 불에 굽다만 생선 속을 보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 오른발에 양말이 신겨져 있었는데 엄지발가락만 탔고 네 개의 발가락은 멀쩡했다. 불타버린 방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타다만 그림 한 점에 시선이 멎었다. 나무로 짠 틀 같았다. 틀에 비단이지 싶은 천이 물려 있었고 그것은 타다 말고 처박히듯 한 쪽 구석으로 자빠져 있었다. 시자가 그걸 보고 겁도 없이 다가가 허리를 구부리고 요리조리 살폈다. 조실이 다가가자 어떻게 그림을 내려다봐야 할지 시자는 헷갈린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뭐지?

조실이 좀 겁먹은 음성으로 시자에게 물었다.

-탱화 같은데요.

-탱화? 그림?

이지안 스님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조실은 타다만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그제야 그림을 살펴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던 시자가 이해되었다. 단일한 색상이 아니라 여러 색이 혼합되어 있어서 정교하기보다는 붓놀림이 거칠었다. 그림을 어떤 각도에서 보아야 할지 잘 가늠이 되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사람 얼굴이었다. 그림을 집어 볼 수는 없는 일이라 바짝 다가들어 보았다. 사람 얼굴이 분명했다. 사람 얼굴이긴 한데 머리카락이 길었다. 그래서 더 이상하게 보였던 모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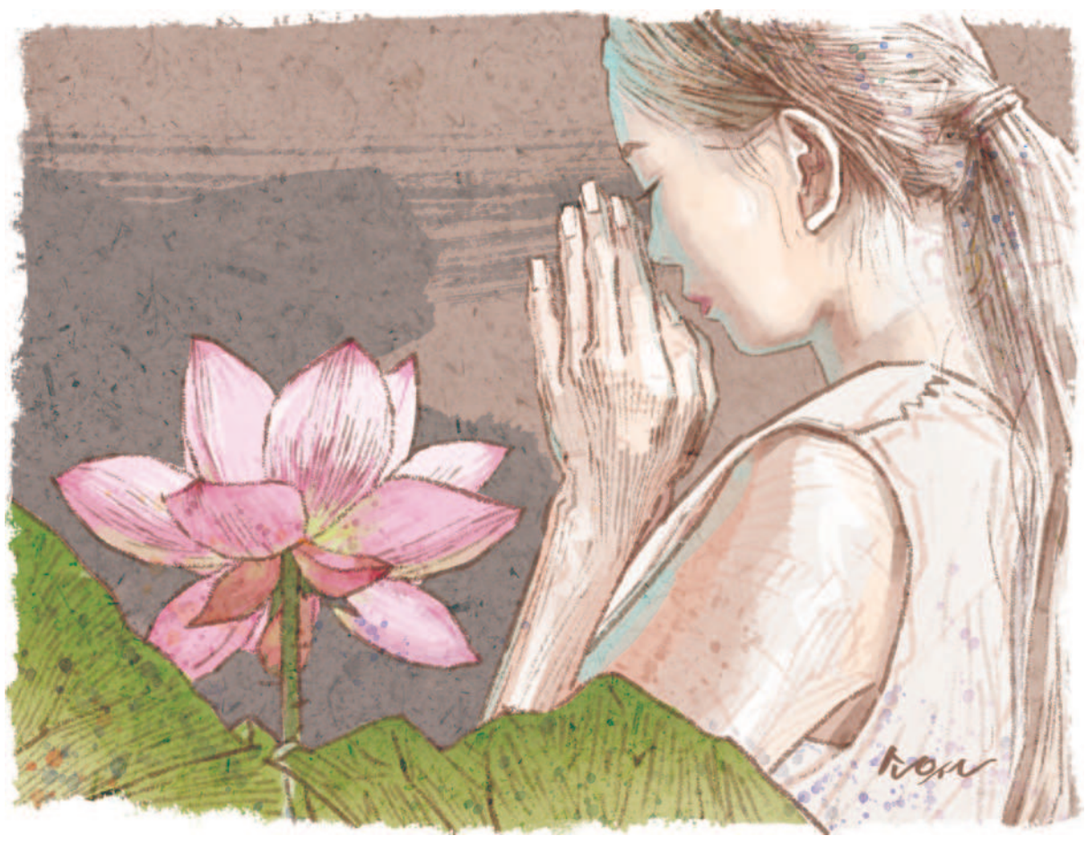
-남자 얼굴인데요.

시자가 말했다.

넓은 이마. 큰 눈. 동근 얼굴이 타다가 말아 반 정도 보였는데 그나마 검게 그을려 있었다.

-부처님은 아닌 것 같구나.

-머릴 기른 스님 같은데요. 여기 목을 보십시오. 분명히 승복 아닙니까?



-그러네. 승복이네. 어? 그러고 보니 이 사람….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지안 스님의 아들 이석원이라는 생각이 뒤이어 들었다.

-이석원?

조실이 뇌까리자 시자가 눈을 크게 떴다.

-아! 금어스님 아드님 얼굴! 맞습니다!

오른쪽 얼굴 반쪽이 타 버렸지만, 분명히 이석원이었다. 머리가 길고 승복을 걸치고 다니던 이석원.

그런데 이상하다. 한 손에 든 것이 무엇일까?

쇠꼬챙이 같았다. 그런데 그슬려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언뜻 보아선 쇠꼬챙이 같지도 않았다. 여자들이 어깨에 걸치는 긴 스카프가 손목까지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인도의 사리 같기도 했다. 여자의 팔 같긴 했는데 무엇인가 날카로운 쇠붙이 같은 것이 불거진 모습이었다. 너무 말라 오히려 흉측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래서인지 이석원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보였다.

-그슬려서 무엇인지 모르겠네. 긴 끈 같기도 하고…?

-타버린 팔의 뼈 같기도 해요.

-감을 잡을 수가 없네? 사람 팔 같긴 한데….

거참 하면서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대부분의 다른 그림들은 다 타버린 것 같았다. 탱화 틀이타 그대로 숯이 되어버린 모습도 보였다.

그러다 타다만 탱화에서 이석원이 들고 있는 문제의 사람 팔을 닮은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내었다. 그것은 칼이었다. 칼이 타다가 그슬려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었다. 타다가 만 탱화의 칼. 긴 장검이었다. 그것의 모습이 현란했다. 칼의 본체에 문양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현란한 색상이 그슬려 꼭 사람의 팔뼈처럼 보였던 것이다. 살점이 타다가 만 것 같은…. 칼만 그려대더니 그 잔재가 두어 점 타다가 남은 것 같았다.

조실은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미 신고가 되어 있었다. 소방차가 뒤늦게 출동했는데 이미 불이 꺼졌더라고 했다. 천추사원에서 여러 스님이 나와 불을 껐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시내에서 곧바로 암자로 오는 바람에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천추사원으로 가는 길목에 가게가 있었다. 암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게였다. 목도 마르고 해서 시자와 들어갔다. 오십대의 뚱뚱한 몸을 가진 가게 주인 여자가 그들을 맞았다. 어떻게나 살이 쪘는지 얼굴이 부푼 빵을 연상시켰다. 그래서인지 콧등이 더 낮아 보였다. 눈이 실처럼 가늘고 길었다. 곁에 남편이란 작자가 앉아 있었는데 콧수염을 길렀다. 기르고 있었다. 여우처럼 하관이 빠진 전형적인 늙은 여우상이었다.

-아이고, 한국 사람인 거 보니 암자 스님 찾아오싯구만. 그 암자 불타 버릿는디….

그녀가 금어가 거처하던 암자가 천추사원의 말사임을 모르고 보면 그럴 만도 했다. 그 암자의 조실임을 모르고 보면 암자의 스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시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을 조실이 말렸다. 시자가 물 한 병을 사고 값을 치르고 있는데 콧수염과 수염이 더부룩한 사내 둘이 들어섰다.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다. 조실은 가게를 나오려다가 가림막 뒤로 물러섰다. 시자가 사내들을 살피다가 그도 눈치를 챘는지 조실 뒤에 붙어 섰다. 그들이 가게를 빠져나갔다고 생각한 주인 여자가 들어온 사내들을 향해 상냥하게 맞았다.

-뭘 드릴까요?

-뭐 좀 물어보려고 왔시다.

키가 좀 큰 사내가 말했다. 콧수염 끝을 창날처럼 말아 세웠다.

-뭘요?

-요 위 불난 집 말이오?

-불난 집? 아 한국 사람들이 사는 암자?

-맞소. 거기 살던 사람들 알고 있소?

-어디서 나왔소? 형사요?

조실이 가림막 틈새로 얼핏 눈길을 주었더니 수염을 말아 세운 사내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아이고 형사시네.

-그러니 협조 좀 해주시오. 길목 가게이니 그 사람들 알 것 아니요?

가게 주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알고말고요.

그러고 보니 경찰서에서 탐문수사를 나온 것이 분명했다. 조실은 시자를 데리고 그냥 가게를 나와 버리려다가 가림막 저쪽으로 가 섰다. 그들이 형사가 틀림없다면 불이 난 이유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천추사원과 무관치 않은 일이고 보면 그냥 발길을 옮겨버릴 수가 없었다.

-거기 살던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었소?

앞장선 사내의 음성이 들려왔다.

-음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 부처 얼굴 그리는 사람이었시우.

주인여자가 대답했다.

-부처 얼굴?

주인여자의 말이 낯선지 사내가 되물었다. 그러다가 탱화를 떠올렸는지 아하 하는 표정이 가림막 틈새로 보였다.

-사찰에 가면 있는 부처그림 말이오?

-맞구먼요.

순간적으로 그렇구나 하는 기운이 사내들의 얼굴에 흘렀다.

수염을 꼬아 세운 사내가 손바닥만 한 수첩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는 가게 주인여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적기 시작했다.

-죽은 사람들 통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던데…?

수첩에 글을 쓰다 말고 사내가 혼잣말처럼 물었다.〈계속〉

제38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모집안내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생활 속 관법 실천과
마음공부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긍정적으로 재입력하는
연습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을
바꾸어 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기 간 : 4월 1일(토)~5월 27일(토)
9주 매주(토)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장 소 :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함께하는 전화
edu.hansi.org
수 강 료 : 이십만원
(국민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전화문의 : (031) 470-3200, 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⑥ 세계적인 명상 붐과 한국불교의 과제 4



▶한줄요약
불교의 깨달음 명상을 바르게 해서 생사 윤회의 괴로움을 해탈하여 영원한 대자유로 가려면, 먼저 어리석음을 버리고 정견(正見)을 세워야 한다.

"영원한 대자유 위해선 정견 세워야"

〈正見〉

서구의 치유 명상은 불교 명상에서 배워가서 현대인을 위해 과학으로 연결하고 프로그램화하여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하였다. 이제 명상은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치유 명상은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부정적인 문제도 나타났다. 서구의 치유 명상가들은 불교의 깨달음 명상의 기본인 지계(持戒)와 팔정도의 정견, 삼매 중에서 삼매와 알아차림(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만을 가져다 프로그램화, 상품화하였다. 불교 명상에서 지계와 정견, 깨달음이 빠진 명상 테크닉만으로도 현대인들에게 만연한 스트레스와 초조 불안한 심리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러한 치유 명상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아베(가운데)의 좌선



'전쟁과 선' 책 표지

치유 명상은 일시적인 행복

치유 명상은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해탈하는 깨달음을 말하지 않는다. 깨달음 없는 명상은 현대인들에게 일시적인 심신 치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왜 그런가? 불교의 깨달음 명상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완전히 해탈하는 길로 안내하지만, 치유 명상은 생로병사 문제는 그대로 두고 스트레스 감소와 마음의 평안만을 안내하기 때문에 효능이 제한적이다.

불교의 깨달음 명상은 현대인이 일상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스트레스와 초조 불안한 마음의 근원인 '나'가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中道), '나'라고 할 실체가 없는 '무아(無我)'임을 바로 보라 한다. 그리고 그 중도, 무아를 명상을 통해서 체험하여 영원한 행복의 길로 안내한다.

반면에 치유 명상은 스트레스 받는 '나'가 있다는 유아(有我)의 입장에서 명상을 한다. 내가 있다고 보니 스트레스도 있고, 화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는 전제에서 치유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화, 망상을 내려놓으라 한다.

이렇게 '내가 있다'는 유아의 입장은 스트레스 받는 내가 있다고 보니 하루에도 수많은 경계를 만나고 그때마다 좋고 나쁜 분별과 스트레스,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치유 명상가들은 안내한다.

불교 명상은 영원한 행복의 길

반면에 불교의 깨달음 명상에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수많은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와 경계가 둘이 아니라는 정견을 세우라 한다. 즉, '나'라는 존재가 자연의 산물인 산소와 물과 음식 등에 의지하여 존재하니 나와 자연, 그리고 세상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 이것을 불이중도(不二中道)라 한다. 나와 우주 만물이 서로 의지해 인연으로 존재할 뿐 독립된 실체가 없는 무아(無我)다. 이 중도 무아에 대하여 바르게 공부하여 정견을 세우고 살아가면 어떠한 좋고 나쁜 경계를 만나더라도 정견을 세우면 스트레스와 화뿐만 아니라 생사의 괴로움을 완전히 해탈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도 정견은 깨어있을 때는 되지만, 바쁜 일상생활에서는 잊고 상대 분별에 빠져 좋고 나쁜 양변에 집착하여 살아가기가 쉽다. 상대를 좋고 나쁜 양변으로 보게 되면 좋은 것은 가지고 싶고 나쁜 것은 멀리하고 싶은 분별심이 일어난다.

무명 있는 한 명상 해도 나아지기 어렵다

나와 우주 만물이 본래 중도 무아인데 그것을 잊고 '내가 있다'는 착각을 일으켜 좋고 나쁜 양변에 분별심을 내면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니 스트레스와 짜증, 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생사 윤회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어리석음, 무명(無明)이라 한다. 즉,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는 분별망상을 일으켜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니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 무명이 있는 한 바른 명상을 하기가 어렵다. 설사 명상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능만을 누릴 뿐 괴로움의 근본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스트레스 받는, 고통 받는 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가 있는 한 생로병사의 괴로움, 생사 윤회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완전히, 영원히 없애려면 내가 무아, 중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중도, 무아에 정견을 세우고 명상을 통해서 중도를 마음으로 체험하고 생활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원리인 중도를 이해해서 정견을 세우면서 명상을 할 때 바른 효능이 나고 스트레스는 물론 괴로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 정견은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
> 나와 자연 서로 의지하는 존재
>
> 내존재가 중도 무아임을 알고
> 명상하면 영원한 행복이 가능

그러므로 불교의 깨달음 명상을 바르게 해서 생사 윤회의 괴로움을 해탈하여 영원한 대자유로 가려면, 먼저 어리석음을 버리고 정견(正見)을 세워야 한다.

정견이란 무엇인가? 정견은 바른 견해다. 바른 견해 정견의 반대말이 어리석음, 편견, 삿된 견해로 한문으로는 무명(無明)이다. 무명은 밝음이 없다, 어둡다는 말이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치우치거나 잘못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에 빠진다. 가령 길을 가다가 앞에 물웅덩이를 바로 보지 못하면 물에 빠지게 된다. 바로 보지 못하면 괴로움에 빠진다. 그러니 항시 정견을 밝혀야 한다. 이 정견은 명상뿐만 아니라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관계에 가장 중요하다.

정견 없는 참선 수행의 잘못된 사례들

정견 없는 불교 명상 참선의 사례도 살펴보자. 몇 년 전에 일간 신문에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좌선하는 사진이 공개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아베는 첫 총리시절 위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총리직에서 사임한 뒤 지인의 권유로 참선을 해서 병에서 회복하였다고 한다. 건강을 회복한 아베는 다시 총리직에 도전하여 선출되었는데, 당시 아베에게 참선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베는 총리 재임시절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 전범들이 묻힌 신사를 참배하고 전쟁 당시 한국인 종군 위안부와 전범 기업들의 강제징용사건에 대하여 사실을 부인하며 사과도 하지 않았고, 한국에 엉뚱한 경제제재를 가하기도 하는 등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로 퇴보하려는 언행을 보여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낳았다. 아베는 참선으로 자기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회복했지만, 한국 등 과거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침탈을 당한 주변 국가 국민들에게는 지탄받는 행동을 했다. 결국, 아베의 말로는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비극적이었다. 이것이 정견 없는 어리석은 참선 명상의 과보(果報)다.

일본은 이처럼 정견 없는 잘못된 참선 명상의 전통이 상당히 뿌리 깊은 것 같다. 1904~5년 러일전쟁 당시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애호하는 러시아와 일본 국민들의 연대로 평화운동을 위해 일본 선종 승려 샤쿠소엔(釋宗演, 1858~1919)에게 연대하자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소엔은 이렇게 냉소적으로 거절하였다.

"비록 부처는 생명을 취하는 것을 금하였으나, 그는 또한 모든 중생들이 무한한 자비의 수행을 통해 함께 연합할 때까지, 평화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소이다. 따라서 양립할 수 없는 것들 사이에 조화를 일으키는 수단으로서, 살생과 전쟁은 필요한 것이오."(브라이언 다이젠 빅토리아, 〈전쟁과 선〉, 인간사랑)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에서 기본으로 가르친 오계(五戒)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불살생(不殺生), 생명을 죽이지 말라"이다. 불교하면 가장 떠오르는 가르침이 자비, 불살생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일본의 유명한 참선 지도자 소엔은 살생과 전쟁을 옹호하면서 뜻 깊은 톨스토이의 전쟁 반대 평화연대를 거부한 것이다.

침략 전쟁과 살상 옹호한 일본 참선지도자들

살생과 침략 전쟁을 옹호한 일본 참선지도자들은 샤쿠 소엔뿐만 아니라 당시 상당수 일본 선승들이 일본제국주의 전쟁을 옹호하며 참가하였다.

불살생을 계율로 하는 불교의 참선 수행자가 자비 정신을 버리고 살상과 전쟁을 옹호한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팔정도의 정견을 세우지 못한 증거이다. 적지 않은 일본 참선 지도자들은 20세기 일본제국주의시대에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전쟁 중 죽음의 공포에 괴로워하는 일본 군인들의 정신적인 무장에 참선을 이용하였다. 불교 승려의 신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고 살상과 전쟁을 옹호한 참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불교 정신이라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인지 알지 못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일본 청년들을 침략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아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땅에는 원자폭탄이 두 차례나 투하되어 죄 없는 수많은 일본인이 전대미문의 참화를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 전쟁과 폭망에는 정견 없는 일본 참선 지도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았다. 정견 없는 명상도 한계가 있지만, 정견 없는 참선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트레스와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명상을 하려면 정견을 세워야 한다. 정견은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이다. 우리가 이 우주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세상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춰야 한다. 나와 자연과 세상은 서로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며, 나라고 할 독립된 실체는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중도 무아라는 것을 알고 명상을 하면 부처님처럼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❻ 구미 대둔사 대웅전 경장

▶ 한줄 요약
경장(經藏)은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책장, 혹은 함(函)의 일종이다. 고귀한 경전 보관 가구다. 그래서 창호와 잠금 시설을 갖춘다.



사천왕이 수호하는 경전 보관함

경전 보관함–경궤, 경함, 경장, 윤장대

경장(經藏)은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책장, 혹은 함(函)의 일종이다. 고귀한 경전 보관 가구다. 그래서 창호와 잠금 시설을 갖춘다. 조선시대에 유통되는 경전은 대부분 목판이나 금속활자로 찍어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으로 묶은 책 형식이다. 오침안정법은 책의 등 쪽 가장자리에 다섯 개의 구멍을 뚫어 실로 꿰매는 동양의 전통 제본 방식이다. 옛 책은 현대의 책처럼 세로로 칸칸이 꽂는 방식이 아닌 반듯이 눕혀서 보관한다. 민화의 책가도, 책거리에서 책을 진열한 모습을 보면 모두 반듯이 눕혀서 진열하고 있다. 경장은 통상 법당의 불단 위 부처님 좌우에 한 쌍이 대칭적으로 놓인다. 기능적으로는 책장이지만 형태를 보면 품격 있게 만든 성보 보관함에 더 가깝다.

한국사찰에서 언어로 새긴 경전은 크게 네 가지 모습을 띤다. 목판, 책, 사경 첩, 두루마리 형식 등의 네 가지다. 목판은 대장각 등에 나무로 층층이, 칸칸이 짠 시렁 진열대에 보관한다. 그 외 책이나 사경 첩, 두루마리 경전은 보관함을 특별히 제작하여 보관했다. 그런 경전 보관 목제 가구들이 경궤(經櫃), 경함(經函), 경장(經藏), 윤장대(輪藏臺) 등이다. 경궤와 경함은 둘 다 경전을 담아두는 상자다. 둘의 차이점이라면 경궤는 라면 박스 모양의 단순한 직육면체 형태인 반면, 경함은 경궤 형태에다 우아하고 고급스런 뚜껑을 마련하고 나전기법 등으로 섬세한 장식을 베푼다. 경장은 경전을 보관하는 격식 갖춘 세로형 책장에 가깝다. 윤장대는 회전식 경전 책장이다. 경함과 경궤가 가로로 눕힌 보관 상자라 한다면, 경장은 세로로 세운 경전 보관상자라 볼 수 있다. 경장을 보다 크게 만들어 회전시설을 더하면 윤장대가 된다. 경전 책 보관가구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경궤: 경전 보관 직육면체 궤짝. 영천 은해사 성보박물관 경궤(법화경 48권 보관), 경주 불국사 대웅전 경궤, 양산 통도사 경궤, 봉화 청량사 경궤(경장經藏) 등

△경함: 경전 보관 함. 13~14세기에 제작된 고려 나전경함. 현존하는 고려 나전경함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 점을 포함하여 총 9점. 일본 도쿄박물관 소장 경함의 뚜껑 윗부분에 나전으로 '대방광불화엄경'이라 새긴 명문을 통해 경전 보관함임을 확인하였다.

△경장: 경전 보관 책장. 구미 대둔사 대웅전 경장, 상주 북장사 경장(직지사 성보박물관에 위탁보관 중).

△윤장대: 회전식 경장. 예천 용문사 대장전의 윤장대.

이 중 한국에 현존하는 고려 나전경함과 경장, 윤장대는 극히 드물다. 고려 나전경함은 한 점, 경장은 두 쌍, 윤장대는 한 쌍만 있다. 모두 국보급, 보물급 성보다. 나전경함과 윤장대는 두루 고증되고 숭고한 문화유산의 가치로 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경장에 대해서는 관심과 조명이 소홀하다. 불교 목조각에 대한 조명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구미 대둔사 대웅전 경장



상주 북장사 경장(직지사 성보박물관에 위탁보관 중)

경장, 불교경전 보관하는 책장
장엄보다 책장의 특성 더 많아
편년 비교 특정 紀年作 보유해
공예 · 조각 · 회화적 요소 결합

대둔사 경장과 북장사 경장 비교

	대둔사 경장	북장사 경장
문화재 지정	보물	경북 유형문화재
제작연도	숭정3년(1630년)	1676년 전후
높이	평균 118cm	평균 146.5cm
제작자	쌍연, 유혜	모름
기단부의 중대	안상조형	안상에 사자와 모란 조형
상륜부 형식	보관형	보주 갖춘 궁륭형 보궁형식
몸체 창호문양	모란과 보상화문	화반에 핀 연꽃과 모란, 새와 학
특징	역사적 가치 높음	예술적 가치 높음

대둔사 경장과 북장사 경장

경장(經藏)의 고유 명칭은 '연화좌대 경장(蓮花座臺 經莊)'이다. 구미 대둔사 경장의 뒷면 명문 기록에 남아있다. 그런데 장엄(莊嚴)의 특성보다는 책장의 특성이 강하므로 '경장(經莊)'이 아닌 '경장(經藏)'으로 통칭하게 됐다. 경장 조형은 3단으로 구성한다. 좌대, 몸체, 상륜부 세 부분으로 제작하여 끼워 맞춘다. 좌대는 방형의 수미좌 형태다. 수미좌 좌대는 아래위로 삼단 층급을 가진다. 좌대의 방형 사면에는 안상 조형을 새기거나 사자, 모란 등을 새겨 기능 중심의 기단부 조형에 미적 아름다움과 활력을 불어 넣는다. 경장의 몸체는 세로로 긴 사각기둥 모양이다. 전면에 여닫이 창호를 달았다. 창호를 열어 보면 내부는 칸이 없다. 통으로 뚫려있다. 여기에 경전을 차곡차곡 쌓아 보관한다. 창호는 꽃살문처럼 조각한다. 경장 창호는 꽃살문과는 달리 빗살이나 정자살이 없는 통판창호다. 통판에 양각으로 문양을 새겼다. 새긴 문양 위에 진채를 입혔다. 창호 문양의 중심 소재는 연꽃과 모란이다. 하나의 경장에 연꽃을 조각하였다면 다른 하나에는 모란을 새긴다. 경장의 머리 부분인 상륜부는 보관 형식, 또는 궁륭형 보궁 형식으로 제작한다. 성보를 보관하는 성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경장도 어찌 보면 하나의 궁전이고 법당이다. 경전이 곧 진리 법이니 경장이 법의 집으로서 간략하게 제작한 법당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경장은 두 쌍이 현존한다. 구미 대둔사 경장과 상주 북장사 경장 두 쌍이다. 둘의 조형적 특성을 비교하면 위의 표와 같다.



구미 대둔사 경장 문 열었을 때 모습



구미 대둔사 경장 창호 뒷면 사천왕도(향우측 경장)



고려 나전경함(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영천 은해사 성보박물관의 경궤

두 경장을 비교해보면 규모나 조형의 아름다움 측면에서는 북장사 경장이 더욱 웅장하고 힘차며 아름답다. 조형만 놓고 보면 북장사 경장에서 받는 숭고함이 더 크다. 그런데 역사적 가치 측면에서는 대둔사 경장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제작 시기와 제작 장인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

대둔사 경장, 불교 목조각 경장의 기년작

대둔사 경장은 대웅전 불단 위 좌우에 한 기씩 놓여 있다. 향좌측에는 연꽃, 국화 등을 넝쿨과 결합시켜 이상화한 보상화문 경장을, 향우측에는 모란꽃을 새긴 경장을 배치했다. 향좌측의 경장 뒷면에서 명문이 발견됐다. 명문에는 "숭정3년 경오오월일 연화좌대경장...인출장인 충원 대유, 태장인 김덕운 양주, 화원 쌍연 유혜(崇禎三年庚午五月日 蓮花座臺經莊 引出匠人忠願大裕 炲匠人金德云兩主 畵員 雙連 裕惠)"라 적고 있다. 이로써 대둔사 경장은 1630년 5월에 화원 쌍연과 유혜가 여러 장인과 협력하여 제작하였음을 확인하게 됐다. 불교 목조각 경장의 고유명사와 양식, 편년을 비교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인 기년작(紀年作)을 가지는 귀중한 의의를 지니게 됐다.

대둔사 경장의 크기는 향좌측 보상화문 경장이 가로, 세로, 높이가 63×50×117cm이고, 향우측 모란문 경장은 67×51×119cm 규모에 이른다. 북장사 경장에 비하면 30cm 정도 작다. 예술성에서도 뒤처지는 편이다. 그런데 조형 측면에서 대둔사 경장이 더 주목받는 점이 있다. 목조각 경장에 공예, 조각, 회화 요소가 결집해 있는 점이다. 북장사 경장에는 공예, 조각의 특성은 분명하지만 회화 요소가 없다. 대둔사 경장의 조형 특성에는 목공예에 회화를 결합하고 있는 점이다. 회화는 세 곳에 그렸다. 전면 꽃살문 창호 뒷면과 측면 외부벽면, 그리고 상륜부 판재에 회화를 베풀었다. 상륜부 판재는 가운데가 높고 양 끝은 봉긋봉긋하게 낮아지는 소위 '능화형(稜花形)'이다. 능화형 판재에 넝쿨보상화문을 그렸다. 가운데 커다란 연꽃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조화롭게 구성했다. 연꽃과 국화 등 현실의 꽃을 모티프로 하여 관념적 이상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심 색채는 석간주와 초록, 흰색이다. 화면의 갈색 톤이 차분함으로 이끈다. 놀라움을 자아내는 회화는 꽃살문 창호 뒷면의 그림이다. 창호 뒷면에 뜻밖에도 사천왕을 그려뒀다. 좌우 경장에 각각 두 분씩 그려 모셨다. 경장의 창호는 향우측은 오른쪽으로 열리고, 향좌측은 왼쪽으로 열린다. 두 창호를 동시에 열면 네 분의 사천왕이 나툰다. 영산회상 등의 불화에서 보이는 배치와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향우측 경장에는 비파를 든 북방 다문천왕과 칼을 든 동방 지국천왕 두 분을 배치하고, 향좌측 경장에는 용과 여의보주를 움켜쥔 남방 증장천왕과 당, 탑을 든 서방 광목천왕을 배치하였다. 향우측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연결하면 북-동-남-서로 시계방향으로 사방을 도는 구조를 보여준다. 그런 배치는 조선 중기 이후 사천왕 배치의 전형성을 거듭 확인시켜 준다. 경장 속 사천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외호의 물리력을 상징한다, 대둔사 경장은 사천왕이 수호하는 또 하나의 법의 집이다.

사천왕 그림에서 특별히 시선을 끄는 대목은 채색 원리다. 일반적인 진채화와는 달리 선묘화라서 이채롭다. 붉은 색 바탕에 황색 선묘로 그렸다. 황색 안료는 석황으로 파악됐다. 선묘형식의 사천왕도는 마치 포항 보경사 적광전 비로자나 후불탱의 하단 좌우에 그린 사천왕 선묘 부분을 옮겨 놓은 것 같다. 섬세하고 신비로우며 고급스런 회화를 목공예 속에서 만난다. 걸작의 모멘텀이다.

〈사진작가〉

2023년 대한불교원효종 분한신청(종도확인), 종회의원 선거인단 선출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혼란으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바, 이런 역경을 딛고 대한불교원효종의 정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법맥을 이어가기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신심을 내어주신 스님들의 원력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비합3003 임시종정선임 결정(대구고등법원 2020라388 결정, 대법원 2021마5232 결정)에 따라 이종윤(원호) 스님을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종단의 안정을 되찾아 가게 되었습니다.

종단 혼란의 중심에 있던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 스님이 위촉, 임명한 임원, 의원 등 모든 직책은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단의 정상화를 위하여 우선 종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바, 이에 종회의원 선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종도 확인업무를 시행하오니 착오 없이 확인업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 스님 측의 모든 업무가 만료되었음에도 종도 스님으로서의 확인 절차를 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확인된 종도 스님들로 종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예정인바,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확인기간 : **2023년 3월 22일(수) ~ 4월 24일(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위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범위 :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승려증
3. 접수장소 :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총무원(경북 경주시 배리2길 34-7)
4. 접수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5. 전화번호 : 임시총무원 054)745-3400 / 팩스 054)745-3400
H.P 010-9388-3883, 010-5428-4040

제출 구비서류

1) 사진 3매(3×4) 사진은 가사와 장삼을 수하시고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신상명세서(서식 총 – 2) 일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필수기재
총무원에서 3회 이상 전화를 해서 확인이 안 될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사미.구족계첩, 도첩, 수계증, 승려증 사본 등 본 종단 종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5)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주의사항

1.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구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총무원을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4. 신상명세서는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 임시총무원장 김두환(일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해원(해정)

불교인문학살롱 ❻ 향곡선사 일화



▶**법념 스님**은 1945년 출생. 동국대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경주 흥륜사 한주로 주석 중이다. 저서로는 산문집 〈종이 칼〉, 향곡 선사와의 인연을 담은 〈봉암사의 큰 웃음〉이 있다.

"중이 할 것이라곤 공부밖에 없다"

향곡 선사(香谷禪師)는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성철 선사(性徹禪師)와 함께 선풍을 드날렸던 선지식이다. 두 분은 일생동안 절친한 도반(道伴)으로 지냈다. 향곡 선사가 먼저 열반에 들자 성철 선사는 애도(哀悼)하며 〈곡향곡형(哭香谷兄)〉이라는 글을 지었다.

곡향곡형(哭香谷兄, 향곡 형을 곡하다)

哀哀宗門大惡賊(애애종문대악적)
슬프다! 이 종문의 악한 도적아.
天上天下能幾人(천상천하능기인)
천상천하에 너 같은 이가 몇일런가.
業緣已盡撒手去(업연이진살수거)
업연이 벌써 다해 훨훨 털고 떠났으니
東家作馬西舍牛(동가작마서사우)
동쪽 집에 말이 되든 서쪽 집에 소가 되든.
咄咄(돌돌)
애달프다!

甲乙丙丁戊己庚(갑을병정무기경)
道友(도우) 性徹(성철)

큰스님은 말년에 "나는 칠십을 안 넘길 끼다. 오래 살고 접지(싶지) 않아"라고 가끔 말씀하셨다. 나는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다. 그러나 말씀대로 1978년 음력 12월 18일, 열반에 드셨다. 세수 67세, 법랍 50년이다.

어느 날 내가 여쭈었다. "큰스님, 열반하신 뒤 다시 사바세계로 오실 겁니까."

"나는 사바세계로 다시 안 올끼다. 금강당세계(金剛幢世界)로 갈끼다."

"거기는 어떤 세계인가요."

"불불(佛佛)이 모여 사는 화장세계(華藏世界)니라."

"큰스님이 가시면 우리는 누굴 의지해 공부해야 됩니까."

"법제자 진제(眞際, 前조계종 종정)가 있다 아이가, 법은 거 가서 물으면 돼."

큰스님은 거침없이 간단명료하게 답하셨다.

어느 해 하안거 때다, 하루는 큰스님이 아침부터 다락에 올라가시더니 한참 지나서야 뭘 한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오셨다.

"법념아, 이거 원주한테 갖다 주고 선방 대중들에게 나눠 주라 캐라."

풀어 보니 속옷과 양말 등속이었다. 평시에 헌 옷이나 구멍 난 양말은 손수 꿰매 쓰더니, 새것은 모아두었다가 대중들에게 베푸신 것이다.

다비식이 끝난 뒤, 뭘 찾으려고 큰스님이 쓰시던 책상서랍을 열어보았다. 비눗갑에 헌 고무 밴드가 소복하다. 버리는 걸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썼을 성싶다. 뿐만 아니다. 글자가 없는 종이는 잘라 차곡차곡 쌓아둔 것도 한쪽에 있다. 메모용지로 쓴 듯하다.

"요새 스님들은 물건 귀한 줄 몰라 애끼지 않아. 시주(施主)의 은혜를 갚을라카마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되는 기라. 뭐든 알뜰키 하는 기 제일이제"

생전에 경상도 사투리로 투박하게 일러주시던 말씀이 귀에 쟁쟁하다.

큰스님은 생전에 월내(月內) 묘관음사(妙觀音寺)에 주석하셨다. 꽃과 나무를 사랑한 큰스님은 도량 곳곳에 꽃뿐만 아니라 나무도 많이 심어 청청한 도량으로 가꾸셨다.

어느 해 늦가을, 큰스님이 외출하려고 염화실(拈華室, 조실 스님이 거처하는 곳)에서 내려오다 가지가 너무 높이 자란 엄나무를 보자 원주 스님에게 일렀다.

"엄나무가 너무 웃자라 봄에 새순을 딸라 카마 손이 안 자랠 끼라. 가지를 좀 잘라야겠다."

볼일을 마치고 절에 돌아온 큰스님은 깜짝 놀라셨다. 가지를 몽땅 잘라버려 엄나무는 몸뚱이와 두 팔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법거량 위해 향곡 선사 찾은 운수납자
3~4시간 거량했으나 답 못하고 하산해
"애는 많이 썼으나 정진 빈틈없이 해야
금생에 공부 마쳐야지 미루면 안 된다"
선사의 안타까운 경책이 아직도 사무쳐

"아이고, 우야꼬. 가지가 너무 자라 좀 자르라 캤는데…, 이래 났구나."

이듬해 봄이 되자 엄나무는 끝내 싹이 돋아나지 않았다. 큰스님은 염화실로 오르내릴 적마다 고사(枯死)해버린 엄나무를 보며 "참말로 미안테이"라며 두 손 모아 용서를 빌곤 하셨다.

당시 묘관음사에는 초등학생 어린 꼬마가 있었다. 나중에 커서 어엿한 스님이 되었지만 어릴 적엔 개구쟁이였다. 이른 봄 도량 곳곳에 진달래가 피었다. 이놈이 그중 가장 예쁜 진달래가지를 꺾다가 큰스님에게 들킨 것이다. 몇 십 년간 애지중지하며 키운 꽃나무를 꺾다니…. 큰스님은 화가 잔뜩 나셨다.

"너 이놈, 맞을 일을 했으이 회초리 만들어 오너라."

제 딴에는 고른다고 고른 게 하필이면 진달래가지를 또 꺾어 간 것이다.

"와 이걸 또 꺾어 왔노."

"가는 걸로 때리면 덜 아플 것 같아서요."

풀이 죽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웅얼거린다. 그 말에 큰스님은 그만 껄껄 웃고는 들고 있던 회초리를 놓아버렸다.



향곡 선사의 진영

"봐라, 니 팔을 누가 꺾으마 아프겠제, 꽃나무가 말을 못해 그렇지 니하고 똑같이 아프다. 다신 그라지 마라."

이후로 꼬마는 나뭇가지 하나, 풀 한 포기도 건드리지 않았다.

큰스님은 키가 180cm가 넘고 몸무게는 90kg가 더 나가는 큰 체구이시다. 매일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책을 본 뒤, 도량을 한 바퀴 돌아보신다. 육중하지만 어찌나 살금살금 걷는지 발소리가 전연 들리지 않는다.

길상선원(吉祥禪院)은 큰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사부대중이 수행하는 선방으로 묘관음사 경내에 있다. 큰스님은 새벽마다 선원으로 살며시 걸어가 정진하고 있는 대중을 몰래 살펴보고 염화실로 올라오곤 하셨다.

평상시에 큰스님은 "불사(佛事)란 부처님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셨다. 즉 '눈 밝은 납자를 나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불사' 라며 선원스님들을 끔찍하게 위했다.

당시는 큰스님과 법거량(法擧揚, 선(禪)을 주제로 주고받는 문답)을 하려고 원근각지에서 오는 스님들이 자주 있었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으러 오기도 하지만 자기가 깨달았다고 막무가내로 들이미는 경우도 허다했다.

큰스님은 결제(結制), 해제(解制) 때 설하는 상단법문 뿐만 아니라 선방에서 소참법문(小參法門, 때와 장소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격식이 없이 불법에 대하여 묻고 대답하는 일)도 수시로 하셨다. 그 때 큰스님과 선문답을 주고받는 스님들이 더러 있어 정진의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요즘은 선문답하는 광경을 보기 힘들어 너무나 아쉽다. 때로 정답은 아니지만 그럴싸한 답이 나오면 큰스님은 매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다.

어느 해 동안거 때다. 한 밤중에 누군가가 염화실로 올라오며 "향곡이 나와라. 나랑 한 판 붙자"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 추운 겨울이건만 웃통을 훌떡 벗은 채로다. 얼굴이 낯선 걸로 보아 선원대중은 아닌 듯했다. 나중에야 '토굴에서 정진하다 온 객스님' 이라고 들었다. 다행히 대중 스님들이 올라와 수습하였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뒷맛이 씁쓸했던 사건이었다.

어느 봄날, 무명옷을 깨끗이 차려입은 객스님이 큰스님을 뵈러왔다. 무엇 때문에 왔는지 미리 감치 알아보신 큰스님은 나더러 밑에 내려가라고 하셨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너 시간은 됨직하다.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고 염화실로 가니 객스님은 떠나고 없었다. 나는 궁금해 견딜 수가 없어 뜰에 서계시는 큰스님에게 여쭈어 보았다.

"큰스님, 무슨 이야기를 그리 오래 하셨습니까."

"그르키(그렇게) 말이다. 지 딴에는 알았다고 마구 들이댔지. 그게 답이 아이라 캐도 지가 맞고 내가 틀린다고 우기는 기라. 결국 나중엔 고개를 숙였지."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건 말 못하지. 뭐라 카기는 했제. 애를 씨기는 마이(많이) 쓴 거 같아. 정진은 빈틈없이 해야돼. 안즉 머랐어(멀었어) 멀어."

큰스님은 객스님이 애쓴 만큼 답을 못한 게 아쉬웠던 모양이다. 입을 쩝쩝 다시더니 한마디 던지셨다.

"이 공부는 세수하다가 코만지는 것처럼 숩다카마 숩지(쉽다면 쉽지). 말세 중생은 근기(根氣)가 약해 깨닫기 어려븐 거 같에. 명확하기 답하는 이가 없사."

한숨을 내쉬며 돌아서는 큰스님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큰스님은 웃을 때 온몸을 흔들며 허허하고 크게 웃으신다. 부끄럼을 잘 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웃을 때면, 수줍음 많은 어린 소년처럼 천진해 보였다. 이젠 그런 웃음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으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중이 할 끼라고는 공부밖에 없사. 일대사를 해결 못하마 온 곳도 갈 곳도 모르이(모르니) 어데 태어날 똥 모르는 기라. 우짜든지 금생에 공부 다해 마치야지. 미루마(미루면) 안 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큰스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딴 짓만 하고 살아온 듯해 사뭇 죄송할 따름이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보는 성품은 미묘하고 밝다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⑪ 견(見)

〈원문〉 "아난아,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모든 물체들이 비록 차별되나 다 같이 너의 청정한 견정(見精)으로 보는 것이니 물체의 종류는 차별이 있지만 보는 성품은 다르지 아니하니라. 이 견정(見精)의 미묘하고 밝은 것이 진실로 너의 보는 성품이니라. 만약에 보는 것이 물체라 한다면 곧 네가 나의 '보는 것'(見)을 보아야 하리라. 만약 너와 내가 함께 같은 것을 보는 것으로 나의 견을 본다고 한다면 내가 보지 않을 때에는 어찌하여 나의 보지 못하는 곳을 보지 못하는가? 만약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면 자연히 보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리라. 만약 나의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자연히 물체가 아니거늘 어찌 네가 아니리요?"

〈강해〉 〈능엄경〉 2권에서는 마음의 참 성품을 견(見)으로 밝히고 있다. 보는 성품이나 듣는 성품이 똑같은 것이지만 '팔환변경(八還辯見)'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의에 따라 눈이 보는 성품(見性)을 가지고 부처님 아난에게 말씀을 하신다. 눈이 보는 사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 그러나 눈이 보는 것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 '보는 것'을 견정(見精)이라고 하고 달리 견성(見性)이라 하였다. 보는 알맹이, 보는 성품이라는 말이다.

네 가지로 가정을 하여 견(見)을 설명한다. 이 대목을 사약장(四若章)이라 말해 오기도 했다. 만약 약(若)이 네 번 이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이 대목을 부연설명하자면 사람의 눈이 물체를 볼 때 볼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우선 밝아야 볼 수 있고 어두우면 보지 못한다. 또 트여야 볼 수 있고 막히면 보지 못한다. 밝은 것은 해 때문이며 어두운 것은 해가 없는 캄캄한 밤이기 때문이다. 밝은 것은 해로 돌아가고 어두운 것은 그믐밤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어두워 물체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견(見)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견 자체는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견은 밝음이나 어둠처럼 돌아갈 데가 없다 하였다. 돌려보낼 수 없는 견(見)이 아난의 참된 마음, 곧 진성(眞性)이라는 것이다. 이는 아난이 "견(見)이 어찌하여 내 진성인 줄 알겠습니까"하고 의심하고 있는 아난의 속뜻을 아시고 하는 말씀이다. 이 진성을 나중에는 여래장묘진여성이라 한다. 이 말이 〈능엄경〉의 핵심을 나타내는 말이다. 〈능엄경〉의 대의를 '기탁염 발묘명'이라고 말해 왔다. 탁한 번뇌의 오염인 식심분별을 버리고 여래장묘진여성의 묘명(妙明)을 계발한다는 뜻이다. 〈능엄경〉은 능엄신주(楞嚴神呪)가 설해져 있어 밀교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경으로 여기기도 하고 동시에 여래장 사상이 설해져 있는 경전으로도 간주된다. 말하자면 여래장 사상이 밀교화 되어있는 경이 〈능엄경〉이라는 말이다. 중생의 몸에 불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능엄법문의 요지이다.

사약장(四若章)의 처음 말인 '견이 물체라면'에서 아난이나 부처님의 견이 물체라면 아난이 부처님의 견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고, 다음 '만약 함께 같이 보는 것을 나의 견을 보는 것이라 한다면'은 아난과 부처님이 똑같은 물체를 볼 때 부처님이 보시는 것을 아난이 보면 그것이 부처님의 견을 보는 것이냐는 말이다. 다음 세 번째 '만약 보지 않는 곳을 본다면'은 부처님이 보지 않는 곳을 아난이 본다면은 뜻이고, 네 번째 '만약 나의 보지 못하는 곳을 보지 못한다면'은 부처님이 보지 않는 데를 아난이 못 본다는 뜻이다. 이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부처님이 보지 못하는 데를 아난이 보지 못 한다면 부처님이나 아난의 견이 물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물체가 아니라면 견이 바로 아난이라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난의 견이 아난이라는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누구나 눈으로 물체를 볼 때 명암 통색 등의 조건에 의해 보지만 보는 주인공인 견(見)은 조건과 관계없이 그대로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뭣고'를 찾을 때의 자기 정체 곧 아이덴티티(identity)라는 말이다. 눈먼 장님에게도 견은 있고, 죽은 사람에게도 견의 성품은 있어 그것이 불생불멸하는 진여의 성품이라는 것이다. 이 성품이 시방법계에 변재(遍在)해 있다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옴~" 파장, 음기 제거 · 수련공간도 정화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⑪ 옴 수련

'옴' 수련을 하게 되면 발성의 파동을 통해 몸 안에 누적된 음기를 밖으로 배출시킨다. 옴 소리의 파장은 몸 안의 음기를 제거하면서 수련공간까지 정화한다. 자세를 바로잡고 앉는다. 가부좌나 반가부좌도 좋고 반듯한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앉아도 좋다. 숨을 내쉬면서 "옴~~~" 하고 소리를 낸다. 혀는 입안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중심에서 '옴' 소리가 시작되어서 둥근 구의 형태로 울려 퍼지도록 한다. 풍선이 점점 부풀어나듯이 가슴에서 몸 전체로 옴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연습한다.

"옴"하고 소리가 둥글게 울려 퍼질 때, 몸에서 일어나는 진동을 좀 더 섬세하게 느껴본다. 가슴 중심에서 시작해서 폐부, 그리고 장부와 머리, 팔다리, 온몸 전체가 진동하는 것을 느껴본다. 옴 소리의 진동을 상상하지 말고 직접 느껴야 한다. 체득(體得)될 때까지 계속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장부에 쌓여있던 탁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때 몸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 목 부분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폐와 심장 부위 또는 전신에서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일종의 명현 반응이다. 그런 증상은 대개 금방 사라진다. 옴 발성을 몇 차례 해보면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소리의 높이가 정해진다. 너무 작게 소리 내지 않도록 한다.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수련하는 것이 좋다. 수련 시간은 1시간 이상해야 한다. 수련이 깊어질수록 같은 시간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자세를 취한 다음 중심에 의지를 두고 아랫배 깊숙이 숨을 들이쉰다. "옴~~~"하고 발성을 하면서 소리의 진동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진동을 보다 선명하게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한다.

진동이 일어나서 퍼져나갔다가 다시 멈추었을 때 그 바탕에 자리한 '고요함'을 인식한다. "옴~~~"하고 발성을 하면서도 진동이 퍼져나가는 이면을 주시한다. 아무렇지 않은 자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가슴 바탕을 느껴본다. 처음에는 진동만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진동과 고요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심이 돈독하게 세워진 것이다. 이때부터는 일상 속의 모든 현상을 가슴으로 비춰 본다. 그러다 보면 고요함이 벽과 같이 튼튼해진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옴~~~"하고 내쉰다. '옴' 소리가 둥글게 퍼져 나가도록 하면서 가슴 바탕의 고요함을 함께 주시한다. 몸 전체의 피부 감각을 활용해서 중심으로 기운을 끌어들인다. '옴' 소리가 구의 형태로 울려 퍼지면 들숨을 따라 구의 중심으로 다시 기운이 집약된다. '옴' 소리가 둥글게 멀리 울려 퍼질수록 끌어들이는 기운의 양이 많아진다. 기감(氣感)이 깨어나 있으면 몸 전체로 기운을 느낄 수가 있다. 피부와 몸 전체에 조여드는 듯한 느낌이 생기고 저르르한 기감이 형성된다. 가슴이 부풀어서 빵빵해진다. 때로는 가슴이 밝은 빛으로 환해지는 것을 보기도 한다. 열이 발생해서 몸이 후끈거리기도 하는데 숙달이 되면 기운이 안으로 갈무리되면서 평안해진다. 그 상태에서 장부 순화는 더욱더 심화된다. 가슴 바탕에 고요함도 더욱더 튼튼하게 자리 잡는다. 중심의 편안함이 깊어지면 중심과 육장을 하나씩 연결한다.

먼저 심장을 연결한다. 편안함을 바탕으로 삼고 심장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킨다. 마음이 조급해서도 안 되고 선입관이 있어도 안 된다. 그리움이 지나쳐서 편안함이 흐트러져도 안 된다. 중심과 심장을 연결해 놓고 지극하게 기다린다. 어미 닭이 알을 품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심장을 느껴본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스님의 〈능가경〉 강설

⑪ 연(緣)과 인(因)의 원인

생기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없어

공존하는 물질과 물질, 물질과 비물질, 비물질과 비물질의 상호작용은 끊임없는 에너지의 발산으로 묶여있다. 그러나 에너지의 연결성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지속해서 표출되는지는 누구도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서 서로가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로의 관계는 외적인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고정된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 같지만, 내적인 미세함에 들어가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규칙과 비규칙의 혼합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어쩌면 토끼뿔처럼 실제와는 관계없는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사실화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의 일이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물은 "실제로 보인다"고 하는 형태를 가질 수 없고, 만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대화가 필요 없겠지만, 만약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물의 실재에 대한 논의는 접어 두고, 먼저 시공간에 대한 정의와 시작점을 정해야만 한다. 그런데 시공간의 정의와 시작점을 시공간에 있는 사물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무엇을 정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실험과 상상은 가설일 때는 사물에 대한 규칙의 표본이 찾아지겠지만, 사실과 연결 지을 때는 그 표본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실험과 상상을 하였던 것이지,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알았다면 마음에 비친 사물에 대해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비친 허상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 불필요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진위 여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순간의 마음을 깨뜨리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지금 일어난 일이 사실적인 부분이 없다면 그것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다른 대상도 사실을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 것이다.

"유무의 연기법은 생겨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습기의 유전에 미혹된 것으로, 이로부터 삼유가 드러나도다. 진실로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으니, 일체의 유희는 허공의 공화와 같도다."

그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의식은 수많은 삶을 살아온 셀(cell)을 가지고 있다. 그 기억장치는 아주 얇은 유리막으로 겹겹이 중첩되어 있어 사물이 나타나면 중첩된 의식의 눈으로 사물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때마다 저장되어있는 각각의 정보는 개체들이 살아가는 사실적인 표본이 된다. 물론 개체의 기억이 보편적인 실제는 아니지만, 그 개체의 정보에서는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개체의 기억장치에 저장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은 정보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체의 중첩된 정보는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부딪치지 않는 일이 거의 없다. 언제나 이것과 저것의 선택으로 부딪치고 갈등하게 된다. 혼자 살 때나 여럿이 살 때나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풀어보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제자리에 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나'라는 하나의 삶을 산다고 여기지만 '나'라는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태어날 때마다 '나'라는 기억장치를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니 우리의 기억은 다중기억장치이다. 앞을 기억하는 개체와 뒤를 기억하는 개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나'라고 하는 기억장치를 움직이면 과거의 '나'라고 하는 기억장치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그것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 지금의 생각이 지금의 생각이 아닌 복합적인 생각이 되고 만다. 이것을 부처님은 습기의 유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습기의 유전이 생기면 삼유가 자연히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갈등은 증폭되어 혼란은 가중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이는 사물은 실제인 것이 없으니, 너무 지나치게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여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家寶
靑龍, 白虎 도예세트 급매 높이 66cm · 폭45cm · 둘레66cm
海東 先生任 傑作品. 安靜과 繁榮을!
보관관리인 010-9011-7230 (가격절충가능)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선 향 : 80.000원
• 불 향 : 10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종합향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日불교 최대 종단 지도자 80년 만에 대담

정토진종 2분파 지도자 한자리
신란 대사 탄신 850주기 성사
현대서 불교 가르침 종교인 자세
세계평화 · 환경문제 의견 나눠

박영빈 객원기자



8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두 종단의 지도자. 오타니 쵸유 문수(좌측)와 오타니 코쥰문주(중앙).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불교 교단인 정토진종의 양대 분파 두 종정이 한 자리에 앉았다. 양 파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로, 상징적 존재인 두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80년 만이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3월 6일 정토진종 혼간지파 종정인 오타니 코쥰문주(門主)와 정토진종 오타니파의 종정인 오타니 쵸유문수(門首)가 함께 진행한 대담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정토진종은 일본불교 최대의 종단으로 아미타불의 서원을 종지로 삼고 염불을 주 수행으로 삼는 종단이다. 13세기에 창종됐으며 크게 10개의 분파들로 나뉘나 교토의 동본원사를 본산으로 하는 오타니파와 서본원사를 본산으로 하는 혼간지파가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고 있다. 두 파를 합쳐 신도는 현재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동서 본원사는 17세기에 종단의 후계자 다툼으로 분열되었으며 양 사찰 간의 거리는 불과 500m다. 지금까지 서로 큰 대립 없이 협력하며 정토신앙을 포교해 왔으나 실제 지도자들 간의 대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 종단 측은 "비공식적인 만남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주와 문수 간의 공식대담은 1868년과 1943년의 2차례 뿐"이라고 전했다. 80년 만에 성사된 양 지도자의 대담은 이달 하순부터 봉행되는 종조 신란(親鸞)대사 탄신 850주기와 창종 800주기 기념법회에 앞서 진행된 것이다. 대담은 각 사찰 측에서 신문사를 초청하여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3월 6일, 서본원사에서 진행된 대담회는 현대에서의 불교 가르침, 종교 본연의 자세에 대한 토론과 함께 세계평화와 환경문제에 종교가 하는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대담의 주체인 코쥰문주와 쵸유문수가 일본불교를 대표하는 단체인 '전일본불교회'의 전 회장, 현 회장이라는 점에서 대담의 내용에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먼저 탄생 850년을 맞이하는 종조 신란대사의 가르침에 대해 코쥰문주는 "신란대사는 창종 당시 사회에서 차별받던 이들의 입장에 서 있었다. 불교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고통이나 슬픔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와 관련된 태도도 형성되어 간다"고 설명했다. 쵸유문수도 "지금이야말로 소중한 가르침이며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확신한다. 그것을 어떻게 전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세계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 코쥰문주는 "각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각자의 행복, 사회 전체의 안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쵸유문수는 "불교의 가르침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세계의 발견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즈음의 종교를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선 쵸유문수는 "종교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종교단체나 거기에 속한 인간의 행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쥰문주는 "종교는 마음을 가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종교를 필요 없다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그 역할을 강조했다.

캄보디아, SNS 스타 스님과 불교계 충돌

전통계율 위배 vs 현대 포교법
"SNS로 불교 판단 안돼" 지적



SNS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스님들로 인해 기존 불교계에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 사진출처=레스트 오브 월드

최근 캄보디아 불교계에서 SNS를 통한 '스타스님'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불교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기존 불교계는 스님들의 과도한 SNS 활동이 전통적인 계율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는 반면, 현대에 맞는 포교법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3월 7일, 인터넷 기술 전문 리뷰 매체 '레스트 오브 월드'는 캄보디아 불교계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 보도했다.

영상 전문 SNS인 틱톡에서 13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캄보디아 피세이 스님은 매일 저녁 몇 시간 동안 혼자 방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한다. 스님은 "어떠한 수익이나, 명성을 얻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전하고 싶을 뿐"이라며 SNS 활동을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스타스님'인 시엥하이 스님은 5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처음 틱톡을 시작한 스님은 처음엔 크메르어와 문학을 강독하는 교육콘텐츠를 촬영하여 게시했다. 그러나 점차 스님은 강독보다는 짧은 법문들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스님은 사찰의 생활이나 스님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등의 영상을 올리며 시청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시엥하이 스님은 "가급적 시청자들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으려 하지만, 출가자로서 너무 가깝게 지내려는 하지 않는다"고 웃어 보였다.

'멍크 톡(Monk Tok)'이라고도 불리는 스님들이 운영하는 틱톡의 부상은 현재 캄보디아 불교계에서 뜨거운 이슈다. 보수적인 불교계 인사들은 "SNS에서 주된 관심사이자 스타덤에 오르는데 필요한 콘텐츠는 보통 춤이나 노래, 재력, 주변의 명성 등이다. 이 모든 것은 출가자가 피해야 한다고 율장에 규정되어 있다"며 SNS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스타 스님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에 반해 현대에 맞는 포교법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레스트 오브 월드 측은 지난 수년 동안 캄보디아 스님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신도들과 소통해왔고, 법문을 공유했으며,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통해 삼림벌채를 모니터링하거나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고 전했다. 실제 스타 스님들은 대부분 법문을 공유하거나 스님들의 생활을 전하는 등 대중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한 포교의 일환으로 SNS를 운영하고 있다. 시엥하이 스님은 "SNS 활동과 계율을 별개로 생각해선 안된다"며 "자신의 영상은 모두 사찰의 소임자와 강사스님들의 검수와 조언을 따라 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프놈펜 불교대학의 부총장인 셍옛스님은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불자들에겐 깨달음과 지혜를 상징하지만, 타종교인들에게는 우상, 미술가들에겐 예술작품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SNS가 잘못된 것이 아닌 사용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SNS를 통해서 불교를 판단하거나 좋지 않은 면만을 부각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얀마군, 스님 포함 민간인 30명 학살

남부 샨주 삔라웅 타운십 마을 폭격
스님 3명도 시신으로 발견돼 수습



사진출처=BBC

미얀마 군부가 한 마을을 공격해 스님을 포함한 민간인 30여 명이 사망했다.

지난 3월 14일(현지시간) 미얀마나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3월 11일 남부 샨주 삔라웅 타운십의 한 마을을 폭격했다.

이날 마을에서는 미얀마 군부와 반군부 저항군 간 전투가 벌어졌다.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과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여러 민족 민병대 중 하나인 카레니민족방위군(KNDF) 등 연합군은 미얀마 군부에 저항했다.

미얀마 군부는 마을 인근 언덕에서 첫 포격을 가한 후 마을에 진입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했다. 저녁에는 전투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습에 물러났던 저항군은 이튿날인 12일 마을 사원에서 승려 3명과 10대 소년 2명 등 민간인 23명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미얀마 군부의 폭격이 시작되자마자 마을을 떠났지만 사원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 2명은 사원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KNDF 측은 "미얀마 군부가 민간인을 수도원 앞에 줄지어 세우고 잔인하게 총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습하지 못한 시신을 포함하면 약 30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이달 초에도 중부 사가잉 지역 마을을 습격해 민간인 17명을 살해했다.

반면 군부는 민간인 학살을 부인하며 이들이 민간인이 아닌 무장단체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윈 민트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 등 여당 당원들을 구금,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얀마 군부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은 3천 명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4만 채 이상의 민가가 파괴되고, 학교가 폐허로 변해 8만 명 이상 어린이의 학업이 중단된 상태다.

박정현 객원기자

印, 불교유산 공유의 장 국제포럼 개최

3월 14~15일, 뉴델리에서
중앙아시아 불교예술 살펴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불교문화유산 공유를 위한 국제 포럼이 열렸다.

3월 14일(현지시간)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부터 양일 간 뉴델리 비갼 바완(Vigyan Bhawan) 컨퍼런스 센터에서 '불교문화유산 공유'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인도 문화부와 외무부, 국제불교연맹이 공동 주관한 이 자리에는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 참석했다.

연사로는 정치인 시리 G 키샨 레디(Shri G. Kishan Reddy)와 문화부 장관 아르준 람 메그왈(Arjun Ram Meghwal) 등이 나섰다.

해당 포럼은 인도의 불교문화유산을 전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른바 '초문화적 공유'를 위한 자리다.

아울러 지난 17~18일에는 SCO 회원국의 문화관광부 장관 회의도 열렸다.

SCO 관계자는 "국경을 초월해 초문화적 연결을 재구축하기 위해 온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중앙아시아의 불교 예술 및 고고학적 유적지와 회원국들의 불교문화유산 간 공통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무료공급 00명
발명특허출원 원료
■ 감소된 수치 10년 이상유지
■ 크레아티닌 수치 1.30이상 투석 자 제외
옻나무 톱밥(티백) 식품허가 독성제거
제품원료 1개월분
티백 2kg+장수버섯 100g
복용 전 크레아티닌수치
혈액검사 표 6개월 전까지 유효
복용 전 후 혈액검사
핸드폰 영상으로 본사제출
황보 생약 대표 010-5556-1526
택배무료
E-mail : nsazxcv@naver.com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책 다시 읽기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 ❺ 더듬듯이 천천히 꾸준하게 해가는 공부

▶ **한줄 요약**
인(仁)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닦고 다스리는 수기(修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修己는 仁의 길 가는 유일한 통로

부처님이 제타숲에 계실 때 바라문인 상가라바라가 찾아와 붓다 교단의 수기(修己)중심의 수행이 자신의 구제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차원에 있다고 지적했다. 자기 내부의 문제에만 천착하는 비구들의 행태는 어찌보면 중생은 버려두고 자신만 해탈을 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처님 열반 뒤에 대승과 소승의 교리 논쟁이 바로 이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비슷한 점을 지적한 상가라바라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나는 그대에게 묻고 싶다.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라.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상에 여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실천이다. 나는 이 길을 따라가고 이 실천을 통해 닦음으로써 번뇌가 다한 해탈을 얻을 수 있었다. 너희도 이리 와서, 함께 이 길을 가고 이 실천을 닦음으로써 번뇌를 없애고 참다운 자유를 얻으라. 이와 같이 정각자가 법을 설한 결과 여러 사람이 이 길을 따르게 되어 자유를 얻은 사람이 수백 수천 수만에 이르렀다면,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와 같아도 이 길은 역시 한 사람만을 위한 행복의 길이겠는가?"

붓다의 이 질문에 상가라바라는 당황했다. 부처님은 수기와 중생을 구제하는 문제를 둘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았다. 잠시 상념에 빠졌던 상가라바라는 부처님이 하고자 했던 말을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타마여, 그렇다면 출가의 행위 또한 많은 사람을 위한 행복의 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지부경전〉 〈중아함경〉)

스스로 마음을 닦으면서 수양해 가는 수기(修己)에 대한 강조는 공자에게서도 나타난다. 공자 역시 수도승과 같은 면모가 있었다. 작아 보이는 수기의 힘이 자신을 넘어서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공자도 수기가 남을 편안하게 하는 안인(安人)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제자 자로(子路)는 스승인 공자에게 군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물었다. 공자가 답했다. "경(經: 경서(經書) 경전(輕典))으로서 자신을 닦는다"

무인 기질이 다분한 자로는 이 맥 빠진 스승의 대답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신만 닦고 있으란 말인가? 자로는 다시 물었다. "그러할 뿐입니까?"

그러나 공자의 태도는 확고했다. 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는다. 내부의 힘에 의거하지 않는 외적인 행동주의는 자칫 자신을 해할 수 있고 남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공자는 다시 말했다.

"자신을 닦아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수기의 목적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수기가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역할도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자로는 다시 스승에게 반문했다.

"그러할 뿐입니까?"

거듭되는 반문에 공자는 옛 성현의 이름을 들먹이며 말했다.

"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안케 한다. 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은 요임금과 순임금도 오히려 부심했던 것이다." 〈논어〉

인(仁)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닦고 다스리는 수기(修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수기 없이는 인이란 있을 수 없다. 수기는 인의 길을 가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다. 그에 대해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논어〉



군자는 자신의 내부에서 모든 것을 구하지만, 소인은 자신 밖에서 구한다. 군자는 자신을 닦는데 열심이지만, 소인은 밖에서 구한 것으로 자신을 꾸미는 데 공을 들인다. 공자도 부처님처럼 자기 내부에서 길을 발견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국가의 세비만 받아먹고 당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국민들의 삶을 위한 생각은 저 멀리 날려 보낸 것 같은 대한민국 국회를 사람들이 '식물국회'라 한다고 한다. 이에 어느 텔레비전 프로에 참석한 평론가가 "식물도 생각이 있다. 식물이 들으면 화낼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식물, 그보다도 한참 떨어져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회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과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들은 논쟁을 즐기고 싸움을 하지만 국민들을 위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다. 논쟁을 위한 논쟁이며 싸움을 위한 싸움만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논쟁은 수행 정진과 구법에 도움 안돼
논쟁 하면 상대 이기는 것이 목적된다
깨달은자 입이 무거운 것도 이런 이유

일반 사람들도 모여서 말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논쟁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논쟁에 뛰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질없는 행동으로 여겼다.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논쟁은 불법을 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감만 일으키기 쉽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 자체가 자비로운 마음과는 거리가 멀고, 자비롭지 못한 과정을 통해 자비를 전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이런 점은 출가 수행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시선이지만 일반 재가 신자도 입이 아니라 늘 마음으로 상대를 감화시켜야 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부처님은 "법과 법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까닭에 논쟁은 끝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떤 경우라도 논쟁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노여움은 마음의 평안을 휘젓는 가장 큰 독이니, 자기가 한 일에 오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절대 변명은 하지 말라. 변명은 상대적인 대립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변호가 나타나는 것이고, 자기변호는 자신의 마음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도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늘 가슴에 새긴다.

논쟁이란 사물의 일면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사물 전체를 관조하는 사람은 논쟁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하는 말은 사물의 일부를 본 것이므로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맞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마는 것이다. 깨달은 자의 입이 무거운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논쟁이란 수행정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을 구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논쟁을 하다보면, 애초의 의도는 사라지고 상대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고 만다.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을 짓눌러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는 이겼을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진 것이다.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안과 진애(瞋碍:분노)를 없애고자 하는 수행자가 오히려 그것을 일으키는 논쟁에 휘말리는 것은 진리를 버리고 삿된 감정에 집착한 꼴이 된다. 논쟁은 사람에게서 자비의 마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악업을 짓게 한다.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것이며, 싸우지 않고도 이기기 위한 것이다. 논쟁하지 않는 것은 자신과 상대를 해치지 않고도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은 깨달은 자의 필연적 선택이다.

"도(道)를 듣고 진흙탕 싸움에서 말하는 것은 덕(德)을 버리는 것이다" 〈논어〉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하는 정신이 가장 필요하다. 항상 주위를 보살피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매사에 고마움을 갖고 살아야 한다. 불법은 신앙과 실천으로서 참다운 존재를 깨닫고 확고한 안심을 얻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불교는 단순한 이론적 사상이 아니라 실천적인 종교이다.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체적인 존재를 변혁, 향상 시켜 가는 방법을 찾아 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같은 초현대 세상에서 불교는 무엇인가?

현실속에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없애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 세상에 법을 펴신 목표다. 법은 실지로 사실을 경험하여 증험되는 성질의 것이며, 지혜로운 이는 저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부처님은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그 근본적인 방법이란 깨달음이 있는 자비와 지혜, 지혜와 자비로운 깨달음이다.

"비구들이여, 예컨대 여기 한 사람이 있어 숲속을 헤매다가 문득 옛사람들이 다니던 옛길을 발견했다고 하자. 또 그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다가 옛사람들이 살던 옛성, 정원이 있고 아름답게 꾸며진 연못이 있는 성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는 즉시 왕에게 그 길을 보고했다. 이에 왕이 그곳에 도성을 세웠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고 도성은 번성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의 정각자들이 거닐던 옛길, 고도를 발견한 것이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과거의 정각자들이 발견한 그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 성스러운 여덟 가지의 길, 즉 팔정도 인 것이다."

부처님은 자기가 발견한 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부터 있었던 것이며, 과거 시대에 깨달은 분들이 역시 발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설사 과거의 일곱 부처님이나 깨달은 분들이 공통으로 알아서 깨달은 것이라 하더라도 현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법을 체계화 하여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인류에게 일대 대사건이 분명하다. 부처님은 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그 법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법은 보편적인 법칙이며, 부처님이 아니라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체계화시켜서 우리 인류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이다. 혹, 그법을 발견했던 다른 깨달은 이가 있어 발견은 했으되 인류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면, 그 훌륭한 법은 인류의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공자에게 스승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공자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옛것을 되살려 새롭게 깨닫는 것, 그것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해서 빨리 그것을 구한 사람이다" 즉 공자의 스승은 옛것이었다.

공자는 새로운 철학을 개진하는 대신 기존의 관념을 새롭게 도덕화했다. 또한, 새로운 덕목이나 개념을 만드는 대신, 그것을 재발견하고 더욱 깊은 가치를 부여했다. 그 개념들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옛것의 자양분을 빨아들여 철학적 바탕으로 삼는 것은 공자나 석존뿐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들의 보편적인 행위이다.

〈최혜자 지음 / 운주사 펴냄〉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염불이 점점

힘이 드는 스님들에게! 마이크와 2m 멀리서 작은 소리에도 장엄

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로 바꾸어 드리는 최신 디지털 염불시스템 소개 : 본품은 방문 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본품은 100% MADE IN KOREA 특징 : 인건비, 부품이 좀 비싸도 성능이 월등하고 고장이 없음.....지금은 오히려 국산품이 귀하고 대접을 받는 시대!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수 천만원까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7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6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80만원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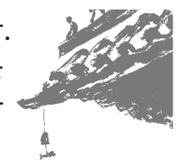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28호 | A15 | 전면광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업을 따라 살아간다.
좋은 씨앗을 뿌렸든 나쁜 씨앗을 뿌렸든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본생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2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 가능 • 매가 : 15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44~43번지
- 대 지 : 5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5억

010-3640-31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 대지 : 약 250평
  법당, 요사채, 주차장 70평
- 공찰소임 관계로 급매 / 시설 완비
- 가액 : 2억 5천만원

054-536-2587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내 십분 거리 조용한곳
- 대지 : 300평, 사유지 포함 1,000평 가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법당 집기 일체 포함
- 가액 : 2억 5천만원

010-5581-308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 2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대웅전(53평)
- 부속 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3억 8천만원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 버스 역세권 도보 3분 거리 도시가스, 유동인구 많음

010-3402-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건물 외 부속건물
- 가액 : 1억 2천만원

010-5436-5801

사 찰 안 내

경기도 가평군 중미산 자락에 위치한 절입니다. 남향으로 전망 좋고, 법당도 넓고 깨끗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1층 82.53㎡ (방 3개, 부엌, 거실), 2층 82.53㎡ (법당, 방, 베란다)
- 보증금 3천 월세 80만원, 권리금 없이 모든 시설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직접 보실 수 있음)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160

010-2551-3752

사찰 (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
- 대지 200평, 임대부지 약 300평, 법당 10평, 산신각 2평 용왕각 6평, 요사채 20평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일억 오천(조정 가능) 와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375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9천만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북 청주시 오창읍
- 대 지 : 1,787평, 극락전 : 30평, 미륵전 : 40평, 살림집 : 30평, 공양간 : 30평, 연못 50평 등 야산 밑으로 공기 좋고, 햇볕도 잘들고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 매매 26억

010-4455-7151

암 자 안 내

통영 바다와 산의 경치, 공기가 좋은 곳

- 주소 : 통영시 정량동 840-1
- 법당, 삼존불, 신중, 약사불, 칠성, 용왕, 산신각, 집기 일체 포함
-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대지 : 법당과 텃밭 포함, 106평 (주차 다수 가능)
- 가액 : 1억 8천만원

010-3344-6667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대지 143평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당일 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노스님 몸이 약하신 관계로 양도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 맺습니다.

010-4180-1788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835-17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의 아담한 암자
- 대지 : 약 50평
- 건물 3동
- 뒤에 대밭이 있음
- 가액 : 6천 5백만원 (100년된 용왕당 있음)

010-7506-8604

암 자 안 내

- 위 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 대지 102평, 2층 법당 15평, 1층 생활관 34평
- 가액 : 9천5백만원

010-4156-3779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

010-5421-153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시내권 등산로 입구, 공원 입구
- 건물 : 상가 2층 건물 중, 2층 약 40평(옥상 단독 사용)
- 구조 : 방 3개, 법당, 주방, 욕실 주차장 : 4대 단독 사용
- 현재 포교당 겸 철학상담, 기치료
- 보증금 : 2천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협의)

010-2727-4684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시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건 물 안 내

- 청주 시청 앞 9층 건물
- 대지 141평, 건평 1,000평 대출 15억, 매매 15억
- 지하 1-2층 각 층 100평씩

1층 : 로비, 차고, 사무실 / 2층 : 연잎 한정식 식당
3층 : 생광석 찜질방 / 4층 : 식당 / 5층 : 사무실 임대
6층 : 불교 대학 / 7층 : 대웅전 법당
8층 : 사무실, 방송실 / 9층 : 아파트식 주택

최고의 인테리어 시설

010-5883-2255, 010-8569-664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 계곡물 흐르는 청정지역 대지 : 388평
- 대웅전 요사채 1동 산신각 용왕당 1동
- 가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4123-759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에서 10분 거리
- 종교 부지 243평 건물, 대웅전 27평, 용왕각 15평, 요사채 35평, 화장실 5평(재래식) 전 511평
- 가액 : 5억 5천

010-3845-24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대지 : 약 230평
- 스님, 법사, 보살님도 환영
- 집기류는 그냥 드립니다.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1억 2천만원(조정 가능)

010-3415-7833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금산 추부
- 대 지 : 280평, 임야 : 50평, 총 330평
- 삼성각 : 7평, 전통 기와 목조건물
- 법 당 : 22평, 경량골 철골
- 요사채 : 슬레이트 지붕, 블록, 방 5개, 거실, 주방, 화장실
- 대전 옥천 15분 이내(교통 편리)
-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
- 가 액 : 2억 5천만원, 대출 5천만원

010-3875-630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상대동 3층 중 2층
- 법당 34평,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당, 방1개, 화장실
- 보증금 5백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7476-900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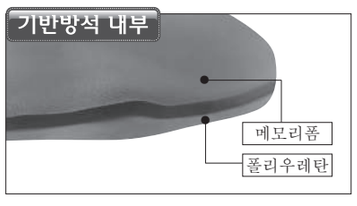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28호 | A16 | 전면광고

선지식은 지혜로운 의사와 같다.
증상에 따라 약을 주어 우리 마음의
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열반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미래종합미술원

●댄청, 탱화, 개금, 고건출
'108 달마도, 백학도, 100호도, 십장생도, 포대화상, 십우도, 팔상성도 부모은중도, 500다한도, 관음도, 동자승도, 기타풍수 그림 해바라기 등
문화재청화공기능보유자

010-9387-1518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정재(淨財)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발원 하옵니다.
신실한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생활할 공동체 마을을 조성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여 좋은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담보 제공과 이자를 드리겠으며 시주와 기부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신도 5계에 저촉되는 업과 관련 있는 재화는 받지 않습니다.

해월산 在禪居士 합장 010-7572-5358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 ● ●
무보시 기도하며 같이 지낼 75세 이상 노스님 모십니다.
부산시내 작은절
대원정사 주지
● ● ●
010-9010-5400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결혼상담소

나라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인연만나 행복을
010-5624-1365
02-306-7988

범음·범패 학인 모집

각단의식,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및 개인지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 륜 사
전화 010-7579-8200

구합니다

60대 비구입니다.
남은여생, 수행 정진할
조용한 암자를 구합니다.
010-5929-3217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66-2309 / 010-4804-2309
대구종무소 : 010-4009-2388(강법사)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일임해서 놔라, 믿어라, 물러서지 말라

모든 것 함이 없이 하라시는데

질문 모든 것을 함이 없이 하라 하시는데 도인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 저희들이 과연 함이 없는 행을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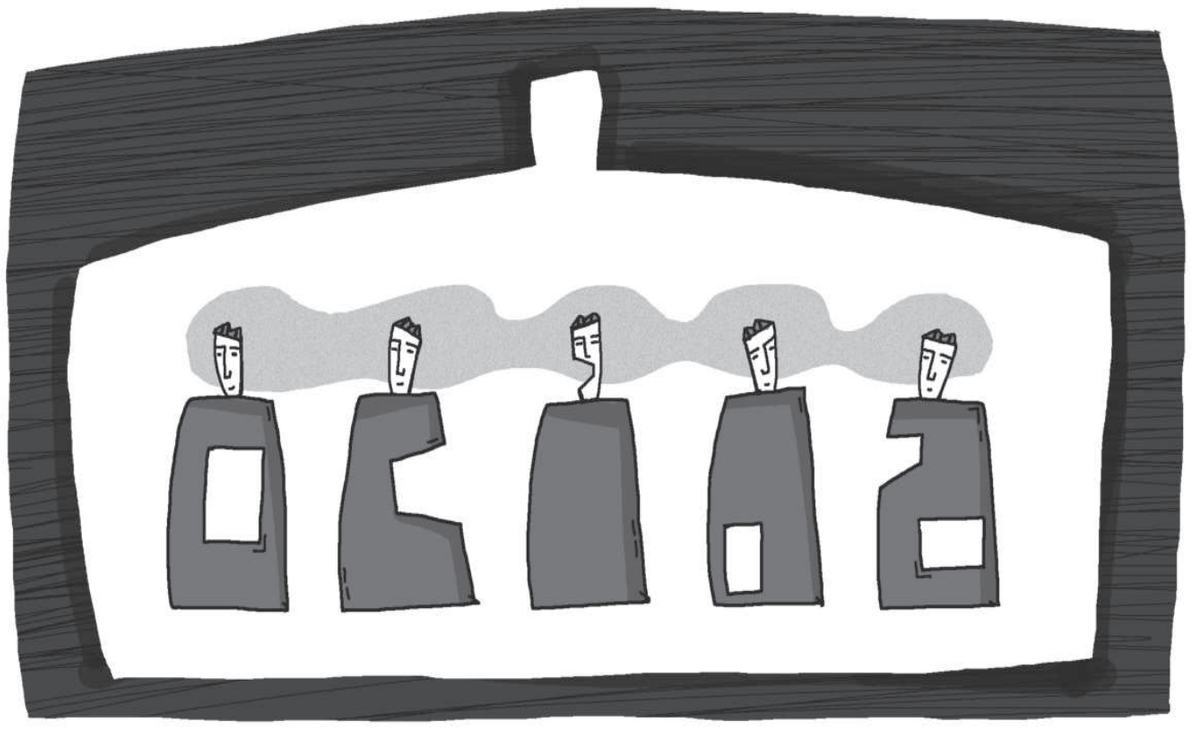
답변 그렇습니다. 도라는 건 생활이 도예요, 생활이. 딴 데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버리고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릴 버리고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처도 우리와 둘이 아니고, 도라는 이름도 우리와 둘이 아니고, 그냥 평전한 생활에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도를 깨쳤다, 깨치지 못했다 이거를 뛰어넘으세요. 이거를 버리고 뛰어넘으세요. 버리라니깐 그냥 아예 그냥 저 개천에다 꼬라박지 마시고 자기 원소에다가, 자기 주인공에다가 그냥 놔 버리세요, 그냥.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도예요, 그냥. 이게 도는 무슨 별다르게 해야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남을 원망 안 하고, 실질적으로 남을 괴롭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말 할 거 없이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하시면서 남을 존경하고…. 이렇게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존경하시란 말입니다. 나쁘든지 좋든지 존경하란 말입니다. 무슨 좋은 사람만 존경하고 나쁜 사람은 존경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이 있다 하면은 존경하란 얘깁니다.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사람으로 화할 테고 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화할 테고, 찰나찰나 바뀌지니깐요.

그걸 한번 응용해 보시면 이게 사람 마음이, 모습은 그냥 놔두고도 마음이 뭐, 한 찰나에 다른 혹성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관을 한번 지어서 잘해 보세요, 진짜로 믿고. 그러면 자기 주인공이 때로는 보디가드가 되고, 때로는 지장이 되고, 때로는 칠성이 되고, 때로는 허공신이 되고, 때로는 용신이 되고 그냥 당신이 필요한 대로 돌아가서 화하니깐요.

여러분이 다들 이 소리를 잘 들어서 행하신다면 우리가 도인 아닌 도인으로 사는 거죠. 알지 못하지만 행은 도인의 행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 머리 안 깎았다고 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산할 때에 머리를 깎는데,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저 덧없이 그냥 이렇게 자라는 풀들, 이거 깎아 버리고 원 하나만 남기려고 이렇게 머리 깎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고 나면 뭘 합니까. 깎고 나면 또 자랍니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림 · 최주현

이 깎고 나면 또 자란다. 또 자라면 마찬가지가 되는데 또 자라도 나지 않는, 머리가 나지 않고도 남이 있다면…. 그래서 함이 없이 하고, 또 머리 깎지 않으면서도 깎고, 깎으면서도 깎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깐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를 이해를 할 수 있고, 남을 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욕을 하는 것도 그 이해를 못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 차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은 공신이다, 부처님이 만 개라도 일 불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깐 어떠한 신이든지 그저 부처님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 꽃 이렇게 핀 거 보면 좋죠? 보기 좋죠? 이 우담바라꽃이라고 하는, 이 연꽃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왜 그렇게 뒀느냐.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깨달음도 그만 못지않게 아름다우니깐 바깥으로 내서 방편으로 그거 말씀한 겁니다. 꽃입니다, 그게. 마음의 꽃. 그래서 우리가 행을 잘하면 이 꽃이 날아다니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꽃이 뭡니까? 그냥 보살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허공으로 다니면서 찰나찰나 행하신다, 함이 없이 하신다 이겁니다.

화두 참선을 했었는데

질문 전에 어느 스님께 무 자 화두를 받고 화두 참선을 했었는데 진전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참선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지금 각 절에서나 신도 여러분이나 스님네들이나 다 각자가 큰스님한테 화두를 받아서 좌선을 한다 하는데 한번 이런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의 언어로 말한다면 "사대(四大)와 오온(五蘊)이 공(空)했는데 무엇을 가질 게 있고 놓을 게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말만 알았지 뜻을 모를 때는 안 것 그 자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작해서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스님이 화두를 줬다 그러면 이차적으로 '이 화두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삼차적으로는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고서 앉으나 서나 끊기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좌선을 해도 이것을 꼭 가지고 '뭣고 뭣고 뭣고' 하고 돌아갑니다. 자기가 스스로 벌써 공했기 때문에, 내가 공하고 세상이 공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마저도 공했고 내가 가질 것도 가진 것도 공해 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가질 게 하나도 없다는 그 점은 뭐냐? 내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침착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거를 나쁘다 좋다 해 왔고, 여러분이 다 움죽거리고 있고 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 못 하고 남한테 이끌려 가는 것도 바로 자기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준 화두, 바로 이것을 꽉 쥐고 굴리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일 초도 머무르지 않고, 그냥 머물렀다가 돌아가고 머물렀다 돌아가고 이것이 한정 없이, 어느 한군데 고정적으로 국한된 게 없이 전부 변천해 돌아가고 부서져 버리고 상해 버리고, 또 나는 만날 때마다 변하고 또 말할 때마다 딴 말 하게 되고 만날 때마다 딴 사람 만나서 딴 사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공했다는 얘깁니다. 갖가지로 소소영영하게 가지고 소소영영하게 하면서도 공했다는 얘깁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우리가 간다는 얘기죠. 놓고 간다는 얘깁니다.

그랬으니 항상 그릇은 비어 있다는 얘긴데, 마음으로 만들어서 지어 가지고, 문도 없고 걸릴 것도 없는 것을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그 큰스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것이 불법이다' 하는 걸 쥐고서는 그거를 놓질 못하고 가기 때문에, 되려 자기 마음이 자기 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지 못하고 닫지 못하는 그런 이치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참선이 어떤 것이 참선이냐. 참선은, 행선도 참선이요 좌선도 참선이요 입선도 참선이요, 모든 행 전부가, 일거수일투족 전부가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 '아, 결제가 되면 한 철 선방에 가서 나야지. 앉아서 좌선을 해야 그것이 으뜸이지.' 요렇게 변경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마음이. 육신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지고, 마음 떨어지면 코도 떨어지고 입도 떨어지고 다 떨어질 것을 뭐가 그렇게 쓸모가 있다고 그렇게 이 육신을 가지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 A18면으로 계속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신규프로그램

더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첫방송 3월 6일
불법(佛法)유턴
매주 (월)12:00, 20:30
(토)19:30


첫방송 3월 8일
죽음에서 배우는 삶
매주 (수)13:00, 20:30
(일)22:50


첫방송 3월 8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 자비도량참법
매주 (수)14:00, 22:30
(토)07:30


첫방송 3월 15일
아름다운 사람들
매주 (수)09:30, 21:30


첫방송 3월 16일
김지원의 스님, 계십니까
매주 (목)09:30, 21:30


첫방송 3월 14일
구구절절 주련 이야기
매주 (화)15:30 / (목)14:30
(금)23:25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믿는 것은 오직 자기의 깊숙한 마음, 그 주인공뿐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마음이 주인공에 모든 걸 일임을 시켜서 놓는다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편안한 반면에 반드시 내가 생각을 하면 바로 자가 되는 것이고 생각을 안 하면 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와 자가 둘이 아니니라' 하는 뜻은 '부는 자로 가면 자가 돼 버리고, 자는 부로 오면 부가 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고…, 참 그 도리를 안다면 어떠한 거든지 못 할 게 없고, 어떠한 거든지 주인공이 하는데 내 거라고 할 것도 없고 남의 거라고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는 내 것도 아니면서 전체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내 것이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일체 한생각에는 나도 건질 수 있거니와 남도 건져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능력이 바로 샘솟듯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로수가 돼서, 그 감로수로써 양식을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감로로써 양식을 삼는다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 중생이든지 남의 중생이든지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겨서 주인공이 모든 것을 내고 들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알지는 못하나 내 주인공이 전체를, 상하를, 전체 동서남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자 믿어지고 바로 거기에 어떤 여건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상응한다 이거죠. 그러면 '당신이 전부 하시는 거니까 당신이 이것도 해결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즉시 그것이 반영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성냥불을 탁 켜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냥불을 하나 탁 켰는데 왜 안 되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재판소에 가서 일을 하려면 서류를 꾸미고 도장을 맞고, 그게 다 끝나도 또 그 서류가 돌아서 통과가 되어야 해결이 나듯이,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그것이 즉시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되고 안 되는 것을 생각해서 여기 오는 게 아니라, 되고 안 되는 것을 다 놔서 능력을 기르려고 여기 오시는 겁니다.

선방에 가서 육신을 구부러뜨리고, 무릎 관절이 상하도록 앉아 있는 것만이 참선이 아닙니다. 그건 '앉아서 내가 참선을 해야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선을 하지 않는 거고, '참선을 다 했다.' 하기 때문에 벌써 그것은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선이 자꾸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백 날 천 날을 해도 아마 자기 부처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능력을 생활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체험하고 또 가다보면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마음의 사리가 온 우주를 덮고, 온 우주를 받들고도 온 우주를 둥글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서 바로 대장부인 것입니다. 그러니 참선이라는 게 어떤 종류의 것이 참선인가를 생활하면서 체험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일할 때나 변소에 가서도 자기가 있는 곳에 부처가 있고, 법당에 들어왔으니까 거기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조성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면 저 분도 코 있고 눈 있고 귀 있고 몸이 있습니다, 손 있고 발 있고. 여러분이 다 같이 둘이 아니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또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서 정중하게 몸으로써는 모든 걸 살펴서 계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하면서 옳게 생각을 하고 옳게 행을 하시면서, 또는 무위로는 마음의 주인공에 모든 것이 살고 죽는 거, 윤회가 되는 거, 인연이라는 것조차 또 시간과 공간 이런 모든 걸 놔 버리고 믿는다면, 거기서 다 하는 거니까 다 놔 버린다면 바로 그것이 참선으로 돌아가서 모두 나 아님이 없이, 내 자리 아님이 없이, 내 아픔 아님이 없이 돌아가는 그런 도리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전생 후생이 정말 존재하나요?

질문 우리가 윤회를 한다면 과거의 전생과 현생과 미래의 후생이 있다는 것인데 전생과 후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나요?

답변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물을 봐도 우리 인생의 진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전생이 있고, 전생이 없다면 지금 현생이 없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생과 현생이 없다는 것은 전생이 바로 지금 현생과 더불어 한데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심이 현재심과 동시에 합쳐졌다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아시면 전생이 반드시 있죠.

작년에 콩씨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심어서 콩나무가 난 거죠. 그걸로 비유를 해 두고요. 그런데 콩나무가 났기 때문에 콩씨가 또 열리죠? 그 콩씨로 인해서 콩나무가 나고요. 연방 되풀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콩나무가 자기라고 하기 때문에 콩씨는 여차가 된 거죠. 콩씨가 있는데도, 본래 콩씨가 자기한테 있는 것도 모르고 콩나무가 자기라는 겁니다. '콩나무가 자기라고 하지 말고 콩나무가 있기 때문에 콩씨가 있고 콩씨가 있기 때문에 콩나무가 있는 거니깐 둘이 아니다, 그러니 공했다,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가 일임해서 놔라, 믿어라, 물러서지 말라' 이러는데도 그걸 믿지 못합니다.

콩나무가 나라고 할 때는 바람에 맞고, 모든 것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으냐. 너무 끄달리기 때문입니다. 끄달리기 때문에 쫄쫄이가 되죠. 사는 데 그건 부자가 못 되고 아주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생활도 가난하고 육신도 가난하고 모든 게 가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자기에게 본래 창살이 없건만 마음으로 창살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에서 헤매고 돌죠.

그럴 때에 자기 마음으로 지어 놓은 업보가 바로 넝마의 차원이냐 금의 차원이냐 무쇠의 차원이냐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지어 놓은 그 업보의, 인연 지어 놓은 것이 깡통 인연을 지어 놨다면 깡통끼리 모여서 부딪칠 거고 넝마 인연을 지어 놓았다면 넝마끼리 모일 거고, 그리고 만약에 금의 인연을 지어 놨다면 금끼리 모일 겁니다.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금끼리 모이고 넝마끼리 모이고 깡통끼리 모이고 무쇠끼리 모이고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배운 것만치 자기 차원대로 전부 모이지 않습니까? 상인은 상인대로 모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행하고, 배우고 듣고 보고 이런 차원에 의해서 바로 우리는 오늘날 그대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식구로서 살면서도 그렇고, 깡통은 깡통끼리 모였기 때문에 소리가 분잡하게 나죠. 소릴 안 내려고 가만히 했는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말다툼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금이라는 거는 조그마하면서도 항상 속에다 지니기 때문에 말도 없고 부딪칠 필요도 없고 항상 몸에 지니지 않으면 장 속에 넣어 놓고 이러니 부딪칠 리가 없어요. 그것이 한 차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보이지 않는 데 마음으로 지어 놓은 것은 보이지 않게 받을 것이고 또는 보이게 육신으로 저질렀다면 육신으로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받는 것이지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것이 없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파악해서 잘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견성 성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공해서 돌아가되 자기가 지어 놓은 대로 깡통이 되려면 깡통이 되고 자기 마음먹는 대로 자기가 마음먹고 행하는 데에 달렸으니 전생 후생을 따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전생에서도 그러한 차원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태어나서 요렇게 차원대로 모였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어 놓은 것만치 가지고 탤런트처럼 팔자 운명이 거기 붙어 돌아가고 윤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전성' 하는데 아니 글쎄, 할아버지께서 목병을 앓아서 돌아가셨는데 아래 손주 대에 손주가 목병을 앓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차원이 깡통이라면 깡통끼리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 가정에 모인 인연들이 전부 깡통이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 만나서 보는 사람도 고고 당하는 사람도 고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있다 없다, 윤회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팔자 운명도 없을 것이고 유전성도 없을 게 아닙니까. 그건 왜? 자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지도 않고 있지마는 팔만대장경 법구경이 다 어디 있나.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바로 삼각원형을 이루고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다양하게 색색가지로 이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법구경 아닙니까? 그 법구경을 누가 이루고 다니나요? 자기가 바로 마음을 내서 이 생명과 육신이 움죽거리고 돌아가니까 삼각원형을 이루고 돌아가는데 우주의 섭리도 다른 혹성도 은하계도 모든 게 삼각원형을 이루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바로 샛별이며,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의 샛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성도 옷을 입고 있어요. 별성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별성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에 의해서 반사가 돼서 마음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반사를 이루고 또 그 보이는 모습으로 인해서 물에도 비치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의 근본인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가 있고, 낼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움죽거릴 수가 있고 또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고, 지혜로운 마음을 비춰 줄 수도 있고, 스스로서 보이지 않는 데 서로가 서로에 상응할 수 있고, 무수한 천차만별로 돼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들에게 서로 상응할 수 있고, 보이는 마음들하고도 같이 상응할 수도 있고, 모습하고도 같이 모이면서 헤어지고 헤어지면서 모이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세세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이 이치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하나하나가 만약에 지혜로운 마음이 없고 자기 깨달은 바가 없다면 모든 것이 겉돌아가고 항상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럴 겁니다.

저런 날아다니는 새들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옥수수밭의 옥수수도 내일 어떻게 될지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거늘,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찌 내일 일을 모르고 모레 일을 모르고 어저께 일을 몰라서 눈이 캄캄하고 귀가 먹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전생이 뭔지 후생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조차도 몰라서야 어찌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제자라고 하기 이전에 인간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믿는 것은 오직 자기의 깊숙한 마음, 그 주인공뿐입니다. 깊숙이 주인공을 진실로 믿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니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러니 바로 주인공, 내 주인공이 제일이지. 모든 그 마음이 공했을 때에 공생의 그 능력이 나에게 공심으로 돌아와서 공행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바로 그 액을 공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약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없는 액 자체의, 그 에너지 자체의 약이 있습니다. 무의 세계에서 공식하는 거, 유의 세계에서 공식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무의 세계에서도 물질이 보이지 않는 무체액, 그 자체가 바로 공해서 공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쓰시고 항상 주인공에서 나온 거, 공에서 나온 거 공에다가 놔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진실하게 깊숙하게 믿어 보세요. 싸움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굶었다고 배고플 것도 없고 내가 발버둥치지 않아도 바로 스스로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 저런 날아다니는 새들도 옥수수밭의 옥수수도
>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거늘
> 우리는 인간으로서
>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몰라서야
> 어찌 부처님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현불논단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법산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前 이사장

탐욕은 온갖 거짓을 만들고
거짓의 가면은 불행을 유혹한다.
유혹에 탐닉함도 탐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선정으로 마음을 살펴 탐욕의 탈을 벗어버리면
밝은 지혜로 거짓의 작란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여 거짓됨이 없으니 깨끗하다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 없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일으킬 까닭이 없으니 사람은 본래 모든 생명과 더불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원칙이다.

옛말에 '도(道)는 자연이다' 라고 하였다. 즉 이도는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며 어떠한 조작도 탐착도 없으므로 일체의 시비와 시기질투가 본래 없는 삶의 현상이다.

인간을 제외한 자연은 도법(道法) 자연(自然)이라는 이치 그대로 생성진화하기 때문에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오직 그 자연 속에 더불어 사는 인간은 그 순리를 거역하기 때문에 온갖 병폐를 스스로 만들어 그 거역의 과보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 치유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고 있다.

모든 인간의 염원은 행복한 삶의 추구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행복을 위한 실행이다. 인간은 그 현실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인간은 원시사회로부터 농경사회를 거쳐 오며 산업사회를 건설하여 삶의 질을 무한히 개혁하여 왔다. 현재도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끝없이 질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고, 또 행복은 돈과 권력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속고 속이며 시시각각 증가하고 있다.

특히 뉴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며 각종 언론 매체가 팽배하고 유튜브나 개인 방송까지 범람하면서 가짜뉴스는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방역백신이 없는 역병처럼 사회를 난타하고 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가짜 상품 기업투자 등 이익 추구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신성해야할 종교계나 교육 문화예술 내지는 정치판 까지도 가짜뉴스를 조작 유포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현상을 그냥 보고 한탄만 할 수는 없다. 현실 뉴스를 접하고 보면 이를 선도하고 있는 집단은 단연 국민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키고 있는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제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공중파 방송의 뉴스를 외면하고 유언비어나 유튜브 또는 난무하는 광고에 눈과 귀를 팔고 그냥 멍청하게 유혹되고 있다.

특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상생활화 되어있는 스마트폰의 각종 정보의 난무는 제어장치가 상실된 범람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누구를 탓할 것 없이 미래사회의 행복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정치 · 사회 · 교육 · 경제 · 종교 · 문화예술 등 각계각층에서 인간 본연의 청정한 양심을 일으켜 국민의 정서적 평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돈과 권력은 행복에 필수요건은 될 수 있으나 행복의 충분요건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적은 소득일지라도 만족할 줄 알고 서로 나누며 돕고 더불어 진실한 삶을 함께할 수 있는 소욕지족(少欲知足)으로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는 탐욕을 줄여가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뉴미디어 시대 진입 가짜뉴스 범람
방역백신 없는 역병처럼 사회 난타
난무하는 거짓 정보에 대중들 현혹

미래사회 행복 진정으로 원한다면
각계각층서 청정한 양심을 일으켜
정서적 평화 향유하는 방안 강구를
탐욕 줄여가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社說

'108원력문' 불교 포교 지침되길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담은 108원력문 초안을 대중에 공개했다. 대중 속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상월결사 정신을 담은 108원력문은 참회 일변도였던 기존 108참회문과는 그 결이 다르다.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라는 상월결사의 대의명제 아래 전법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신을 담았기 때문이다.

108원력문의 방향은 총 5가지로 △삼귀의 △사무량심 △삼법인 △사섭법 △사성제를 근간으로 △팔정도 △육바라밀 △십선업 등의 교리와 상월결사가 지향하는 실천불교, 사부대중 불교, 사회와 세상에 기여하는 불교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108원력문은 삼귀의로 시작된다. 팔정도 부분에선 '바른 생각으로 정당한 도리에 맞게 사유하겠습니다. 바른 언어로 진실하고 모두가 유익한 말만 하겠습니다' 등의 실천적 강령이 담겼다. 부다가야에서 이뤄진 21세기 전도선언을 실천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들이다.

'108원력문' 의 최종 완성본은 3월 23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리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식에서 공개된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전법 동력을 모으기 위한 실천강령으로서 '108원력문' 은 손색이 없다.

회주 자승 스님도 "원력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동안 108참회를 하면서 밭을 충분히 갈아놨기에 앞으로 스님들은 남은 수행기간을 씨를 뿌리면서 그 씨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자"고 108원력문을 활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통해 세워진 원력은 실천 동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그것은 우리 사부대중의 화두다.

동국대 혁신적 상상력으로 새도약을

3월 15일 종립학교인 동국대 제 20대 총장으로 윤재웅 교수가 취임했다. 취임식서 밝힌 그의 첫 일성은 '혁신적 상상력' 을 통한 학교의 변화 발전이었다. '혁신' 과 '상상' 이라는 단어 자체로만 보면 보통 조직의 CEO가 바뀔 때마다 밝히는 낯익은 키워드이다. 얼핏 두 단어를 조합해 보면 부조화 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윤 총장 취임사를 들어보니 다시 고개가 끄덕여 졌다. 사회 · 경제 환경은 급변하지만 미래는 불투명하기에 이제 부터는 우리 안의 가능성을 믿고 내부서 부터 먼저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존 패러다임 파괴인데, 그것이 바로 '혁신적 상상력' 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 말을 빌리면 창의적 아이디어는 경직되고 권위적인 문화에서 나오지 않으며, 창의와 도전 정신에 기반을 둔 탈 권위의 부드러움은 조직에 새 생명력을 불어 넣어 대학을 보다 기품있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동국대를 창의성이 살아 숨쉬는 조직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즉 다시 말하면 유연한 조직문화에서 혁신적인 상상력과 창의력이 나온다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학교 조직을 생각할 때면 딱딱하거나 경직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이 재원 마련과 학생수 감소, 취업률 저하 등의 문제로 위기에 봉착돼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탈출구가 쉽게 안 보인다는 의미이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윤 총장의 '혁신력 상상력' 공약은 신선하게 들린다. 특히 윤 총장은 '혁신적 상상력' 을 △창의와 도전 △개방과 협력 △디지털 전환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통해 발현시킬 것을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의 청사진대로 자신의 모교를 획기적 변화로 이끌며 새도약의 초석을 다지는 명장이 되길 기대한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봄빛을 찾아서

봄빛이 그립다. 창밖은 햇살로 눈부시지만 바람은 창문을 부숴버릴 듯 으르렁거린다. 그 매서운 소리에 나도 모르게 책상 위의 널브러진 책들로 시선을 돌린다. 이 책, 저 책 펼쳐보아도 눈길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찾아 헤매는지 책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그때 세상의 눈길을 피해 조용히 숨어사는 은둔자처럼 책 한 권이 책장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꺼내 들었다. 중국 한시(漢詩)들의 모음집인데, "왜 종일토록 봄을 찾아 산속을 헤맸을까?"라는 오도시(悟道詩)에 마음이 머물렀다.

종일토록 봄 찾아 헤맸으나 봄은 보지 못했네(盡日尋春不見春)/ 짚신 헤지도록 산봉우리 구름까지 뒤졌건만(芒鞋踏破嶺頭雲壟)/ 집에 돌아와 미소 지으며 매화 향을 맡으니(還來笑拈梅花嗅)/ 봄은 이미 가지 끝에 잔뜩 담겨 있었네(春在枝頭已十分)

남송 시대 나대경의 〈학림옥로(鶴林玉露)〉에 나



그림 · 최주현

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비구니의 오도송이다. 그는 봄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 온 산하를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니 봄이 바로 집안 뜰에 있는 매화나무 가지에 이미 와 있지 않은가. 그렇게도 애타게 찾았던 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었다.

모든 것이 그러하다. 소중한 사람이나, 행복은 늘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멀리서 찾으려 한다. 진리 역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비구니도 부처를 찾아 헤맸다. 그는 진리의 세존봉을 오르기 위하여 53선지식을 찾아 헤맸던 선재동자처럼 칼산을 오르기도 하고 불구덩이로 뛰어내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얇은 베일 너머로 부처가 어른거릴 뿐, 그 거추장스러운 베일은 도무지 벗겨지지 않았다. 그만 탈진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세존봉에서 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눈앞에서 너울거리던 베일이 벗겨지고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다.

세상은 온통 봄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설산에서 흘러내린 물소리도 봄이요, 들판을 가득 메운 야생화도 봄이요, 꽃에 내려앉은 나비도 봄이요, 풀도 봄이요, 흙도 봄이었다. 일체가 봄이다. 봄이란 말 대신에 부처라 해도 마찬가지다. 일체가 부처인데 새삼스럽게 어디에서 부처를 찾아 헤맨다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이미 불성이 깃들어 있는 것을. 봄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만화로 보는
불교명상 길라잡이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豫修齋儀範 예수재의범
예수재의범
예수재의범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 강해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식

한국불교 중흥과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위대한 여정을 회향합니다.
1700년 한국불교사에 거대한 이정표를 세울
역사적인 현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67(2023)년 3월 23일(목) 오후 1시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우정국로 일원)

| 참석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사부대중

대한불교조계종



霜月結社 인도순례 43일 회향

특집 현대불교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제 1428 호 B1



한국불교 중흥 올때까지 걸음 멈추지 않겠다

다시, 길 위에서 새 날을 맞는다. 우리는 부처님의 땅에서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화두를 품고 뜨거운 길을 시작했다. 회향을 앞둔 오늘, 마음마다 뜨거운 눈물이 고인다. 걸어온 이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을 나눈다. 부처님의 땅에서 우리 불교의 앞날을 모색한 지난 43일이 중흥의 시작이길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오늘, 회향을 맞으며 다시 서원한다. 회향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중흥을 위해 걷는다는 것은 그날이 올 때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그날이 올 때까지 한 생각으로 사는 것.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듯 중흥의 시절이 올 때까지 걷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내일을 걸고 시작한 인도순례의 회향을 맞으며 다시 발원한다. 가섭의 마음으로, 아난의 마음으로, 한 점의 의심 없이 처음 자리로 돌아간다.

글=박재완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상월결사 원력, 불교중흥 동력으로 이어가자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後 과제는


부처님 탄생성지 룸비니로 나아가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회주 자승 스님과 단원들.

2023년 2월 11일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하신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시작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발걸음이 벌써 3월 20일 전법의 도시 슈라바스티 기원정사에 이르러 회향의 대단원을 앞두고 있다.

80년을 재세(在世)하신 부처님의 생애, 45년에 걸쳐 부처님이 걸으셨던 전법교화의 길을 따라 부처님의 발자국 한걸음 한걸음을 놓치지 않고 되새기려 애쓰며 좇아온 1167km의 순례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부처님이 걸으셨던 길, 그 길을 따라 한걸음 한걸음에 '생명존중'의 일념으로 쌓은 공덕의 여정이 이제는 새삼스럽지 않다. 익숙해진 그 발걸음에 한마음으로 서원을 일으켜 다짐한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법의 첫걸음입니다."

사실 원력의 시계는 더 일찍 시작됐다. 2019년 11월 11일, 산중한처(山中閑處)가 아닌 위례신도시 한가운데서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가 시작되었을 때, 이미 중생 곁으로 다가가기 위한 불자들의 새로운 정진이 시작되었다. 혹한의 겨울 동안 비닐천막 안에서 행해진 아홉 스님의 결사가 그 새로운 정진의 첫 불씨였다.

2020년 10월 7일, 대구 동화사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지친 뭇 생명들의 고단함을 달래기 위한 자비순례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일, 한국불교가 잊어버리고 잊던 전법의 DNA를 되살리기 위한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시작돼 지리산 화엄사와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불보종찰 통도사에 이르렀다. 그 동안의 한걸음 한걸음이 모여 부처님의 자취, 부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되새긴 1167km의 순례로 결실의 한마디를 이루었다. 부처님이 새기신 생명존중의 길을 가슴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다.

그래서 시작이다. 지금이야말로 전법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의 발걸음은 깨달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깨달음은 중생의 고통을 올곧게 직시하고, 중생이 고통받는 원인을 올곧게 직시하고, 중생이 마땅히 안락해야 하는 존재임을 올곧게 직시하고, 그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올곧게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자각이었다. 뭇 생명은 한 생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마땅히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져야만 한다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전법의 시작이었다.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발걸음이 오늘의 인도순례였기에, 부처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한 생명 한 생명에게로 향한 절절함이란 것이 새롭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순례를 마친 오늘의 마지막 발걸음이, 내일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지 않는 간절함의 첫걸음으로 거듭날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 일으켰던 본래의 서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서원이 성취되는 구체적인 발걸음을 준비할 때이다.

한국불교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산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전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흔히 전법의 위기라고 하면, 출가자가 감소하고 불자가 감소하는 등의 위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위기일 뿐이다. 정말 중요한 위기는 불교가 출현하고 흥성했던 본질적인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부처님의 전법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당신의 한걸음 한걸음에 일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담았기 때문이었다. 지난 1800년 동안 한국불교가 면면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배경도 마찬가지이다.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생명존중이라는 불교의 본질을 역사의 전면에 되살려 내었기 때문이다.

1800년 동안 한국불교는 생명존중이라는 본연의 정신을 내적으로 쌓고 외적으로 표현해 왔다.

그 결과물이 불교문화이다. 문화재로 꽉 채워진 사찰이 아니라, 그 사찰에 아로새긴 부처님과 스님들의 정신이 바로 불교문화의 본질이고, 그것은 생명존중을 본연으로 하는 공동체 정신이다.

한국불교가 지난 1800년간 축적하고 이어온 생명존중의 공동체 정신, 그것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로 기록되고 기억되어 창고에 쌓여 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말하지만, 세상의 본연은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한국불교의 역사 속에서 큰 스님들이 그러했듯이, 온전한 생명존중의 그 정신을 꺼내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부처님 향한 간절한 발걸음으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43일 장정
생명존중의 공동체 정신 되짚어

룸비니 여정서 공개 '108원력문'
나아가야 할 '전법의 길' 상기해
누구나 공감하는 서원들을 모아
불교중흥 이끄는 게 우리의 과제

따라서 이제 시작되어야 할 전법의 길은 생명존중의 전통을 역사와 문화 속에서 되짚어 내고, 사람들 사이에 펼치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레 녹아들도록 하는 길에 다름 아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부처님의 성지를 두 발로, 온몸으로 순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는 큰 계기를 일깨웠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계기를 통해 순례단이 가졌던 서원, 보여준 서원, 순례단이 함께했던 공감대, 그것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콘텐츠를 확보할 때일 것이다. 다행히도 상월결사의 천막결사와 자비순례 그리고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일깨워서 살려내야 할 한국불교 역사 속의 콘텐츠를 이미 제안하고 있다. 콘텐츠라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번 인도순례는 그러한 불교콘텐츠들의 정점을 확인하고 각인시킨 사건이다.

한국불교는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보물창고이고 생명존중의 길을 걸었던 인물과 역사의 보물창고이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제대로 꺼내어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을 꺼내어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경험하는 보물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뭇 생명의 고통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수행자는 우리 불교 역사에 없었다. 뭇 생명의 고통을 일깨워 안락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했던 불자도 우리 불교 역사에는 없었다. 그러한 수행자, 그러한 불자들이 1800년 동안 만들어온 생명존중의 보물창고가 바로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콘텐츠들이다. 이제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현대화하고 쉽게 활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자비순례부터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거쳐 인도순례에 이르는 상월결사의 순례길은 그러한 콘텐츠를 순례하고, 새롭게 되살리는 모색의 길이었다. 한국불교 중흥을 향한 미래 모색의 순례길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제는 그 발걸음이 오늘 힘들어하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 무엇을 제공하고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옮겨가야 할 때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의 모색을 쉽게 하고 정형화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역사문화콘텐츠들이다.

이미 종단과 동국대학교를 비롯하여 개별사찰에 이르기까지 상월결사 정신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여 불교중흥의 미래를 위한 행보에 동참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 불씨가 불길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신행과 수행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축적되어 불교 중흥의 역사로 이어질 것이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순례 34일차인 3월 14일 부처님의 탄신지인 룸비니에 도착해서 상월결사의 원력과 전법의지를 담은 '상월결사 108원력문'에 맞춰 108배를 했다고 한다. 108참회가 아니라 108원력이다. 참회가 아니라, 이제는 원력을 담아 전법과 중흥의 길에 오롯이 서겠다는 다짐을 담았다고 한다. '상월결사 108원력문'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한다.

"부처님, 온 세상의 마음에 계시는 부처님, 저희를 존엄한 생명으로 받아주셨으니, 오늘도 신심과 원력을 세워 생명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절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을 마땅히 안락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신 곳에서, 생명과 세상의 평화를 원력으로 새롭게 세운 것이다. 삼귀의로 시작해서 전법의 다짐으로 마치는 108원력문에서 유독 눈에 뜨이는 한 구절이 있다. 바로 107번째 원력문이다.

"불법 만난 인연, 모든 생명을 축원하며 보답하겠습니다."

당연한 한마디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연해야 할 그 당연함이 성취되지 않았기에, 당연해야 할 그 당연함에 동참하지 못했기에, 우리 한국불교가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한국불교가 1800년 동안 축적해온 역사와 문화의 콘텐츠들은 그 당연해야 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정형화된 결과물들이다.

'상월결사 108원력문'은 그 정형화된 역사와 문화의 결과물을 가장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로 축약한 새로운 콘텐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끄는 이가 있고, 따라가며 동참하는 이들이 있고, 고개를 들고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하나 둘 생겨난다. 중흥의 원력은 먼 것으로만 보이지만, 1167km를 단숨에 한걸음으로 걸은 것이 아니듯이, 중흥에 도달하는 길 역시 수백만의 걸음을 필요로 한다. 때로는 그것이 한 사람의 수백만 걸음이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수백만 명의 한 걸음이 모인 것일 수도 있다. 당연히 한 사람이 수백만 걸음을 걷는 것보다, 수백만이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더 쉽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 수백만이 동참하여 한 걸음을 함께 내딛을 수 있는 구체화되고, 누구나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서원이. 그리고 그런 서원의 결과가 하나 둘 모여 불교중흥의 서원을 결과로 성취해 낼 것이다. 따라서 더 구체적이고 더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서원을 세우고 원력들을 모으는 작업, 그것이 인도순례 이후 우리 불교에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석길암 /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교수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禪)·교(敎)·율(律) 차(茶)와 범패(梵唄)의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총림 雙磎寺

사부대중일동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전화 : 종무소 055-883-1901 www.ssanggyesa.net



“대중 속으로 나아가라”…전법 원력 견인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43일 순례 법문 · 어록들

정리=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을 이끈 회주 자승 스님은 순례 진행 과정에서 마이크를 잡고 수차례 소찬 법문을 설했다. 때로는 한국불교에 따끔한 경책을 내렸고, 순례 대중을 따스하게 격려했다. 인도 현지 주민들에게는 “우리는 친구”라며 스스럼없이 다가갔다.

2월 10일 “포교만이 살 길”

자승 스님의 첫 법문은 2월 10일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였다. 이날 스님은 유적만 남은 부처님 성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전법 ·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순례의 목적이 바로 전법 원력을 추인하는 데 있음을 밝힌 것이다.

자승 스님은 “이 자리가 기독교 성자의 자리라고 하면 과연 유적만 남아있을까, 우리가 순례하는 8대 성지는 유적만 남아 있다”며 “그렇다면 1700년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과연 어떨까. 문화재이기에 조금은 다르겠지만 20년 후면 이 같은 유적처럼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스님은 “늘 포교 만이 우리 종단의 살길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며 “순례를 지켜보는 불자들이 신심을 내고, 그 신심을 낸 불자들이 이웃종교인, 무종교인을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한국불교 중흥이자 순례의 의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인도순례에 참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신청한 순간부터가 바로 순례이며 수행”이라며 “우리의 순례는 2월 9일 종정 스님을 증명으로 고불문을 올릴 때부터 시작됐다. 매 순간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자”고 말했다.

차별없는 순례 정진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자승 스님은 “순례단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을 비롯해 주요 사찰 주지 스님 등 어떻게 보면 편하게 신도들에게 대접받을 위치에 있는 이들이 모두 평등하게 함께 하고 있다. 사회에서 위상있는 재가자들도 마찬가지다”며 “여기서는 자승도 똑같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걷고, 똑같이 자며 차별이 없고, 청규와 질서를 지키고 배려하는 순례로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2월 11일 21세기 전도선언 선포

2월 11일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봉행된 인도순례 입재법회에서 자승 스님은 ‘21세기 신(新)전도선언’을 선포했다.

자승 스님은 “수행자들이여, 법을 전할 때 남에게 존경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자기만의 공덕으로 삼으면 이 또한 법을 먹고 사는 아귀와 같으니 그러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길을 나서라”며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인간의 이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고 선언했다.

스님은 이어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우며, 말과 내용을 갖춘 가르침을 설해라. 완전히 이뤄지고 두루 청정한 삶을 널리 알려라”라고 밝혔다.

2월 19 · 20일 “훗날 진리 불꽃으로”

자승 스님은 항상 불교중흥을 위해 ‘불교 인연(佛緣) 맺기’를 강조했고, 이는 부처님의 나라 인도로도 이어졌다. 연일 신기한 눈으로 저녁예불을 바라보던 인도주민들은 현지 통역가의 예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처님께 함께 예를 올렸고, 이를 지켜본 회주 자승 스님은 “이 인연이 훗날 진리의 불꽃을 피워 올릴 것”이라고 축원하고 대기설법을 설하기도 했다.

2월 19일 엄어와 마을에서 이뤄진 저녁예불 이후 자승 스님은 마이크를 잡고 운집한 500여 마을 주민들에게 설법했다.

자승 스님은 “이곳은 부처님 나라, 진리의 땅이며 부처님 후손인 여러분을 만나러 저희들이 여기에 왔다”며 “이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의 피가 흐르는 후손들이 훗날 3000년 전 부처님이 계셨던 그 시절로 진리의 불꽃을 피워올릴 날이 꼭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회 필요없는 불교가 무슨 소용”
따끔한 경책부터 현지인 포용까지
순례 여정동안 ‘전법’ 중요성 강조
인도 현지 佛緣맺기 효과로 이어져
“중생 속으로 떠나라” 전도 선언도



2월 22일 부다가야 마하보디대탑에서 봉행된 법회에서 자승 스님이 봉행사를 하고 있다.

자승 스님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 통역가의 입을 통해 힌두어로 주민들에게 전해졌다. 의식마다 함께 합장하고 동참했던 주민들은 자승 스님의 말에 박수를 쳤다.

스님은 “우리는 부처님의 후손들을 만나기 위해 43일간 계속 걸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와 함께 부처님께 예를 올린 이러한 소중한 인연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꿈이 부처님 가피로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린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이날 순례 공덕을 인도주민들에게 회향했다.

2월 20일에도 자승 스님은 카파시아 마을 주민들에게 대기설법했다. 스님은 이날 저녁예불 후 어린아이들과 교육받지 못한 이들을 배려해 보다 쉬운 용어로 설법했다. 그만큼 쉽게 알아들은 인도주민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우리가 합장한 이유는 순례하는 대중들과 여러분이 서로 교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작게는 이 자리에 교감을 갖는 것이지만 크게는 대한민국과 인도가 친구가 되고자 하는 교감을 함께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친구’입니다.”

자승 스님의 설법은 부처님에 대한 찬탄과 인도주민들과 부처님의 인연, 그리고 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축원으로 이어졌다.

“부처님은 위대한 성인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조상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인 중의 성인,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처님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이곳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순례단의 방문과 자승 스님의 설법으로 불연을 맺게 된 주민들은 부처님 광명이 내리는 가운데 다시 만날 날을 기원했다.

2월 22일 “간절하면 중흥 이뤄진다”

2월 22일 부다가야 마하보디대탑에서 봉행된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자승 스님은 무명초를 제하고 대중 앞에 섰다. 그리고 장군죽비 같이 준엄하게 한국불교 불자들에게 필요한 발언을 이어갔다.

“우리가 안일하고 방일할 때 한국불교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늘 포교만이 한국불교의 살길이며, 포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오신 분들이 걷고 있는 마음 마음 속의 느낌이 진실하고 간절하면, 한국불교 중흥은 이루어 질 것이고, 하나의 관광유적지로만 보고 그런 느낌으로 간다면 한국불교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자승 스님은 수많은 꽃과 공양물로 장엄된 사원의 모습을 역으로 ‘참담한 현실’이라고 표현했다. 스님의 말 속에는 한국과 인도의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느꼈던 민중 속의 불심과 달리 관광지화 되고 있는 성지를 지켜본 수행자로서의 마음이 드러났다. 신행의 터전이 아닌 문화재로서의 가치로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는 한국불교 미래 위기의식도 섞여 있었다.

자승 스님은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발심하기를 기원한다”고 대중을 당부하며 말을 끝맺었다.

2월 26일 “사회 기여하는 수행자돼야”

순례 과정에 순례단원들이 안일해지면 자승 스님은 서릿발 같은 경책을 내렸다.

출가재일을 앞둔 2월 26일, 자승 스님은 저녁예불 이후 대중들에게 법문을 설했다. 오래 전 읽은 한 칼럼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 자승 스님의 경책은 단지 순례단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전체로 향하고 있었다.

자승 스님은 “불교의 비구, 비구니도 사회 어렵고 힘든 곳에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 수행자들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에 필요하지 않는 불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열심히 기도한들 현재 사회는 스님들이 줄던 말던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승 스님의 경책은 이어졌다. 스님은 “우리는 사찰을 지켜나갈 후손들이 필요하지만 사회에서는 어둡고 힘없는 곳에 돌봐줄 손길이 절실하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있다”면서 “우리들의 안일함이 잘못이다. 출가하고 여러 인연으로 인해 주지하는 사람은 주지하면서 근심걱정 없이, 선방에서 정진하는 사람은 한철 보내며 근심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경책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사회는 불교에게 바라는 게 없게 됐다. 이를 타개하려면 사회에 기여하는 수행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의 말 속에는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불교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출가자로서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자승 스님은 “출가재일을 앞두고 우리 순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3월 14일 “사부대중이여 떠나라”

자승 스님은 초전법륜지에서 선언한 21세기 전도선언에 구체적인 방향을 전하기도 했다. 3월 14일 대성석가사에서 자승 스님은 동화사 신도들을 비롯한 대중들에게 전법에 대한 정언명령을 내렸다.

자승 스님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45년 동안 요즘 표현으로 포교만 하셨다. 열반 이후에도 제자에게 두 발을 보이시고, 또 다비를 통해서 여덟 나라에 사리를 분배하면서 마지막까지 부처님 법을 전했다”고 그 목적에 대해 전했다.

이내 자승 스님의 법문은 전법이 부재하며 외형적 불사에 치우쳐진 한국불교 현실에 대한 경책과 참회로 이어졌다. 스님은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불교는 부처님 법을 전하기보다는 불사하는 일에 집착하고, 시원한 여름에 모시옷 빳빳이 다려서 입는다”며 “거들먹거리고 폼생폼사 하는 이런 불교의 시대는 끝났다”고 지탄했다.

회주 스님은 이와 같은 현실에서 불자 · 비불자를 떠나 ‘국민’, 그리고 ‘사회’, 또 ‘사부대중’이란 방향을 제시하며 전도법문을 갈음했다. 자승 스님은 “국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사회 속으로, 중생 속으로 사부대중이 떠나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며 “사부대중이여 떠나라”고 외쳤다.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

사부대중일동

주소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055)934-3000 Fax 934-3010 www.haeinsa.or.kr





처음도 끝도 '전법'… 붓다의 길을 되새기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43일 여정

정리=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167km, 43일.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은 부처님이 태어나 정각을 이루고, 전법하고, 완전한 열반에 이룬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한 때 70명이 치료받을 정도로 엄중한 상황도 있었지만, 순례단은 오로지 신심과 원력으로 나아갔다.

2월9~22일 깨달음에 이르는 길

시작은 '전법'이었다. 2월 9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고불식을 마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인도로 날아가 초전법륜성지 사르나트로 향했다. 부처님 성지 중 전법의 수레바퀴를 굴린 사르나트를 시작점으로 잡은 것은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목적이 '전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순례단은 2월 11일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순례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재식에서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전도선언'이 발표됐다. 회주 자승 스님이 직접 낭독한 전도선언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수행자들이여, 인간의 이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둘이 가지 말고 홀로 가라.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우며 말과 내용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라."

21세기 전도선언 이후 순례단은 1167km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여정은 전도 이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부다가야로 향했다. 사르나트에서 부다가야까지는 297km. 순례단은 새벽 3시면 기상해 평균 26~27km를 매일 행선했으며, 저녁예불을 하고 개인 수행을 진행했다. 매 순간이 수행이 아닌 적이 없었다.

순례 시작 13일차인 2월 21일 순례단은 부처님 정각성지인 부다가야에 도착했다. 부다가야에는 순례단의 원만회향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불자 100여 명이 찾아 순례단을 환영했다. 2월 22일 부다가야 마하보디대탑에서는 세계평화기원법회가 봉행됐다. 법회에 앞서 순례단은 삭발과 목욕재개로 몸과 마음을 정돈했다. 무명초를 제한 스님들의 모습에서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이날 순례단은 불교중흥의 서원을 담은 발원문을 발표했다. 대중은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순례 공덕이 있다면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전법교화에 들뜨도록 용기와 기회를 주시고, 모두에게 평화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다가야에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발원합니다"라고 부처님께 발원을 올렸다.

2월 23~26일 설법과 구법의 길

부다가야를 출발한 순례단은 위대한 법왕(法王)의 도시 라지기르로 향했다. 부다가야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 카사파 형제를 비롯한 1000명의 비구와 함께 마다가국으로 향했던 그 길을 순례단도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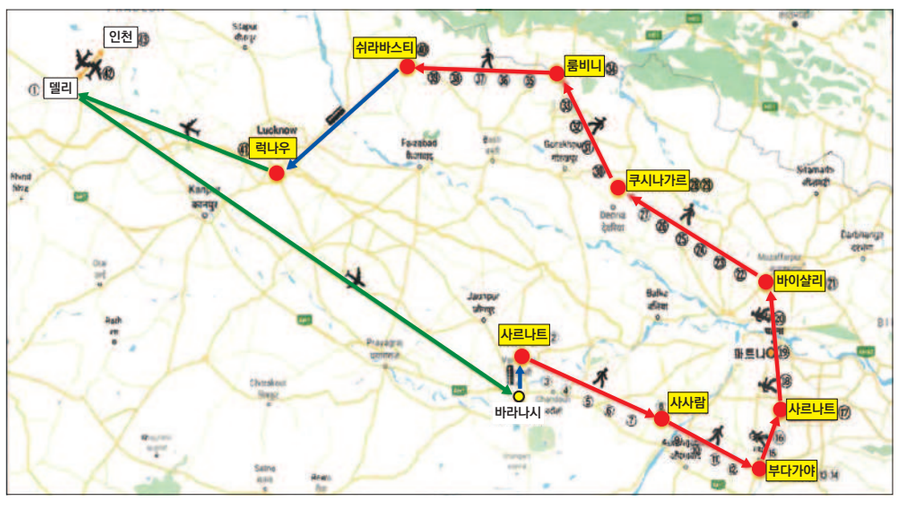
순례단은 2월 25일 불법이 융성하게 일어난 마가다국 수도 라지기르에 도착해 영축산에 올랐다.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신 그곳에서 순례단은 〈법화경〉을 봉독했다.

"단지 방편으로 갖가지 길을 보여주었을 뿐이니, 불자가 자기에 맞는 도를 행한다면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대중을 위해 이 법화의 가르침을 두루 설해야 하느니라."

이날 영축산 향실에서 행선을 회향한 순례단은 죽림정사를 보시하는 등 불교를 후원한 빔비사라왕이 아들에 의해 감옥에 갖히고도 영축산을 바라보던 터를 둘러보고 죽림정사로 향했다.

죽림정사에서 사리풋다와 마하목갈라나, 마하카샤파 등 뛰어난 제자들이 귀의했고 계율이 제정됐다. 그 불제자들의 가르침도 새기며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은 고개를 숙인채 조용히 묵언 속에서 정진을 이어갔다.

2월 26일에는 수많은 구법승이 오롯이 부처님법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향했던 날란다 대학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한 순례단은 현재 불교전문대학으로 위상을 가진 나바 날란다대학에서 아침공양을 받기도 했다.



2월 27~3월 9일 열반에 이르는 길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신 뒤 부처님은 열반을 위한 여정을 이어갔다. 순례단의 발걸음도 완전한 열반을 위해 길을 나서신 부처님의 궤적을 좇았다.

열반로드 첫 번째 도착지는 바이샬리였다. 이곳에서 부처님은 마지막 안거를 보내시고, 대중에게 '3개월 후 열반에 들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리고는 계정혜 삼학을 닦을 것을 당부하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을 설하셨다.

3월 1일 순례단은 바이샬리에 도착했다. 바이샬리 회향지에 부처님전에 올린 발원문은 순례단의 서원을 담아냈다.

"불법의 중흥은 세상을 이익되게 함에 있고, 우리 모두의 이타 실천행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여지이다. 온 세상이 투쟁과 갈등, 다툼가 불화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또한 순례단은 역병을 정화하신 부처님에 감화한 이들이 보시한 대림정사터를 참배했다. 여성출가의 상징이며, 아난존자 스투파와 아소카왕석주 등도 함께 있는 이곳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소회를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순례 28일차인 3월 8일 부처님 열반지인 쿠시나가르에 도착한 순례단은 다음날인 3월 9일 부처님 열반당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인도순례길에 오른지 29일차, 누적거리 총 689km, 인도 현지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순례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환희로움으로 가득 찼다.

이날 법회는 부처님께 그 마음을 담은 가사를 올리는 열반당 참배로 시작됐다. 자승 스님은 직접 '한국불교 중흥발원'을 쓴 금란가사를 부처님 열반상에 공양 올렸다.

정근 후 열반당 앞으로 자리를 옮긴 순례단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훈을 함께 낭독하며 부처님께 불교중흥의 대장정을 다시 시작함을 고했다.

순례단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인간적인, 부모님 같은 유훈을 가슴깊이 새긴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온 순례단과 불자들은 먼 곳에 있더라도 부처님과 함께 심장 뛰기를 발원한다"며 "이 순례공덕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전환점이 되길 발원한다. 수행하고, 봉사하며, 생활불교, 자립불교, 세상에 이익을 주는 한국불교가 되길 발원한다"고 다짐했다.

3월 10~14일 부처님이 나투신 이유

부처님 열반성지를 떠나 순례단이 나아간 곳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룸비니다. 수많은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부처로 태어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부처님은 도솔천에 머물다 마야 부인의 몸을 통해 지상에 왔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 위에서 태어났을까.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순례단은 네팔의 룸비니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순례 34일차인 3월 14일, 순례단은 네팔 룸비니 마야데비 사원에서 불교중흥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순례단은 다시 한번 생명존중과 평등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3월 15~23일 다시 전법의 길로

룸비니 법회 이후 자승 스님 룸비니 대성석가사에서 이 같이 법문을 내렸다. "국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사회 속으로, 중생 속으로 사부대중이 떠나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 사부대중이여 떠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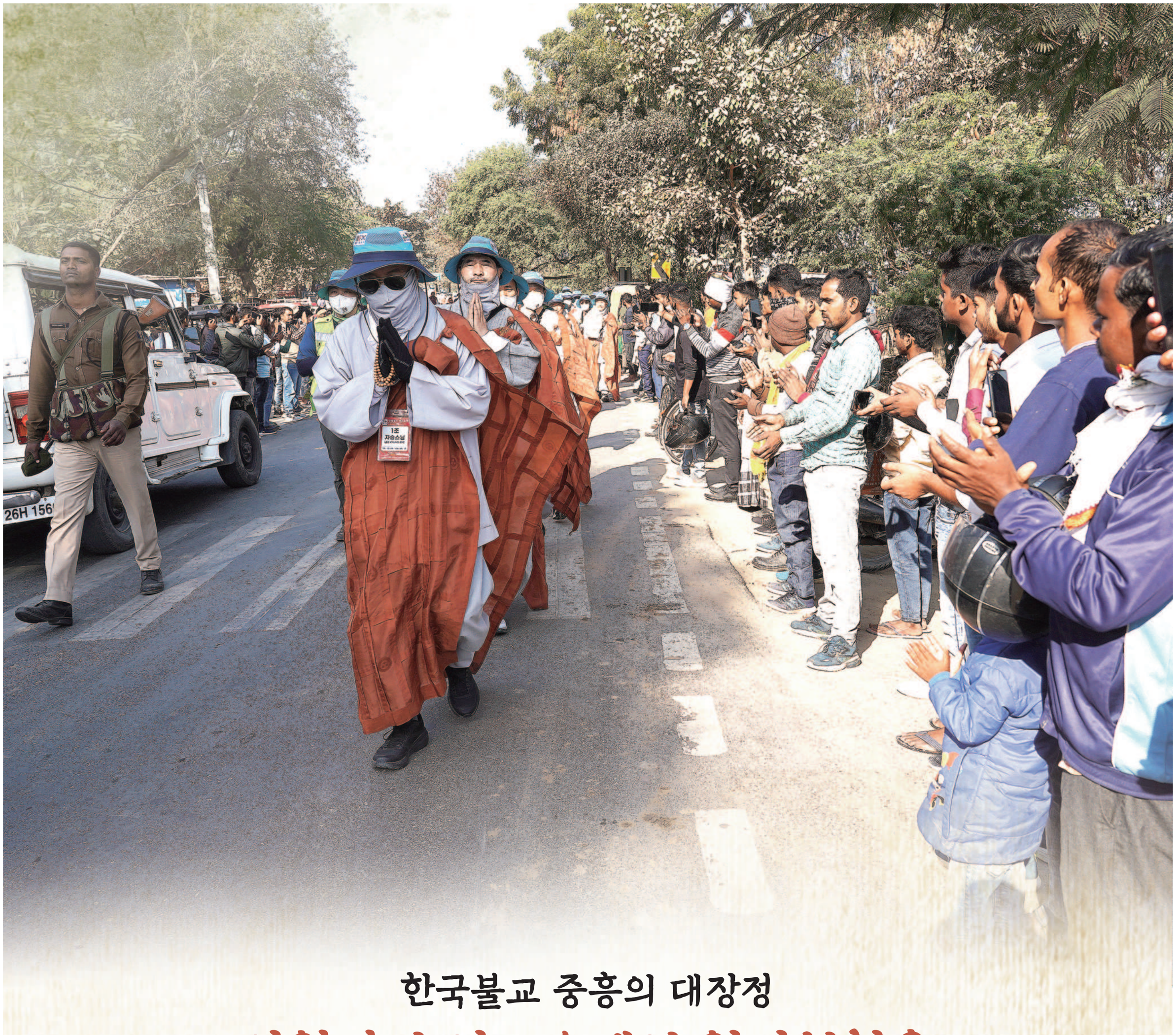
순례를 처음 시작했던 초전법륜지에서 21세기 전도선언의 구체적 방향성이 이 법문에 담겼다. 불교중흥의 원력을 담아 전법의 길로 나서라는 스님의 가르침이자 당부다. 순례단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바로 쉬라바스티의 기원정사다. 수닷타 장자와 제타 태자의 보시로 건립된 기원정사. 이곳에서 부처님은 25년 가까이 안거하며 900번 이상 법을 설하셨다. 가히 전법의 도시라고 할 만하다.

쉬라바스티 기원정사 향실 옆 광장에서 순례단은 인도순례를 마무리하는 회향식을 3월 20일 봉행했다. 공식적 회향은 3월 23일 오후 1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회향이지만, 순례단은 전법의 도시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전법의 의지를 되새기며 순례를 마무리했다.

간화선의 수행 경지를 표현하는 '심우도'의 마지막은 '입전수수(入廛垂手)'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중생 제도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전법'을 통한 '중생 제도'는 곧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신 뜻이자 정언 명령이다. 순례의 끝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것은 전법의 원력이다.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일동

붓다로드 순례 대장정은 '환희심' 그 자체…

사진으로 본 인도순례 43일

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길을 나서면 우리는 안온한 안식처를 벗어나 탁 트인 세계로 나아간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길을 떠난다. 태어나 살고 죽는 모든 여정이 바로 '길'이다. 그 일부나마 부처님이 거쳐 간 길을 함께해보는 것은 다시없을 경험이다. 안온한 집에서 가족에게 작별인사를 건네고, 상월결사 인도순례 고불법회가 진행되는 조계사로 가는 마음이 그러했다.

고불법회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순례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동거동락한 학우의 인도순례를 응원하기 위해 나온 대불련 법우들부터 스님을 보내는 신도들의 아련한 마음까지 모두 전해졌다.

멀리 양산에서 새벽 법회 법문을 위해 올라오신 성파 조계종 종정 예하부터 전날부터 자리를 깔고 준비한 불자들까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상월결사를 이끄는 회주 자승 스님을 시작으로 순례단은 각오를 다시 다졌다.

인도까지 비행시간만 8시간 30분. 비행기는 중국 영공을 통과해 티베트 고원을 넘어 인도 뉴델리로 향했다. 신기하게도 구름 위로 머리를 내민 에베레스트를 우측에 끼고 인도 상공에 진입하자 기내에는 햇빛이 가득했다. 순례단의 앞에 부처님 광명이 비추는 듯했다.

인도=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그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으며 수행 정진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43일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순례단이 묵을 텐트를 정비하고 있다.



갠지스강을 거슬러 오르는 배위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 순례단 스님의 모습.



2월 10일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사르나트 녹야원을 참배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법문이 있었다.



순례단이 부처님 다비장에 세워진 라마바르 스투파에 행선 도중 받은 꽃과 준비한 지화 등을 공양 올린다.



2월 20일 저녁예불에는 1천여 인도주민들이 참석했다.



한국불교 중흥발원을 담은 금란가사를 부처님 열반상에 공양 올린 순례단이 순례 의미를 되새기며 부처님 앞에서 발원하고 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인도순례단이 저녁예불을 올리고 있다.

43일간 현지 주민들과 순례단은 '일심동체'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3월 12일 브렛터와 마을에서 종교를 초월하여 마을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열린 법석을 폈다. 사진은 순례단과 인도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사진으로 본 인도순례 43일

행선을 거듭하던 순례단이 멈추는 때가 있다. 바로 마을주민들이 공양을 올릴 때다. 행선을 시작한 순례단이 첫 휴식 장소인 바자하 마을에서는 새벽 3시부터 분주함이 느껴졌다. 이른 새벽부터 순례단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미리 환영 마중을 나온 것이다.

순례는 과거의 허물어진 탑이나 건물을 보기보다 그 흔적 속에 담긴 인간 붓다의 고뇌를 느끼고 그 발자취를 따라 가르침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그 순수한 목적이 이뤄진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큰 원을 세워 실천하는 정진만이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감동으로 전환된다.

순례의 공덕을 불교중흥의 원력으로 회향하고자 하는 순례단은 이들의 공양을 겸허하게 받았다.

행선 중인 순례단은 10분 가량 쉬고 다시 행선을 시작했다. 10분에 불과한 휴식시간을 위해 마을주민들은 하루 동안을 휴식 장소를 가꾸는 데 썼다. 순례단의 다음 행선지는 마타아리아, 하지만 바자하 마을에서 2km 떨어진 마훌리 마을에서는 바자하 마을과 똑같이 마을주민들이 간이천막을 세우고, 카페트를 깔고, 과자와 물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고마움에 순례단은 매일 저녁예불 이후 마음에서 우러나온 작은 답례를 한다. 3월 15일 피프라흐와에서도 숙영지를 제공해준 지역관계자들과 불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인도 현지 주민들과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은 43일동안 모두 하나였다.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기나마피 마을에서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이 인도 불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숙영지로 입장하고 있다.



순례단장 원명 스님이 현지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도 현지 주민들이 나와 인도순례단을 환영하고 있다.



법회를 지켜보는 이들 중 일부는 합장을 함께 했으며, 일부는 순례단 법회가 신기한 듯 촬영하고 있었다.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 대표와 주 힌두교 지도자, IBF 불교 대표 등이 나와 환영 플래카드를 펼치고,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순례단 스님들이 쉬는 곳에서는 인도정부 관계자가 꽃잎을 뿌리며 축원했다.



인도 현지 주민이 상월결사 순례단을 환영하고 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나는 이렇게 느꼈다

한국불교 중흥과 세계평화를 발원하며 떠난 43일간의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회향을 맞았다. 원만성취를 이루기까지의 여정을 순례 동참자들에게서 들어봤다.

"인도순례, 불교 중흥 이정표 될 것"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상월결사 순례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법 포교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원력 때문이다.

범해 스님은 이번 인도순례에서도 1조에서 순례를 이어가고 있다. 스님은 "우리 108명의 순례단이 자연스럽게 인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한국불교를 중흥하기 위한 행위"라며 "순례가 힘들지만 부처님 4대 성지를 순례하는 이유는 한국불교를 중흥시키고, 불자들에게 그 원력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중생 속으로 사회 속으로 우리 불법이 녹아 스며들어야 한다는 회주 스님의 말씀 속에서 방향이 담겨 있다"며 "출가자들이 자기 성불도 중요하지만, 중생 속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다른 것이 없다. 대중들 속에서 삶 속에서 향상할 수 있는 수행, 전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출가 수행자들이 부처님이 걸은 길을 걷는 것은 많은 대중들이 신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도 성지 순례는 한국불교사서 근래 없었던 일"이라며 "후대에 가면 한국불자들이 인도 부처님 성지를 두발로 걷는 것이 하나의 신행문화가 되고, 오늘의 순례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전법 동력 결집으로 이어져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동안 중생교화를 위해 걸었던 길을 지금의 우리가 다시 걷고, 불교 중흥의 원력을 새기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불교 중흥의 원력은 전법 · 포교 동력 결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지현 스님은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위해 조계사 사중 스님과 신도 대중 100명과 함께 응원단을 구성해 2월 21, 22일 일정을 함께 했다. 조계사 응원단은 부처님 정각성지 부다가야로 진입한 인도순례단에게 꽃비를 뿌리며 환영했으며, 마하보디대탑에서 진행된 세계평화기원법회에 참석했다.

지현 스님은 "상월결사 인도순례에서 발원한 원력들이 이제는 전법 · 포교 동력으로 결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 · 청소년, 대학생 등의 계층포교의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마하보디사원에서 봉행된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포교만이 한국불교의 살길이며, 포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뤄져야 한다' 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제 한국불교는 적극적인 전법 · 포교 종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조계사는 포교를 통한 한국불교 중흥에 일임을 담당하겠습니다." **신성민 기자**

"순례길 전법길로 전환되길"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부처님처럼 살자는 다짐의 길, 이제 그 길이 전법의 길로 전환되길 발원합니다."

인도순례 14일 차인 2월 22일 인도 마하보디사원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대법회' 에 직접 참석해 순례단을 응원했던 덕문 스님은 "인도순례 현장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전법 포교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순례 전 일정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 덕문 스님은 "순례 모습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그 길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를 대표해 떠난 순례자들을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덕문 스님은 "현장에서 한국불교의 희망도 함께 봤다"고 말했다. 순례단이 가는 곳곳마다 자발적으로 찾아와 응원하는 인도인들에게서, 그들의 근본에 부처님이 있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덕문 스님은 "한국불교도 신도수 급감에 매몰될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지금까지는 전통문화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신도들을 기다리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포교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면서 "방향을 제시하고 앞서 나가는 역동적인 불교를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현지서도 순례단 보고 발심"



국제포교사회장 **정혜** 스님

정혜 스님은 인도 순례 공고를 보자마자 상좌인 해인 스님과 함께 신청했다.

국난극복 자비순례에 이어 삼보사찰 천리순례까지 완보한 정혜 스님은 1998년 국제포교사 3기로 품수받은 이후 한국불교 세계화의 원력을 품고 있다.

정혜 스님은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철야정진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천막법당을 부다가야로 만드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인도 현지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순례단의 행선을 보고 발심하는 것을 보며 새로운 힘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령의 나이로 순례가 힘들만도 하지만, 스님에게는 환희의 여정이다. 스님은 "순례를 하면서 대중이 부처님이구나를 느꼈다. 나 혼자서는 못 걷는 것을 함께 걸으니 가능했다"며 "인도인들이 박수 치고 환영하는 것을 보며 순례단 사부대중이 정진하듯, 불자 개개인이 정진한다면 한국불교 중흥은 물론 불교 중흥을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혜 스님은 이제 한국에서 전법 포교에 매진한다.

스님은 "한국의 불자들이 힘을 모아 어렵게 사는 불자들이 있는 인도 마을에 한국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 부처님 가르침 아래 인도의 지역민들이 어울리는 것을 보며 불제자로서 너무나 기뻤다"고 말했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전세계에 펴시고 그 가르침이 수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했듯, 우리 한명 한명이 마음을 내어 그 가르침을 전하여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합시다." **노덕현 기자**

"안주했던 마음 다잡는 기회"



동국대 정각원장 **진명** 스님

"부처님 가신 길을 따라 1167km를 걷는 이 불사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아무나 할 수 없는 불사죠."

지난 2월, 인도 라즈기르 영축산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을 만났던 동국대 정각원장 진명 스님은 토사곽란(吐瀉癨亂) 속에서도 "부처님 걸으신 길에서 죽는 건 영광"이라고 말하는 순례단원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말했다.

스님은 "순례를 함께할 순 없었지만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례의 의미를 살리는 일"이라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걷는 스님들처럼 불교중흥을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진명 스님은 특히 회주 스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했다. "국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사회속으로, 중생 속으로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안일하고 안주했던 마음을 다잡았다"면서 "종교 인구 노령화와 코로나 등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월 23일 조계사에서 봉행될 회향 법회 이후 우리의 포교 형태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님은 "사찰 행정 업무, 문화 복지 포교, 교육 불사 등 무엇을 하던 이번 인도 순례가 현장에 있는 스님과 불자들의 마음의 끈을 다시 한 번 조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힘은 미약할지 모르나 뭉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인도순례, 인식 변화 계기로"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이번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순례단원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번 순례 동안 주 회장은 인도 주민들의 환대에 놀랐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가는 곳마다 받는 환대에 불교 중흥에 대한 원력은 더욱 커졌다.

주 회장은 이번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통하여 사부대중의 원력이 하나로 모이길 간절히 발원했다.

주 회장은 "인도불교가 흥했다가 사그라진, 고려불교가 흥했다가 사그라진 이유는 사부대중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스님들이 청정한 수행과 전법을, 재가자들이 공덕을 쌓는 외호를 통하여 불교 중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회주 자승 스님이 말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 만이 불교의 미래를 담보한다고 내다봤다.

주 회장은 "인도순례가 하나의 행사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된다. 많은 불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상월결사가 주창하는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불교, 대중 속으로 다가가는 불교, 출가자와 재가자 사부대중이 차별없이 함께 힘을 모으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참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자라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불교 중흥에 같이 동참했으면 합니다.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각자 본분을 찾아서 매진하다보면 중흥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발바닥 물집 헛되지 않기를"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포교는 말보다 실천이라는 회주 스님의 말씀에 청년 불자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졌죠."

2월 22일 인도 비하르주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대법회' 에 참석한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이 당시 현장에서 받은 감동을 풀어내며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아래에서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원을 세우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봤다는 장정화 회장은 "스님들의 환희에서 흐르는 눈물, 발바닥에 잡힌 물집이 헛되지 않게 한국불교 중흥을 이루기 위한 진실한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인도 순례 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큰 감동을 받은 장정화 회장은 최근 조계종 포교원에서 진행한 '강릉 해맞이길 걷기 순례' 에도 동참했다. 장 회장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짧은거리를 체험하면서 인도를 순례 중인 스님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성스럽고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는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높아진 것도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상월결사의 원력들이 잘 결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불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장 회장은 "남산 마애불 세우기 동참, 순례길 조성, 종교편향 대응 등 다양한 방면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청년 단체 조직이 침체된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내 한국불교 중흥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범어사 사부대중일동

문 의 | 종무소. 051)508-3122 원주실. 051)508-3636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인도에 뿌려놓은 '佛緣 맺기' 씨앗들

상월결사 순례 이모저모
인도 주민 반응 '폭발적'

순례단 곳곳서 현지인과 소통
열린법석으로 불교 씨앗 파종
현지 불자도 순례 통해 '결집'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브렛터와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원들. 단주 선물 이후 너나 할것 없이 함께 사진 찍으며 웃었다.


순례단 최고령자인 前호계원장 무상 스님이 행선 도중 인도 노보살의 손을 잡았다.


인도불교소사이어티 여성회원을 만난 정혜 스님이 손을 잡아주며 눈물 흘리고 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의 43일간 대장정은 현지 주민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국에서 온 불자들을 현지 주민들은 정성을 다해 환영했다. 힌두교도들 역시 순례단에 깊은 호의를 표하기도 했다.

회주 자승 스님이 평소 강조해온 '불교 인연(佛緣) 맺기'는 인도 현지에서도 빛을 발했다. 순례단은 곳곳마다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고 열린법석을 펼쳤고, 이내 이들은 감화됐다. 불교가 사라진 인도에 다시 '불연의 씨앗'이 파종되는 순간이었다.

종교 공존 마을서 법석 '환희'

3월 12일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그리고 불교도들이 공존하는 브렛터와 마을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순례단은 이곳에서 저녁예불 후 단주와 염주 등을 마을주민들에게 선물하고 이들과 사진을 찍으며 열린법석을 펼쳤다. 단주를 전달하자 굳어있던 분위기는 웃고 떠드는 즐거움으로 변했다. 단주 받기를 거부하던 일부 무슬림들도 결국에는 스님들에게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청하기도 했다.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손짓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이들 등으로 예불 공간은 가득찼다.

불자인 콜리족 안쥬 스리 고탐 씨는 "마하라즈간지 지역 전체에 5만명 가량의 불자들이 있다"며 "우리들은 부처님과 인연이 닿은 람그람 등을 참배하며 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쥬 스리 고탐 씨는 "한국에서 불교순례단이 방문해 주셔서 더욱 힘이 난다. 순례단을 보니 환희롭다"고 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울린 순례단은 그 무엇보다 환희로운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국제포교사회 회장도 맡고 있는 정혜 스님은 "한국의 불자들이 힘을 모아 이런 곳에 한국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아래 지역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며 불제자로서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불가촉 천민들의 신심 '감동'

3월 17일에는 싯다르트 나가르 지역의 지기나마피 마을에 도착했다. 싯다르트 나가르는 '고타마 싯다르타의 땅'이라는 이름처럼 각 마을마다 불교기가 걸린 법당이 있어 순례단의 환희심을 더하게 했다. 지기나마피 마을에는 인도 불교소사이어티 불자들이 대거 나와 순례단을 환영했다. 불교소사이어티는 뭄바이에서 1956년 창립됐으며, 싯다르타 나가르 지역에서는 2002년 대규모로 개종이 일어나며 지회가 설립됐다. 대부분 불가촉천민 출신이 개종하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닐 쿠마르 고탐 지회장은 "불자로서 불자들이 방문하면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 곳에 스님들이 오셔서 감사하다. 특히 순례단 방문으로 현지 주민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쿠마르 지회장은 "인도에는 부처님 성지가 있지만 정작 불자들은 적다. 하지만 순례단이 마을을 다니며 불교를 알리면 '외국에서도 이렇게 부처님을 쫓아 순례 오는데, 인도 사람이면서 믿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퍼진다. 순례단의 순례는 분명히 인도에서 불교가 전파되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현지 불자들의 환대도 순례 곳곳에서 이어졌다. 순례 6일차를 맞은 2월 14일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후손인 '석가족'이 순례단을 찾아왔다. 석가족들은 한국불자들의 방문으로 이 지역 불심이 크게 융성할 것이라며 기대와 함께 감사를 표했다.

대기설법으로 불교 씨앗 심다

회주 자승 스님도 인도 주민들에게 대기설법하며 불교의 씨앗을 뿌렸다. 자승 스님은 "이곳은 부처님 나라, 진리의 땅이며 부처님 후손인 여러분을 만나러 저희들이 여기에 왔다"며 "이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의 피가 흐르는 후손들이 훗날 3천년 전 부처님이 계셨던 그 시절로 진리의 불꽃을 피워올릴 날이 꼭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순례 중 순례단이 가장 놀란 부분은 인도 내 불심이라고 한다. 힌두교로 흡수된 줄 알았던 인도 불교는 현지인의 내면에 살아있었다. 적극적인 신행활동으로 표출되는 부분은 적었지만, '평등과 차별 금지' '평화' '생명 존중' 등 부처님이 전한 큰 가르침을 마음 속에 간직한 이들이 많았음이 느껴졌다. 순례 곳곳에서 '나무 붓다'라고 하며 합장하는 이들을 흔히 발견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상월결사, 인도불자 결집 이끌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인도 현지 불자들의 결집도 이뤄냈다. 인도 UNI뉴스는 3월 13일 "인도 모디정부 집권여당 BJP 보드가야 지역위원장이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본받아 인도불교의 중흥을 위해 3월 13일부터 베삭데이인 5월 5일까지 순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드가야 지역인 비하르주의 불자들로 스님과 신도 500여 명이 순례 입재식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전법 포교에 매진하는 것을 따라 총 534개 마을, 10800km를 순례한다.

이어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 비하르주 주도이며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2월 28일 행선한 파트나에서 회향한다. 이들은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처럼 선두차량에는 상월결사 큰부처님과 닮은 부처님을 모셨다. 또 낙타,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상월결사 인도순례단과 같은 방식으로 행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순례 실무 차원에서 2월 22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행선을 참관했다. 당시 실무책임자 판카 파스완(PANKAJ PASWAN) 씨를 비롯한 불자 200여 명이 자승 스님에게 인사하고 이번 순례 안내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학술·문화 증진 위한 한국-인도 교류 잇달아

동국대·날란다大 MOU, 학술대회
한-인 수교 50주년 전시회 등 열려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맞춰 다양한 교류행사들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한국과 인도의 국교 수교 50주년을 맞아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인도 델리에서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주인도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문화교류행사를 개최했다.

3월 21일에는 주인도 한국대사관저에서 사찰음식 명장인 정관 스님이 준비한 사찰음식 정찬을 인도에 소개하는 만찬을 진행했다. 만찬에는 장재복 주인도 대사와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한국 및 인도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다.

3월 22일에는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국립현대미술관(NGMA)에서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한국문화를 만나다' 특별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전시회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의 전통등과 한국 전통 불교의례의 상징인 괘불을 매개로 하는 미디어 아트,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사진작품 등이 전시된다. 전시를 통해 4월 30일까지 한달여간 진행된다.

문화교류행사의 일환으로 사찰음식 명장인 정관 스님이 현지 조리학교인 찬디왈라 조리대학(BCIHMCT), GD고엔카대학교-르 꼬르동 블루 인디아, 주인도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전통불교문화체험 및 사찰음식 시연회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가 진행됐다.

동국대와 인도 날란다대학은 불교학 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동국대는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신임총장이 2월 24일 인도 비하르(Bihar) 주 라즈기르(Rajgir)에 위치한 날란다 대학(Nalanda University)을 방문해 수나이나 싱(Sunaina Singh) 총장을 만나 양 기관의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으로 도보순례 중인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을 비롯해 정각원장 진명 스님, 황순일 불교대학장, 김용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대학은 △학생·교수·연구자 교류 △공동 교육·연구, 공동 컨퍼런스·심포지엄 등 학술교류 △출판물 및 학술자료 공유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오늘 MOU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 불교학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웅 신임 총장은 "동국대와 날란다 대학의 학술교류가 활발해져 두 대학의 불교학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협약에 앞서 오전에는 날란다 대학 오디토리움에서 '불교 전통에서 순례의 중요성'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도 개최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新興寺

사부대중 일동



자랑스런 상월결사 인도순례 주인공들



자승 스님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회주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부처님 8대성지를 43일 동안 1167km 도보순례한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전인미답의 대장정이었다.

인도의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에 맞서 정비되지 않은 길을 하루 평균 27km씩 걷고, 학교 공터나 힌두사원 등에서 숙영해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임에도 스님과 재가신도로 구성된 순례단원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순례를 마무리했다.

한국불교 중흥을 서원하며 붓다의 길을 따라 걸었던 자랑스런 순례 단원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1조


범해 스님


무상 스님


동명 스님


호산 스님


덕조 스님


노현 스님


종호 스님


선광 스님


심우 스님


오심 스님


인산 스님


연공 스님

3조


법원 스님

2조


설도 스님


원명 스님


환풍 스님


태성 스님


항명 스님


진오 스님


본오 스님


영일 스님


대우 스님


하원 스님


혜장 스님


제민 스님


현해 스님


허허 스님


선지 스님


덕현 스님


지불 스님


법정 스님


밀엄 스님


보원 스님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회주 연암 현해
주지 퇴우 정념

사부대중일동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8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오대산 월정사

4조


설암 스님


제정 스님


탄묵 스님


탄무 스님


탄호 스님


탄하 스님


도림 스님


보월 스님


탄학 스님


문종 스님

5조


삼조 스님


각만 스님


법본 스님


보성 스님


시관 스님


도봉 스님


능원 스님


각일 스님

6조


묘수 스님


지해 스님


현조 스님


원해 스님


정혜 스님


해인 스님


수문 스님


원준 스님


선해 스님


도연 스님


덕진 스님

7조


이태경


성계순


김정숙


백금선


강덕순


정유림

8조


정충래


주윤식


이영규


이규민


김형규

조석주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개화산 약사사

주지 범해 스님

사부대중 일동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7길 261 약사사 전화 : (02)2662-2551, 7551



불교중흥 동국발전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지고 돌아오신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축하드립니다.

신심과 원력의 발걸음들이 모여
불교중흥과 동국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상임이사 성 월	이사장 돈 관	건학위원회
WISE캠퍼스총장 이 영 경	동국대학교총장 윤 재 웅	의료원장 채 석 래